

# 2026 중동 진출전략



# Contents

## I. 진출 환경



<b>1. 경제 환경</b>	<b>04</b>
가. 경제 전망 및 호부진 요인	04
나. 주요 경제지표	06
다. 현지 경제 상황	07
<b>2. 정치(정책) 환경</b>	<b>09</b>
가. 정부 현황	09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2
<b>3. 주요 이슈 Pick</b>	<b>25</b>
가. 美 트럼프 2기, 중동 지정학 리스크의 새로운 양상 및 주요국 입지 변화	25
나. 중동 주요국 AI 산업화 전환 단계를 거쳐 AI 네이티브화 단계 돌입	27
다. 우리 기업 차세대 생산거점 후보지로서 중동권역 지역가치사슬(RVC)	29
라. 중동 대중문화의 ‘관용주의 이슬람화’ 흐름 속 K-Lifestyle 확산	33
마. GCC 국가 결속, 교통·물류 인프라 확장을 통한 하브 기능 공고화	35
바. 사우디아라비아 기가 프로젝트의 리프레이징, 재정·유동성에 맞춘 속도 조절	36
사. 시리아 경제재해 완화('25년 5월), 재건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리스크	37

## II. 시장 분석



<b>1. 시장 현황</b>	<b>42</b>
가. 시장 특징	42
나. 무역	49
다. 산업	67
라. 중동 투자 현황	68
마. 한국↔중동 투자 현황	79
바. 프로젝트	82
<b>2. 유망 산업</b>	<b>90</b>
가. AI·디지털 혁신	90
나. 재생에너지	96
다. 반도체	99
라. 방위산업	101
<b>3. 협력 기회</b>	<b>108</b>
가. 통상·G2G	108
나. 프로젝트	111
다. 공급망(자원개발)	113

## III. 진출전략



<b>1. PEST/SWOT 분석</b>	<b>116</b>
<b>2. 진출전략</b>	<b>118</b>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156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164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168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170

#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9 |
| 3. 주요 이슈 Pick | 25 |

# I 진출 환경



## 1. 경제 환경

### 가. 경제 전망 및 호부진 요인

□ (요약) 탁월한 회복탄력성(Remarkable Resilience)을 보여준 '25년 중동 경제, GDP 증가율 예상치는 '25년 3.2% 및 '26년 3.7%로 성장세 가속화 예상(IMF, '25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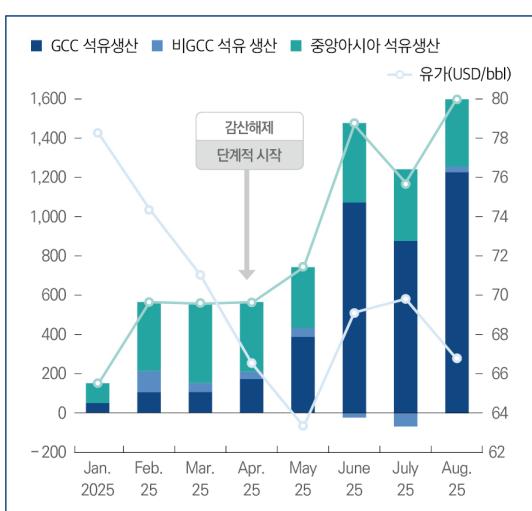
- IMF가 '25년 10월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세계 무역 제한으로 인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음. 최근 지역 내 분쟁으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적
- 특히 저유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OPEC+ 감산해제에 따른 석유 수출량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측했으며, 비산유국의 수출·관광 확대가 주 성장동력
- GCC '26년 성장률은 평균 4.3%로 견조할 전망이며, UAE 5.0%, 사우디아라비아 4.0%, 카타르 6.1%로 추정됨. MENA 전체는 3.7% 내외로, 기존 레반트·북아프리카 등 비GCC 경제권의 전반적 저성장이 예견되었으나 알제리·이라크 등 석유 수출국의 성장 예측치가 상향 조정

주요국 GDP 성장률

(단위: %)

국가	2024년	2025년 <sup>e</sup>	2026년 <sup>e</sup>	2030년 <sup>e</sup>
MENA	2.1	3.3	3.7	3.6
UAE	4.0	4.8	5.0	3.9
사우디 아라비아	2.0	4.0	4.0	3.3
카타르	2.4	2.9	6.1	3.4
쿠웨이트	-2.6	2.6	3.9	2.3
이집트	2.4	4.3	4.5	5.3
요르단	2.50	2.7	2.9	3.0
이라크	-0.2	0.5	3.6	4.1
이란	3.7	0.6	1.1	2.0
알제리	3.7	3.4	2.9	2.5
모로코	3.8	4.4	4.2	3.8

〈OPEC+ 감산해제 이후 석유 생산량〉



자료: IMF

## □ (호재 요인)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탈중국·신흥시장 투자’ 흐름, GCC 중심의 중동 내 미·중·유럽 자본 유입 활성화 및 신산업(재생에너지, ICT, 스마트 물류) 프로젝트 시장 투자 확대 등 정책 성과가 성장 견인 예상
  - \* 공급망 차질에 따른 해운 운임 상승, 원자재 중심 인플레 상승 등 하방압력은 상존
- ’26년 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를 중심으로 대형 국제행사(전시회, 스포츠, 액스포) 개최 및 관광·소비 시장 확대, 주요 두바이·사우디아라비아·도하 무역허브 및 특구 중심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유치
- 시리아 내전 종식에 따른 재건, 레바논, 예멘 등 일부 저성장 국가의 경제 정상화·복구 움직임, 국제기구 지원 확대

## □ (부진 요인)

- (유가 하방 압력) OPEC+의 감산정책 완화 등으로 공급>수요 리스크에 따른 유가 하락 시 산유국 재정·투자에 역풍,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 대규모 프로젝트 차질 및 이란·이라크 등 산유량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제한 가능성
  - \* ('25년 10월 기준) IEA는 '26년 공급 과잉(OPEC+감산 해제·비OPEC 증산) 시나리오를 경고한 반면 OPEC은 ‘소폭 적자~균형’ 시나리오 제시(유가변동성 상하방 훈재, 전망 불확실성 ↑)
- (지정학·물류 리스크) 홍해·호르무즈 등 물류 요충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이 여전히 상존, 이에 따른 물가·보험료 변동이 수출입 위축 유발 가능
- (非GCC) 이집트·레바논·튀르키예 등 비GCC 국가의 대규모 인플레이션 및 환율 불안 지속 시 외화 유출 가속화 등에 따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 (글로벌 리스크)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가속화 시 중동 각국 재정 건전성 악화 및 대외의존도 증가, 글로벌 불확실성(미·중 무역전쟁, 유럽 재정 불안, 아프리카 위기 등)의 중동 투자심리 위축 위험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sup>e</sup>	2026년 <sup>f</sup>
인구	백만 명	511.9	521.4	528.1	538.6	550.2	561.8	571.5	580.7
명목 GDP	십억 달러	3,542	3,157	3,806	4,579	4,470	4,592	4,647	4,911
1인당 명목 GDP	달러	15,420	13,596	16,142	18,920	18,074	18,206	18,113	18,837
실질 성장률	%	1.3	△2.4	4.2	5.5	2.1	2.1	3.3	3.7
실업률	%	10.5	9.5	8.9	8.3	7.9	6.5	6.5	6.4
소비자물가 상승률	%	7.7	10.9	12.9	13.6	15.0	14.2	12.2	10.3
재정수지(GDP 대비)	%	△1.2	△7.5	△1.9	3.4	0.0	△1.9	△2.6	△2.6
총 수출	백만 달러	1,107,824	843,631	1,251,488	1,735,201	1,516,555	1,435,548	870,449 (~8월)	-
(對韓 수출)	백만 달러	71,999	44,725	65,189	109,459	93,802	93,158	67,247 (~10월)	-
총 수입	백만 달러	946,118	862,021	1,078,930	1,213,053	1,241,289	1,295,956	817,616 (~8월)	-
(對韓 수입)	백만 달러	17,661	14,675	15,600	17,524	18,798	19,683	16,083 (~10월)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61,706	△18,390	172,558	522,148	275,266	139,592	52,833	-
경상수지	십억 달러	34.4	△106.8	136.5	398.0	192.6	131.3	71.5	56.3
환율(연평균)	현지국/US\$	-	-	-	-	-	-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08	424	685	984	680	773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614	600	976	1,088	1,052	1,477	-	-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자료: IMF, Global Trade Atlas, UNCTAD, Worldbank, 한국무역협회

## 다. 현지 경제 상황

### ※ 국가별 경제 전망 및 이슈

- (UAE) 금융·건설·운송·부동산 주도 견조한 경제 성장 전망, 국제행사·관광특수 등 비석유 부문 성장세 강화
- (사우디아라비아) 비석유산업·아랍권 금융수출 확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재정 안정성 관건
- (카타르) QatarEnergy 등이 주도하는 LNG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가장 높은 성장을 전망
- (이집트) 환율 불안·물가 상승 지속(8%대)되고 있으나 IMF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재정건전성 회복 추세
- (튀르키예) 고인플레이션 장기화, 정부의 물가 억제 및 금융안정 위한 긴축적·정상화된 정책 지속 여부가 관건
- (이란) 국제제 재 장기화 및 핵협상 난망으로 1% 전후 저성장 지속 예상
- (레바논·시리아) 경제복구 정책, 국제기구 지원 강화, 실질 경제 정상화 및 인프라 투자 기대

→ 전체적으로 GCC 주도의 성장 집중, 非GCC 산유국은 감산정책 완화에 따른 재정 개선으로 다소 회복이나 석유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산존

### □ (소비) GCC·개도 산유국 및 수입국 모두 민간 소비 완만한 회복으로 지역 성장률은 '25년 2.8%로 상향(비석유 부문 견조·관광 회복)

- '26년에도 GCC 내 물가 안정(약 2.4~2.6%), 소비심리 회복으로 UAE·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도시 중심 소매·외식·건강·엔터 소비 증가해 3.3% 성장 전망
- 다만 분쟁 및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 위험이 존재하며 이집트·이란·레바논 등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8~12%)으로 소비 시장 위축 가능

### □ (민간 투자) 실질 투자 증가세(Private Equity, 벤처캐피털 등 자본 유치 활발) 지속, UAE·사우디아라비아의 레지던스, IT, 헬스케어, 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 투자 확대됨에 따라 예년 대비 M&A 등 계약 실적 상승

\* (EY) MENA 지역 M&A('25년1~9월) : 총 649건, 691억 달러 규모(전년 대비 23% 증가)

### □ (산업 생산) '25년 하반기 글로벌 PMI가 완만한 확장을 재개(세계 종합 PMI 52p대), 이는 중동 비석유 제조·건설·물류·소비재 생산에 플러스 요인이 되어 GCC·중동 전체 PMI는 52~54p 구간을 유지하는 등 확장 국면 유지

- GCC 전체 PMI는 '26년에도 53~56p 구간을 유지할 것으로 주요 기관들이 전망,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형 제조업·신성장산업 부문이 연중 견조한 확장세로 PMI 56p 내외, UAE·카타르도 53~54p 확장 예상

□ (대외교역) '25년 GCC 기준 대외교역 증가율 4.7% 내외,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26년 증가율 5.0~5.2% 전망. 통상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가 교역 증가 견인

- WTO 10월 전망('25 상향 2.4%, '26 하향 0.5%)에 따르면, AI 관련 품목·선적 선행 수요가 '25년 실적을 끌어올리고 '26년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 중동 교역도 완만한 회복 → 둔화 패턴 가능

□ (투자 유입) UNCTAD 기준 글로벌 FDI '24년 -11%(유럽 급감)하였으나 중동은 '24년 7% 증가, 약 870억 달러 수준으로 상대적 선전

- UAE '25년 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5% 증가,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역 견인
-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입 하반기 부진으로 중간 목표 미달 예상이나 AI·테크 신규 투자가 강세. GCC 전체 FDI '24~'25년 연평균 20~30% 성장률 기록

□ (투자 진출) GCC SWF(Sovereign Wealth Fund, 국부펀드)·기업의 해외투자 활발, '25년 9월까지 해외 집행 563억 달러로 세계 SWF 활동의 40% 수준('24년과 유사) 기록

- \* 공동 투자(PE+SWF) '25년 7월까지 393억 달러로 견조하나 선별적
- 유가·재정·국가전략에 따라 대형 테크/인프라/자원 중심으로 지속, 규제·관세 환경에 따라 지역·섹터 재배치

□ (유가) '26년 유가는 공급과잉 등 하방압력 지속으로 \$52 내외 형성 예상

- 유가는 글로벌 공급과잉 영향으로 65달러 내외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26년 이후에도 OPEC+감산 해제 및 전기차·에너지 효율 확대 등 수요 둔화에 따른 구조적 하락 압력 지속 전망 → 美에너지관리청(EIA)은 '26년 평균 유가 \$52 예측
  - \* '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유가 급등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세계은행 등 각 기관은 유가하향을 구조적 신호로 분석, MENA 각국 재정개혁 진행중
- IMF의 재정균형유가 기준, 저유가 기조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란 등은 재정압박이 커진 반면 UAE·카타르·오만 등은 상대적 완충 여력이 큼

중동 산유국 재정균형 유가

(단위: USD))

국가	2024년	2025년 <sup>e</sup>	2026년 <sup>e</sup>	2030년 <sup>e</sup>
UAE	50.0	50.4	45.2	38.4
사우디아라비아	96.1	92.3	86.6	82.5
GCC	47.1	44.7	43.2	37.9
쿠웨이트	88.2	80.2	76.7	81.6
오만	53.7	57.0	53.5	41.9
non GCC	137.7	163.0	164.8	132.5
이라크	83.8	78.6	79.1	79.6
알제리	155.6	156.6	1419	119.7

자료: IMF('25년 5월)

〈유가 흐름 및 예측치〉



자료: EIA('25년 10월)

## 2. 정치(정책) 환경

- (정치 환경) 왕정체제下 안정적 승계구도 확립에 따른 정책 운영 순항 중인 GCC 및 지정학적 긴장 상황 속 안보를 명분으로 한 장기 집권의 피로감 확산되는 이란·이스라엘
- (정책·규제) 첨단산업 위주 산업 다각화 위한 투자 정책 확대 및 현지화 규제 심화

### 가. 정부 현황

#### □ (대내) 군주제하의 안정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는 걸프국가, 공화제 체제 내 장기 집권 속 경기부양 난제 해결이 필요한 튀르키예·이집트 등

- (군주제) GCC 국가는 군주제하에 왕정의 권력 계승 방식을 형제 계승에서 직계비속 승계로 변경, 안정적 승계구도 확립에 따른 정국 안정세 지속
  - \* 사우디아라비아·UAE·오만 등 대부분 GCC 국가가 안정적 정치 환경을 유지하는 데 반해 쿠웨이트는 예외적으로 정부-국회 간 갈등으로 국왕이 국회 해산 및 입법권 정지 명령 상태 지속('24년 5월~)

#### GCC 국가 군주제 유형 및 주요 이슈

구분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유형	절대 군주제	연방 군주제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	절대 군주제	입헌 군주제
주요 특징	국왕·왕세자 중심 통치, 자문 기구(슈라) 운영	7개 토후국이 연방 최고위원회 통해 의사결정 참여	'24년 11월 국민 투표로 슈라의회 선거	'24년 5월 의회 '무기한 정지' 등	자문형 의회제, 장자 책봉 등	하원 선거 4년 주기, 차기선거 '26년 11월

-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국왕부터 제7대 살만 국왕(Salman bin Abdulaziz Al Saud, 2015~)까지 형제 계승을 이어왔으나, 이후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MBS)을 왕세자(2017) 및 총리(2022)에 임명하고 실권 이양
  - 왕세자가 경제개발위원회(CEDA), 안보·정치위원회(CPSA) 등 핵심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Vision 2030 개혁과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
  - 반부패청(Nazaha)을 앞세운 부패 척결, 여성 인권 신장 등 사회 개혁 지속 중
    - \* 반부패청 월별 단속 실적 공개하며 집행강도 강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34.5%('25년 2분기)
- (UAE) 아부다비의 왕이 대통령, 두바이 왕은 부통령·총리직을 겸임하는 체제, 7개 토후국 통치자로 구성된 연방 최고위원회(Federal Supreme Council)가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연방의 주요 정책 방향·법률 심의·대통령/총리 임명 등 결정
  - '22년 5월 대통령직을 승계한 UAE 3대 대통령 세이크 모하메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중심의 안정적 리더십이 장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아부다비) '23년 3월 UAE 대통령의 장남 세이크 칼레드가 왕세자로 책봉, (두바이) '08년 책봉된 세이크 함단은 고령의 두바이의 왕(세이크 모하메드, '49년생)과 함께 활발한 대외 활동 중

- (공화제) 터르키예·이집트 장기 집권체제 속 부양책을 통한 경제 정상화 도모, 이란 개혁 성향 폐제쉬키안 대통령의 지정학 이슈 속 개혁 정책 시도
  - (터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연임<sup>'23년 5월</sup>으로 '28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시화 되었으나, 야당의 지방 선거<sup>'24년 3월</sup> 압승 이후 야권(CHP) 유력 인사인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임마오율루 구속<sup>'25년 3월</sup>으로 정치적 긴장 상황 지속
    - \* 시민단체·청년층 중심 시위, EU·국제인권기구는 정치적 중립성·사법 절차 투명성 관련 우려 표명
  -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13년 집권 이후 3선에 성공하며('24년 4월) '30년까지 국정 운영 예정, '25년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통제력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
    - \* 선거에서 무소속 전원 낙선, 전체 상원 위원 300석 중 10%는 여성 배분
  - (이란) '24년 조기 대선에서 개혁 성향의 마수드 폐제쉬키안 대통령이 당선되어 '28년까지 집권 예정, 보수 강경파 중심의 최고지도자·혁명수비대(IRGC) 체제 속에서 개혁 정책 추진을 시도 중
    - \* '25년 현재 핵협상(JCPOA) 복원을 둘러싼 협상 이슈, 장기 경제 제재에 따른 기초 인프라 붕괴로 정치 비판 여론 강화, 최고지도자 승계 논의 본격화 등 정치적 이슈 산존
- (내각책임제) 이스라엘은 내각책임제 하에서 '22년 말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가 '25년 현재까지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으나, 국방비 증액·가자지구 및 서안지구 정세 악화 등 안보 이슈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
  - 사법 개혁안(사법권 제한·대법원 권한 축소)에 대한 반발, '25년 8월 가자시티 점령과 인질 석방 협상 정책에 대한 반발로 군 예비역·청년층 중심 반정부 집회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반대 여론 악화

**□ (대외) 미·중 경쟁 심화 및 기술·에너지 패권 대응 속 범아랍의 역할 확대, 중동 각국의 외교적 중재 및 실리외교에 따른 전략적 파트너십이 역내 안정과 리스크 억제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각**

- (가자사태) '25년 10월, 미국의 압박으로 2년간 이어온 하마스-이스라엘 간 분쟁 종식을 위한 1단계 휴전안에 양측이 합의, 국면 전환 시도되고 있으나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완전 철수는 미지수
  - GCC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란·이스라엘 갈등의 장기화, 가격 불안을 경계하며 계속 중재와 압박을 병행
  - 휴전안의 주요 조건으로는 △ 모든 생존 인질의 석방, △ 이스라엘군의 지정선(yellow line)까지의 철수 및 진입·공격 중단, △ 휴전 효력 발동 후 인도 지원 및 재건 준비 착수 등이 포함

〈휴전 지정선(Yellow Line)〉



자료: CFR

- (이란 핵협상) 이란은 역내 시아파 벨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아랍·이슬람권의 외교적 지지와 협력 결집에 집중, 이스라엘과의 교전 피해와 경제 제재 지속에도 불구하고, 핵협상(JCPOA) 복원을 통한 경제 정상화 드라이브를 병행
  -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꾸준히 확대 중이며, BRICS 가입 이후 글로벌 사우스 내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음
- (팔레스타인 이슈) '25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승인, 이에 더해 룩셈부르크, 벨기에, 안도라, 몰타, 모나코, 산마리노 등 6개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
  - \*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1988년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바 있으며, 현재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약 159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
  - 이는 두 국가 해법에 힘을 실으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을 의미, 이스라엘은 '테러리즘에 대한 보상'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극우 연립정부는 서안지구를 완전히 병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
- (BRICS) '25년 7월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관련 이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경제 제재를 규탄했으며, 이란의 WTO 가입 신청을 지원
  - \* 브릭스의 지지로 UN,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내에서 서방에 맞설 수 있는 이란의 역량을 강화하며, 향후 러시아와 중국에 안보 보장 요구 가능성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
  - 브릭스는 '24년 이집트·이란·UAE 등 중동 국가가 본격 합류하며 '탈달러 결제' 방안 추진을 계속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함
    - \* OPEC+, BRICS 회원국 간 에너지·무역 결제 시스템 시험적 도입 등 시도가 있었으나, 달러화 주도 국제금융 질서의 견고함, 회원국 간 이견 및 결제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

#### MENA 지역 국가별 BRICS 가입 동기 및 기대 효과

국가	가입 동기	기대 효과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적 위상 제고(글로벌 사우스-노스 연결)</li> <li>전략적 파트너십 다각화 및 경제 다각화 (제조업, 신산업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사회에서의 지위 인정 기대</li> <li>단순 투자국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노스 공급망 통합 및 디지털 허브 구축을 선도하는 종건국형 협력 모델 지향</li> </ul>
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재 극복 및 경제적 고립 탈피</li> <li>외교적 아군 확대를 통한 미국 주도 국제 질서 견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IFT 대안 시스템 모색 및 브릭스 금융시스템 활용을 통한 금융 채널 확보</li> <li>무역 파트너 확대 및 에너지 수출시장 확장(국제북남 운송회랑(INSTC) 활용 기대)</li> </ul>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경제위기 외부 지원 모색</li> <li>서방 외의 개발 원조, 외국인 직접투자 확보</li> <li>MENA 지역 대표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개발은행(NDB) 활용, FDI 유치를 통한 외환 부족 완화 및 인프라 분야 자금 확보</li> <li>금융 협력을 통한 미국달러 의존도 축소, 역내 평화 중재자 입지 강화</li> </ul>

자료: EMERiCs 아프리카·중동

##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 (비전·정책) 첨단 제조 중심 산업 육성 흐름 강화, 산업 다각화 추진 정책 성과 가시화 단계의 UAE 및 재정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 (UAE) 산업 다각화 정책의 중심이 되는 ‘3천억 디르함 산업전략(Operation 300bn)’을 뒷받침하는 투자·프로그램 봇물, 가시적 이행 성과 발표
  - \* Operation 300bn : ’31년까지 제조업의 GDP 기여액을 약 917억 달러까지 확대 목표, 세계 최고 수준 첨단산업 및 비석유 부문 육성을 위한 UAE 연방 전략
  - ’25년 1분기 비석유 부문 GDP가 5.3% 증가하며 전체 성장세를 주도하였고 GDP 내 비석유 부문 비중은 77.3%로 최고치 기록,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경제 다변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
  - \* ’22~’24년 아부다비 제조업 GDP : 908 → 1,116억 AED(+23%), 제조기업 수 : 925개사 → 1,104개사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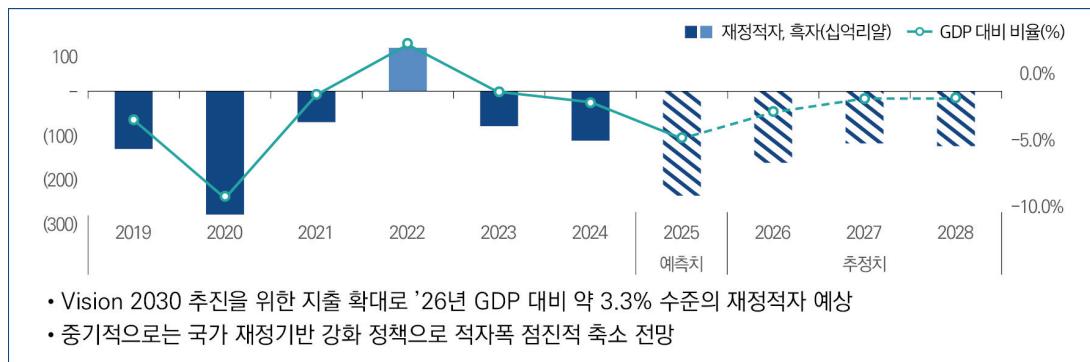
#### UAE Operation 300bn 전략 관련 최근 동향

구분	일자	주요 내용
MIITE-ADNEC 장기 공동 개최 (포럼 플랫폼화)	’24년 11월	• MIITE(Make it in the Emirates Forum)를 연례 산업정책·투자 유치 플랫폼으로 제도화
‘Made in the UAE’ 적합성 라벨 개편	’25년 4월	• 제품 적합성(표준·인증) 라벨 체계 고도화로 국내 제조 신뢰도·수출 경쟁력 제고, “라벨 변환을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 정책 공지
Make it in the Emirates Forum 2025(MIITE)	’25년 5월	• 신규 산업 프로젝트 110억 AED 규모 발표 • ADIO(아부다비 투자청)와 ‘Industrialists Program’ 협력 발표

- 회사법 10조 UAE 국적자 지분 51% 이상 보유 요건 폐지(’21년 4월)에 이어 239조 지사·연락 사무소의 로컬서비스 에이전트 임명 요건 폐지에 따라 외국법인·개인 100% 소유 투자 유치 가능, 외투 친화적 환경 조성
- 토후국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에 따른 외국인 100% 소유 비즈니스 확대
  - \* 아부다비와 두바이 정부는 국방, 안보, 통신, 은행·금융 서비스, 종교 외 일부 분야를 제외한 외국 기업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한 활동 약 1,000개 리스트를 공개
- 상업 에이전시 자격 요건 확대·계약 종결 조건 완화 등의 법개정안 발효(’23년 6월)로 외국인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요소 제거, 기등록 에이전시 유예기간이 끝나는 ’25년 하반기부터 현지 진출 외국 기업 본격 수혜 기대
-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재정 악화에 따른 기가 프로젝트 정책 조정 상황에서도 산업 육성 정책 우선 배치하여 신규 시행,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2026 사전 예산 계획서(Pre-Budget Statement, '25년 9월)에서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 및 지출 효율화를 전명하며 Vision 2030의 당초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재정-비전 병행' 기조를 재확인
- '산업표준화 인센티브 프로그램(Standard Incentives Program)' 등 비전의 핵심 축(제조·디지털/AI·관광·인적자본)은 신규 정책 발표 및 투자 지속
  - \* 수입대체 및 현지 제조 확대 목적으로 산업부·투자부 공동 총 SAR 10bn(약 27억 달러) 배정, 혁신산업, 자동차 제조 및 부품, 기계·장비 등 산업 초기 투자 최대 35% 지원 인센티브 제시

###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균형 현황 및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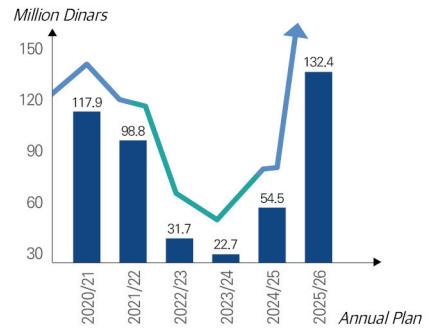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Pre-Budget Statement('25년 9월)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법 개정, '25년 2월부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전의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2000)을 대체
-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절차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 법률적 구분을 폐지, △ 투자자 면허 취득 요건 삭제, △ 투자 대상 활동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인허가 필요 없이 등록 절차만 요구, △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 해결 절차 개선, △ 지적재산권 보호, △ 인센티브 조항 등이 포함
- (쿠웨이트) Kuwait Vision 2035 구체화, 쿠웨이트 2025/2026 개발계획 승인('25년 5월)
  - '24년 5월 의회 해산·현정 일부 정지(최장 4년) 후, 정부·내각 주도로 개발계획이 승인·집행되는 구조가 확립되면서 프로젝트 승인·조정의 유연성 증가,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25년 1월) 등 수익 기반 제도 정비도 병행
  - 의사결정 속도 가속화로 그간 지연되어 온 국가개발계획 Kuwait Vision 2035 주요 프로젝트 본격 추진, 민간 주도 경제 성장 및 취약한 기초 재정 상태 해결에 중점
    - \* 정치적 불안정 및 부패 이슈 등으로 인한 GCC국 가와의 경제성과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혁신 도모
    - \* 재무장관이 "의회 정지 하에서 인프라·다각화 추진의 탄력성이 커졌다"고 발언
  - 반면 의회 정지로 견제장치 약화, 의사결정의 집중화에 따른 장기적 제도 신뢰·투명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치 리스크'를 우려하는 대내외 의견도 상존

### ※ 연도별 쿠웨이트 재정지출 현황 및 기대 효과(현지 언론)

- '25/'26년 회계연도 1분기 말 기준, 정부의 개발사업 지출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 총 규모 약 43억 달러, 141개 프로젝트 추진 예산 배정 승인
- 쿠웨이트 국제공항 신규 여객터미널, 항만 프로젝트, 의료 시설 도입 등 운송·항만 인프라 전반의 개보수를 포함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상업활동 촉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발표



자료: kuna

-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 QNV 2030) 달성을 위한 3차 국가발전전략(2024~2030, NDS3) 수립·이행('24년 1월)

### 카타르 3차 국가 개발 전략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다각화 클러스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IT, 금융업, 교육, 식품 및 농업, 의료업, 미래 클러스터 등 9개 부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제 성장 부스터 역할</li> </ul> </li> </ul>
재정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원 다각화, 공공 지출 효율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 행정 역량 및 효율성, 세금 징수 강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적 리스크 시스템 구현을 통한 비탄화수소 수입 비중 증가</li> </ul> </li> </ul>
미래 준비형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민 인력 육성 및 고숙련 노동인력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분야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민간분야 노동의 20%를 자국민 의무채용에 할당하여 자국민 경쟁력 육성, 노동이민 정책 개혁으로 고숙련 외국노동력 유치</li> </ul> </li> </ul>
응집력 있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 장려 프로그램 도입, 결혼 준비 상담, 출산 혜택, 출산 휴가 도입 등</li> </ul>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인프라, 문화 중심 개발을 통한 높은 삶의 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분야 임상 서비스 접근성 향상, 보험 서비스 민간 분야로 확대, 교통 인프라 확장</li> </ul> </li> </ul>
지속가능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 보존, 생태계 보호, 온실 가스 배출 감소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 가스 배출량 25% 감축, 지하수 추출 70% 감축, 자연 서식지 30% 복원 등</li> </ul> </li> </ul>
우수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정부 출범, 정부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정부 기관 내 AI 도입</li> </ul>

자료: PSA(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 특히 카타르는 '17~'21년 주변국과의 단교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래 국가식량안보 전략(Qatar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을 수립

\* ① 국내 생산 확대 ② 전략비축·조기경보 체계 마련 ③ 무역·국내 유통시장 안정 등 총 17개 이니셔티브 설정, 지속가능 기술 도입·기후적응·민관협력(PPP) 강화 등이 핵심 요지

- 식량 안보전략 프레임을 '24/25년에 재정렬해 NDS3 및 각 부처 전략과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의 스마트농업 협력은 '19년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 MOU 체결 이래 코로나19로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다가 '23년 한국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정 체결, 국장급 협의체인 '제1차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24년 2월 개최하는 등 재활성화</li> <li>•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카타르 자치행정부 주도 하, 정부간 또는 민간 협업 기회 모색 중</li> </ul>
---

-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EMV) 2단계(2026–2029) 실행계획 수립('25년 4분기 공개 예정)
  - 비전 1단계(2023–2025) 연차 보고서에서 '25년 중반 현재 총 177개 우선과제가 완료되었으며, 342개(62.9%)는 진행 중으로 성과를 강조
    - \* 투자 통합 전자플랫폼 고도화, 정부 디지털 전환(65% 디지털화), 관광 부문 회복, 국가 식량 안보 관리시스템 공식 가동, 퀸 알리아 국제공항 4.8MW 태양광 발전소 준공 등
  - 2단계 실행계획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도시 교통체계 고도화, 관광지 인프라 확장, 수자원 및 공공서비스 관련 사항 등 다각적인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며 PPP·민간 투자 확대 방향을 천명
- (튀르키예) '30년 산업기술전략('25-'30) 발표('25년 3월)
  -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기차, 반도체,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2030 산업기술전략(2030 Industry and Technology Strategy)'을 발표
    - \* 튀르키예 12차 경제개발 계획(2024–2030)('23년 10월 발표) 실현을 위한 하위 전략
  - 튀르키예는 해당 전략을 통해 자국을 첨단 기술 제품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 '30년까지 첨단 기술 수출 규모를 300억 달러(약 43조 9,600억 원)로 성장시킬 계획

### 튀르키예 2030 산업기술전략 세부 내용

구분	기대효과
전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산업,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집중하며, HIT-30 프로그램, 기술 중심 산업도약 프로젝트, 국가 반도체 컨소시엄 등을 통해 국내 생산 역량 강화 계획</li> </ul>
이중 용도 기술 및 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 시스템, KAAN 전투기, 통합 방공 플랫폼 등 국방분야 기술의 R&amp;D 지속</li> <li>•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사이버보안, 유전체 분야의 국가 인프라를 국가 양자 기술 연구소, 원자력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 중심으로 강화, 슈퍼컴퓨팅 투자 프로그램 추진</li> </ul>
디지털 및 녹색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인프라 확대, 산업용 로봇 20만 대 보급, 국산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등 추진</li> <li>•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원자력, 순환경경제 모델 확대와 함께 스마트 공급망 구축도 병행</li> </ul>
물류 현대화 및 무역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도로 프로젝트(Development Road Project), 잔게주르 회랑(Zangezur Corridor)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통해 공급망의 회복력과 효율성 제고</li> <li>• 철도–항만–공항 통합형 운송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솔루션 투자 확대</li> </ul>

구분	기대효과
원자재 및 전략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D 지질지도, 위성 영상,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략적 자원의 접근성 강화</li> <li>• 제이한 석유화학 단지(Ceyhan Petrochemical Zone)를 전 세계 원자재·석유화학 가공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li> </ul>

자료: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 (이집트) 수출 육성 및 경기 진작, 민간 투자 회복을 위해 '수출 리베이트 프로그램' 개정('25년 6월) 및 국영기업 민영화 확대 등 다각적 정책 시행
  - '23~'24년 환율·외화 부족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미지급 보전금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는 IMF 프로그램과 병행해 수출 지원체계를 손질, 대외 신뢰 회복을 꾀함
  - '30년까지 1,150억 달러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25/'26년 450억 EGP(9.3억 달러) 배정하고 이 중 380억 EGP(7.8억 달러)는 전략산업에 우선 배정
    - \* 전략산업은 제약, 엔지니어링, 식품, 기성복 및 섬유, 화학, 광업, 건축 자재 등
    - \* 선정 기준은 고부가가치 제품(50%), 수출성장률(30%), 현지화 노력(20%) 등을 고려
    - \* '19~'24년간 2,800개 내외 수출업체에 총 700억 EGP의 보조금 지급
  - '25년 기준, '23년 매각 발표한 국영기업 35개 중 9개사의 일부 지분 매각, 2개 은행 및 4개 군 소유 기업 등 11개사 신규 매각계획 발표

□ (조세제도) '세금 Zero의 중동' 이미지는 과거 이야기로, 세수 확보를 위한 연방 법인세 시행 확장 및 개인 소득세 신규 부과 등 정상 조세국가화 변화

- (오만) GCC 최초의 개인 소득세 도입, 개인 소득세법 제정('25년 6월) 및 시행('28년 예정)
  - 오만 비전 2040에 맞춘 재정 다변화, 석유의존도 축소, 사회보장 재원 확보, 고소득자 중심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오만 내외국인 모두 적용 예정
    - \* '25년 6월 22일 Royal Decree No. 56/2025로 공식 제정, '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오만 개인소득세법 주요 내용 요약

- 과세 대상 : 오만 거주자(연 183일 초과 체류) 및 비거주 소득자 모두 포함. 오만 내외국인 모두 적용
  - \* 비거주자 : 오만 유래 소득에만 과세 적용
- 과세소득 범위 : 연간 총 소득(현금+현물), 급여·근로소득, 자영업소득, 임대·연금·이사보수 등 대부분의 개인 소득 포함
- 면세 기준 : 연간 OMR 42,000(약 USD 109,000) 이하 소득에 대해 면세
- 세율 : 단일 5%, 면세 기준 초과 금액에만 적용
- 원천징수, 납부·신고 : 고용주가 소득 발생 시 자동 원천징수·납부. 개인 신고(연 1회)와 추후 세무조사, 폐널티 조항도 신설
- 비고 : '고소득자 중심 과세' 방향에 따라 면세 기준 소득 높음, 추가 세수는 사회복지에 투입 예정

- 이슬람은 필수의무인 자카트(Zakat) 제도가 있어 개인소득세와 자카트가 상충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정책·문화적 교류가 큰 GCC 주변 국가로 확장 우려
  - \* 자카트 : 무슬림의 5대 필수 의무 중 하나인 구빈세, 총 재산의 2.5%를 기부하는 제도
  - \* UAE 정부는 개인소득세 도입 우려에 대해 개인소득세 도입 예정이 없음을 공식 발표(경제장관 압둘라 빈 투고 알 마리 : "(소득세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 당분간 도입되지 않을 것(not on the table/not coming anytime soon)."(25년 1월))
- (UAE) UAE 연방 법인세법 공식 발효에 따라 '25년 9월 다수 기업이 최초 납부,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GloBE)에 따라 국내 최저한세(DMTT) 도입
  - (법인세) '23년 6월 1일부 UAE 연방 법인세법 공식 발효, 6월 1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 단 프리존 감면 혜택을 발표('24년 5월)함으로써 프리존 내 입주기업들이 면세 혜택 수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
    - \* '24년 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 채택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24년 1월 1일~12월 31일, 최초 신고와 납부는 '25년 9월(회계연도 종료 9개월 이내), 대부분의 우리 진출 기업 해당

#### ※ UAE 연방 법인세 주요 내용 요약

- 과세 대상 : UAE 내의 법인과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중인 개인, 일부 정부 기관, 비영리 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
  - \* 연간 수익 AED 1,000,000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사업자 등록 면제
- 세율 : 과세소득 AED 375,000(약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0%, 이상인 경우 9%
- 비고 : 프리존기업(QFZP)은 적격 사업활동(Qualifying Activities)이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적격 소득(Qualifying Income)에 대해 0%의 세율, 비적격 소득의 경우 9% 과세
  - \* 요건 : UAE 내 실재, 적격소득 발생, 표준세율 체계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 이전 가격 요건 준수 등

- (국내 최저한세) '24년 12월 발표된 내각 결정\*에 따라 OECD Pillar 2에 근거하는 국내 최저한세 '25년 1월 이후 최초 회계연도부터 적용
  - \* Cabinet Decision No 142 of 2024
    - \* OECD GloBe 모델에 기반하여 매출이 EUR 7억 5천만 이상 다국적 기업(MNE)에 적용, 15%의 최소 유효세율을 보장(지난 4개 회계연도 중 2년 이상 EUR 750백만 이상, UAE 본사 기업 중 해외 사업장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
- (기타) 가상화폐에 거래에 대한 세금 폐지('24년 11월 부), 자금 유동성 최정점에 있는 투자처로 거래 활성화 및 세계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 (쿠웨이트) 법인세 신설('25년 1월) 및 개인소득세 도입 논의·검토 단계
  - (법인세) '24년 12월 31일 Decree-Law No. 157/2024 공포, '25년 1월 1일부터 최초 시행

#### ※ 쿠웨이트 법인세 주요 내용 요약

- 과세 대상 : 국내 영업 다국적기업(MNE, 연매출 7.5억 유로 ↑), 일부 대규모 내국 법인 포함
  - \* 중소·로컬기업은 비적용
- 세율 : 순이익 기준 단일 15% '최저한세' 과세(기존 외국법인에만 적용되던 법인세 확대)
- 비고 : 6~9개월 유예 기간('25년 9~12월까지 등록·의무 이행), 집행 규정 추가 발표 예정

- (개인소득세) 최근 재정건전화·국가비전 2035(개발계획)에서 검토 공식 발언. 단, 구체 법안 부재·사회 합의 부족 등으로 단기 실행 가능성은 낮은 상황
  - \* 정부 입장 : 향후 GCC(걸프협력회의) 및 IMF 협업 하에 국제 스탠더드, 사회적 공감대, 저소득층 보호 방안 마련 시 시행할 것이라 발표
- (카타르) 글로벌 최저한세법 통과 및 시행('25년 3월)
  - '25년 3월 27일 Law No. 22/2024 공포, 다국적기업 중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2년 이상 실적 충족 기업에 기준 10% 법인세에 더해 유효세율 15% 미달 시 차액 만큼 '최저한세' 추가 부과
    - \* 최초 적용은 '25년 회계연도부터 세금 신고서 제출. 미신고·지연시 하루 500리얄, 최대 18만 리얄 패널티 등 신규 벌칙 규정 신설
- (튀르키예) 대규모 재정사업, 경기 부양 및 산업 활성화 위한 법인세 개편('25년 1월)

#### 튀르키예 법인세 개편 사항

분야	개편 전	개편 후
법인세율	법인 소득 공제 전 법인세율 미적용	• 법인 소득 공제 전 10%의 법인세 적용
전자상거래 세금 인센티브	별도 세금 공제 사항 없음	•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인에게 지불된 금액 세금 공제
프로젝트 사업 세금 적용	프로젝트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미적용	• BOT(Built-Operate-Transfer) 모델 포함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 수익에 30% 과세
다국적기업 법인세 적용	다국적 기업 세금 회피 방지 목적 위한 세금 적용 소극적	• 수익 7억 5천만 유로 초과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최소 법인세율 15% 도입

## 중동 국별 주요 세제 정책 총괄표

국가명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VAT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아랍 에미리트	9%	국내 최저 한세 15%	없음	-	없음	-	5%	-
사우디 아라비아	20.0%	천연가스 투자활동 30%, 오일탄화수소 생산 85%	없음		0~15%	배당금 및 이자 5%, 서비스 20%, 로열티 15%, 기타 15%	15%	금융서비스, 부동산임대, 자본재 판매 등 예외
바레인	46.0%	석유화학계열만 부과	3%	사회보장기여금 명목 차등 부과	없음		10%	기존 5%에서 2022년 1월 31일 부 인상
예멘	20.0%	사업분야 별 차등 (20~50%)	10~20%	거주자 여부 등 차등	0~10%	거주자 여부 등 차등	5~10%	통신, 모바일 10% 분야를 제외하고 5%
카타르	10%	외국 기업만 부과	없음	-	5%	-	없음	도입 예정
오만	15.0%	석유소득세 55%, SME 3%	없음	고소득자 대상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0~10%	로열티, 연구개발 대가, SW 사용권 대가, 관리 수수료 등에 원천징수 적용	5%	세율 인상(10%) 논의 중
쿠웨이트	0%	외국 법인 15%	없음		5%	임대료 등에 비거주자 에게 공제후 지급	없음	'28년 도입 검토
이집트	22.5%	사업분야별 차등 (22.5~40.55%)	0~27.5%	연간 소득 구간별 상이	5~10%	상장 여부에 따라 5~10% 차등부과	14%	'16년 10월 10% → 14% 인상
리비아	20%	-	5~10%	연간 소득 구간별 상이	0%	원천징수 없음	0%	VAT 없음
이란	25%	보험사, 외국 항공사, 선박사 예외	0~30%	업종별 차등 부과	3%	비거주인 대상 부과	9%	
이스라엘	23%	우선 개발지역 우대	10~47%	구간별 서울 적용	23%		18%	'25년 1월 1일부 17% → 18% 인상
팔레스타인	15.0%		5~15%		0~10%		16%	
요르단	10~35%	사업분야별 차등, 평균 20% 수준	5~30%	-	0~10%	-	16%	일반판매세 (General Sales Tax)로 징수됨
레바논	17.0%	-	2~25%	레바논 내 발생 소득에 과세	0~10%	거주 여부에 따라 상품·서비스 차등 부과	11%	-
시리아	28.0%	사업분야별 차등 (10~28%)	0~22%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세율 적용	0~7.5%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	해당 없음
모로코	17.5~34%	과세소득 구간별 차등	0~37%	연간 과세소득 구간별 차등	10~12.5%	배당 또는 이자 소득,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등	20%	품목별 면제 및 감면 적용 (0~14%)

국가명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VAT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이라크	15.0%	석유가스 35%	3~15%	매월 원천징수	-			소비재 및 일부에 한해 판매세 부과
알제리	26.0%	제조업(19%) 관광·수자원· 건설(23%)	23~35%	월 30,000 DZD 이하는 면제	30%		19%	
튀니지	15.0%	공예(10%) 금융업(35%)	35%	연 7만 달러 초과	25%		19%	
튀르키예	25%	금융업(30%)	15~40%	-	5~20%	배당금, 임대료 등 향목에 따라 차등	1~20%	품목별 차등

자료 : 중동지역본부 조사 종합('25년 10월 기준)

## □ (규제)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화 요건 및 자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 요건 확대가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

- (현지화) 산업 전반 현지 생산 비중 확대를 위한 요건 상향 조정
  - (UAE) '25년 1월, 현지화 ICV(In Country Value) 인증 기준을 전면 개편 적용 산업 범주 및 기업을 확대하고 및 요건 강화
    - \*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 : 현지화 정책으로 '25년까지 현지조달 비중 42% 달성, 13,5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28년까지 1,780억 딜루ם 경제 환원 기대 등 성과 발표

## UAE 현지화 인증(ICN) 개편 사항

항목	개편 전	개편 후
인증 대상 기업 범위	주로 대형 제조업체, 정부·공공 프로젝트 공급업체 중심	전체 산업으로 확대(제조·서비스·IT 등), 인증대상 약 5,000개 → 7,300개 이상 확대
평가 항목	① UAE 내 제조비용, ② 투자금액 ③ 에미라티 인력 비중 ④ 현지 조달 ⑤ 외국인 고용 ⑥ 일부 산업별 추가 항목	① 제조·서비스별 평가항목 세분화 ② AI·첨단 기술 도입/ESG(지속가능성) 반영 ③ 현지 고용·현지 조달 비중 강화 ④ 투자 성장·외부 매출 가중치 추가 ⑤ 산업별 가이드라인, 전자화 시스템 적용
제출서류/방식	통합·연결재무제표 일부 허용, 관리회계·감사보고서 근거	단일법인(법인별) 단독감사 재무제표만 인정 (연결재무제표/관리계정 불인정), 엄격한 자료제출/감사
현지화 점수 (수주 영향)	정부 입찰 가점(비중 보통 20~30%), 일부 대규모 프로젝트만 필수	정부·공공계약 모든 입찰 최소 요건, 실제 수주 경쟁력 (실제 점수 30~50% 차지)

-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내 산업별 허브 털환을 위해 '24년 1월 시행된 지역본부 정책(Regional Head Quarter)에 따라 '25년 8월 기준 540개 다국적기업이 라이선스 취득

\* '23년 대비 2배 증가, 당초 목표인 '30년 500개를 조기에 초과 달성

\*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현대건설, CJ 등이 인근 권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

**※ 사우디아라비아 RHQ 2025년 주요 변경 사항('25년 9월 발표, New Draft RHQ Rules)**

- 표준 요건(임원 상주, 연결 조직 구조, HQ 기능 등) 상세화 및 예외 규정 최소화
- 정부 계약 참여 최소 요건과 실제 검증 강화(임원·실무진 필수, '명목 RHQ' 인정 불가)
- Saudization 예외 및 세금 인센티브 기준 구체화(적격 RHQ 활동만 대상, 부적격 활동 분리).
- RHQ 임원 프리미엄 레지던시, 가족 비자 혜택 확장(최대 자녀 나이 25세로 변경)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본부 정책(RHQ) 주요 내용**

요건(규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1월부터 미등록 다국적기업(MNC)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정부 기관과의 신규 계약·입찰참가 원칙적으로 금지</li> <li>• 정부 및 국영기업 프로젝트 입찰 시 '구매비용 혹은 조달 비용의 최소 70%'를 현지조달(사우디아라비아산 제품·서비스·협력업체 활용), 현지인 채용 기준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 설립 기업에 최대 30년간 법인세 면제</li> <li>• 자국민 고용 의무제(Saudization) 10년간 면제</li> <li>• 임직원 가족(자녀) 동반 비자, 임직원 대상 종합 행정 비즈니스 컨시어지 서비스(금융, 교육, 주거 등) 지원</li> </ul>

- (오만) 프로젝트·입찰·콘텐츠 관리청('25년 6월 발표, 구 입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지 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별도의 국가 지역 콘텐츠 사무국(National Office for Local Content) 설립하고 정부 입찰·프로젝트의 현지화 점수 관리
  - \* 외국 기업이 공공입찰·프로젝트 참여 시 현지 고용·현지기업 협력·현지 구매·기술 이전 등 실적 보고 및 평가 의무(감점 혹은 계약 제한 가능)
- (기타) 카타르는 ICV 현지화 지수 성과 공개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및 바레인도 현지 조달 가점제 및 국영 프로젝트 내 현지 구매 조건을 삽입하는 등 점진적 의무화 추세
- (채용·노동법) 현지화 규제 내에 자국민 채용 관련 사항이 주요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구 대비 자국민 비율이 낮은 UAE·카타르 등 국가의 경우 자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요건 강화 추세
- (UAE) 50인 이상 사업장은 '22년부터 5년간 매년 2%씩 자국민 고용 의무화('26년 10%), '23년 7월 새로운 개정안 발표로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 \* 미준수 기업은 1인당 연간 AED 42,000(약 1,100만 원) 벌금 부과, 반복 불이행·허위 고용 시 최대 AED 500,000까지 가중 벌금 적용
  - \* 디지털 실태 조사(AI 기반 시스템)로 '25년 1분기에만 405건 허위채용 적발하는 등 규제 강화

**※ UAE 현지인 채용의무, 에미라티제이션(Emiratization) 관련 정부 발표 내용('25년 7월)**

- '25년 상반기 기준 UAE 민간부문에 152,000명 이상 에미라티 채용 성과 달성, 29,000개 기업이 목표치 달성, 신규 에미라티 고용률 33% 증가 등

- (사우디아라비아) 직종별 현지인 채용(Saudization) 비율 할당, '25년 법 개정으로 주요 고위직 (임원, 중간관리자)는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를 채용하도록 강화

### ※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 채용의무,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 직종별 기준

- 엔지니어링 : 5인 이상 사업장 30%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 채용
- 회계 : 5인 이상 회계사 기준 40% 시작 → 매년 10%씩 상향, '28년에 70% 목표
- 의약품·약국 : 병원·약국 등 5인 이상 사업장 35~65% 이상
- 의사·의료 : 일부 직종 45~80% 단계별 상향('25~'26년)
- 전 산업 평균 Nitaqat(기본) : 구간별 15~40% 이상(소규모·숙련직 중심)

- (카타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에너지 부문 50% 자국민 고용 목표, '24년 9월 카타르 국왕은 자국민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법안 발표
  - \* 민간 부문 일자리 국유화, 표준 고용 계약서 템플릿 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
- (기타) 이외에 자국민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현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튀르키예 외국인 근로자 1명당 5명 국적자 고용, 이집트의 90% 이상 이집트인 고용의무 등 규제 마련, 미이행 시 벌금 등 불이익 부과

### □ (ESG) ESG 규범 도입 등 구체화 단계, 중동 ESG 이니셔티브 주도 경쟁 움직임

- (UAE) '25년 5월 연방 기후변화법(Federal Climate Change Law) 시행, ESG 공시 및 온실가스 감축·행정처벌을 법적으로 시행하는 중동 첫 국가
  - \* UAE Vision 2021, UAE Green Agenda 2015–2030,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경제 다각화와 환경,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 UAE 넷제로 2050 선언('21년 10월), '23년 7월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COP28 개최('23년 11월)를 계기로 국영·민간기업의 ESG 도입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왕정 주도의 빠른 속도전 특성이 ESG 경영 시행에서도 드러남
- 글로벌 표준(ISSB, IFRS S1/S2) 기반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실적 감독, 기업 재무·비재무 통합 감사, 실적 우수 시 정부 사업 및 금융혜택 우대, 실적 미달 시 본격적 행정벌칙 도입하는 등 구체화

### ※ UAE MAJRA(National CSR & Sustainability Authority, 국가 CSR 및 지속가능성 기구)

- UAE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CSR 및 ESG 관련 프레임워크·법령·인증과 정부 인증 기준 마련, 각 7개 에미리트별 CSR·지속가능성 위원회 운영(UAE 경제부 장관이 이사회 의장)
- UAE Vision 2030·UN SDGs 등 국가/국제 목표 연계 정책 개발 및 실적 인증, 기업 우수 사례 시상(Impact Seal 등)



〈MAJRA Impact Seal〉

-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20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 ‘중동 그린 이니셔티브(MGI)’를 주도, 회원국 확대와 구체적 프로젝트 실행, 신규 기구 설립 등으로 이행이 본격화
  - \* '25년 기준 중동·북아프리카 20여 개국뿐 아니라, 알제리·차드·케냐 등 아프리카 및 유럽, 아시아, 관찰자국(영국 등)을 포함해 29개 이상 회원국 보유
  - \* 사우디아라비아는 MGI 설립을 선언한 기획국이자 재정 투입(25년까지 누적 25억 달러 이상 약정), 실질적 사업 이행·거버넌스 구조 수립 주도
    - 사우디아라비아 그린 이니셔티브(SGI)는 '30년까지 연간 2,780만 톤 CO<sub>2</sub>감축, 100억 그루 나무 식재, 30%의 영토(육상/해양) 보호 등 기후·생물다양성 관련 목표
    -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반부패 척결을 위해 PIF(국부펀드), ARAMCO, SABIC, SEC(전력청)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필두로 내부 ESG 프레임워크 구축, '25년 상장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춘 ESG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운영제한 등 집행 강화
- (카타르) '25~'26년 ESG 경영 및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본격 확대 기간, '25년 9월 발표한 'ESG 지배구조 코드(Governance Code)'에 따라 '26년부터 상장기업(금융·에너지·공기업 포함) ESG 성과 의무 공시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FRS S1/S2) 적용 예정
- (튀르키예) '25년 7월 기후법을 신규 제정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등 EU 관세협정 등 유럽의 제조기지 특성상 ESG 규범 구체성 높음
  - 도지사 주도로 기후변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ETS), 자발적 탄소 시장, 글로벌 탄소 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법적 기반 등 주요 메커니즘을 도입
    - \* 이번 법은 처벌 조치가 아닌 글로벌 경제 동향과 탄소국경조정제에 부합하는 산업계 보호 의무로, 사회 복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적 책임과 수출·경제적 우선순위의 균형에 중점
  - 또한 튀르키예 지속가능성 재무제표 기준(Turke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TSRS)이 '24년 1월부터 발효되어 기존 기업의 자발적 의사로 발표되던 지속가능성 회계보고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 이행 중

### 튀르키예 지속가능성 재무제표 기준

구분	내용	
TSRS Section1	지속가능성 일반총칙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모든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
TSRS Section2	기후변화 연계 정보 공개	기후변화와 연계된 사업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

- 터키예 기업들도 이에 부응하여 점차 ESG 규범을 수용하고 국제 주식시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
  - \* VarifBank 국영은행 : 기업 대출 심사에 ESG 기준 적용, Ulker Group 식품사 : 런던 증권 거래소 108개 기업 중 ESG 지표상 1위를 차지, Aras Cargo 물류 대표기업 : ESG 전담 부서 설치
- (요르단) '25년 6월 IMF로부터 30개월간 7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합의,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Facility(RSF) 프로그램 승인 및 착수
  - 전력 부문 재정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 수자원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물 관리 개선 등 13개 과제 이행 예정
  - 특히 전력부문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전력 구매 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최적화 가 과제에 들어있어 향후 IPP 발전소 단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오만) 오만 재무부, '24년 1월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 발표
  -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서의 녹색 금융 비중을 '22년 1% 미만에서 '25년 50%, '30년 67%, '40년 10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재정배분 계획 발표
    - \* 수익금의 사용,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 수익금 관리, 보고 등을 규제
    - \* 화석연료 관련 활동, 원자력 발전, 화석연료 운송 전용 철도 인프라 등 일부 활동은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발행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무스카트증권거래소(MSX)는 상장 주식회사를 위한 ESG 가이드라인 제정, ESG 성과 보고 플랫폼 도입, '24년 약 30개의 ESG 지표를 기준으로 '23년 활동의 자발적 보고 권장 → '24년 활동의 '25년 보고 의무화

### 3. 주요 이슈 Pick

- 가. 美 트럼프 2기, 중동 지정학 리스크의 새로운 양상 및 주요국 입지 변화
- 나. 중동 주요국 AI 산업화 전환 단계를 거쳐 AI 네이티브화 단계 돌입
- 다. 제조기지 역할 강화 및 자국 중심 제조 기반 확장
- 라. 중동 대중문화의 ‘관용주의 이슬람화’ 흐름 속 K-Lifestyle 확산
- 마. GCC 국가 결속, 교통·물류 인프라 확장을 통한 허브 기능 공고화
- 바. 사우디아라비아 메가 프로젝트의 리프레이징, 재정·유동성에 맞춘 속도 조절
- 사. 시리아 경제제재 완화, 재건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리스크

#### 가. 美 트럼프 2기, 중동 지정학 리스크의 새로운 양상 및 주요국 입지 변화

##### □ 이스라엘-이란 전쟁 국면 변화 및 향후 전망

- ’25년 6월 13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면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상태(6월 24일~)
- 하마스·헤즈볼라·후티반군 등 이란 배후 세력과의 대리전(Proxy) 중심 과거 분쟁과 달리, 상호 본토를 단기간 고강도로 타격하고 미국이 직접 참전한 이례적 행태
  - 이번 공격은 23년 말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反 이스라엘 진영’을 모두 무력화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로서 계획된 것이며 이란의 핵시설(포르도·나탄즈·에스파한) 및 군사시설, 고위 지도자가 다수 희생
  - 특히 미국의 B-22 폭격기를 동원한 핵시설 파괴 등 직접 참전으로 일각에서는 이란의 ‘핵 억지력’이 단기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평가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60% 농축우라늄 408kg을 확보하고 있다고 공표, 이란 핵자산 및 기술이 남아 있으므로 핵 위협이 수년 지연된 정도로 평가
- 기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 핵무장 저지를 위해 경제제재를 패로 활용하였으나 이번 군사 공격으로 새로운 국면, 국지 분쟁 재발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군사력 쇠퇴로 단기적 시일내 확대 가능성은 낮아짐

##### □ 유가·해상물류 리스크 상시화 등 글로벌 경제에 끼친 영향

- (유가) 대규모 유가 급등 없이 단기에 진정되어 인플레 파급이 제한적이었으나, 호르무즈·수에즈 물류 차질이 동반될 경우 충격이 클 수 있어 글로벌 신경 촉각
 

\* 이란의회, 美 공격에 대응하여 호르무즈 해협 폐쇄 결의(6월 22일)하는 등 대응

- 국제법상 이란에 통행금지 권한은 없으나, 대형 유조선의 항해는 이란 영해에 속한 수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란의 해상기뢰 매설 등 조치 시 사실상의 폐쇄 효과
- 해협 봉쇄는 역내 수출국과의 마찰 및 이란 석유 수출 중단에 따른 재정 손실을 야기하므로, 이란 정권 붕괴 위기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면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각 다수

- (물류) 홍해를 둘러싼 국지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류운임과 보험료가 ‘전시 프리미엄’ 수준으로 고착,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영업비용 구조에 상시 반영
  - \* 수에즈 운하와 희망봉을 병행하는 이중 항로 확보, 운임 변동 요인 및 리드타임 지연을 정기 경영계획에 상시 반영하는 등 전략 마련
- (국제) 중동 내 “안보 리스크 지역”과 “투자 허브 지역” 양극화가 심화되어 GCC 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단순한 대체지가 아닌 정책적 안정 허브 지역으로 기능, 글로벌 자본과 기업의 지역본부 이전을 가속화

## □ 트럼프 2기, 중동을 둘러싼 세력판도 변화

-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과 유사한 ‘거래형 외교’ 전략 강화
  - 사우디아라비아·UAE·카타르 등 3개국을 취임 후 첫 방문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다졌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 병행
  - 전통적 동맹과의 다자협력 복원에 초점을 두고 인권주의를 강조한 바이든 정부와 대비되게 ‘미국 우선’ 기조에 따른 경제이익·안보 중심 외교로 복귀

### 트럼프 대통령 중동 3개국 순방 시(‘25년 5월) 주요 협약사항

국가명	대미 투자공약	주요 협약사항
사우디아라비아	6천억 U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 최대규모(1,420억USD) 방위 판매 협정, 사우디아라비아 내 AI 데이터센터 설립 관련 Nvidia 반도체 칩 공급 계약, 광물자원 개발 MOU 등</li> </ul>
UAE	2.4천억 U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GW AI 데이터센터 구축(765만 평 규모), 27년까지 매년 50만 개 Nvidia 반도체 칩 공급 예비 협정 체결, 항공 데이터센터 건설 협약 등</li> </ul>
카타르	1조4천억 U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잉 항공기 210대 공급 계약, LNG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레이시온 대드론 방어시스템 공급 계약, 양자 기술 합작법인 설립 등</li> </ul>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당시 시리아 경제제재 해제 선언을 하는 등 역내 안보 담론에서 이스라엘 입지가 약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구도로 변화
- (이집트·요르단·카타르) UN 총회(‘25년 9월)에서 미국이 제안한 ‘가자 영구휴전 및 인질 석방 로드맵’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미-아랍다자 회동 라인에서 실질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

## □ 중동 비즈니스 추진 시 전략적 함의

- 중동 비즈니스 추진 시 복수의 물류 항로 및 공급망 복수 선택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서 고려 필요
  - \* 수에즈 운하와 희망봉을 병행하는 이중 항로 확보, 운임 변동 요인 및 리드타임 지연을 정기 경영계획에 상시 반영하는 등 전략 마련
- 해상 안전관리, 위기대응 물류, 사이버·물리적 보안, 전쟁위험 보험 및 재보험 등 위험 관리 관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 가능

## 나. 중동 주요국 AI 산업화 전환 단계를 거쳐 AI 네이티브화 단계 돌입

### □ 脱석유화(산업 다각화) 드라이브의 ‘AI·디지털·데이터’ 중심성 강화

- 사우디아라비아·UAE·카타르 등은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핵심에 AI를 배치하며 탈석유를 대비한 산업 육성을 기준 인프라·금융·에너지 등에서 AX(AI Transformation)로 중심 이동

〈중동 산유국의 脱석유화 정책 시계열 및 집중 산업군 변화〉

방향	2000 초중반	2010~2015	2016~2019	2020~2022	2023~2025	2026 이후
핵심산업	탈석유 담론 시작	장기전략 기초 설계	Vision 공식 발표	비대면, 디지털전환	공급망 허브 역할	AI 네이티브화
주요정책	부동산, 서비스	물류, 항공, 금융	인프라, 재생에너지	전자정부, 디지털	AI, 데이터센터	AI+산업 융합
	① 관광(두바이 자유 무역·관광 허브), 부동산 개발 (두바이- 아부다비 신도시)	② 사우디 Vision 2030 기초설계, UAE Abu Dhabi Econo-mic Vision 등	③ 사우디 NEOM 프로젝트, UAE 4 <sup>th</sup> 혁신전략, 카타르 ICT, 스포츠 인프라 투자	④ 사우디 SDAIA 출범, UAE AI 국가 전략 채택 및 전자 정부 디지털 혁신 등	⑤ UAE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사우디 PIF Alat 설립, 카타르 Azure 리전 개통	⑥ GCC 국부펀드 기반 AI+산업' 융합(방산, 의료, 물류, 금융)을 통한 신산업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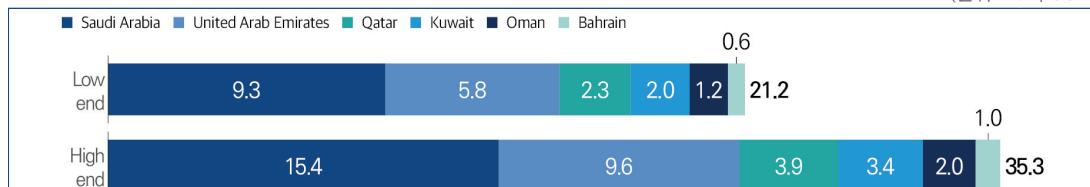
### □ 왕정 주도의 AI 도입 단계에 이어 美 등 하이퍼스케일 협업 본격화, “자본 + 전력망 + 하이퍼스케일러” 3개 요소를 확보한 신흥 강자 지역으로 부상

- ’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3강(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 협업 본격화, 중동이 세계 AI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 (UAE) 美-UAE 정상회담 시 2천억 달러(280조 원) 규모의 투자, 데이터센터 거래에 합의했으며 엔비디아 AI 반도체 연 50만 개 수입 계약 등 구체적 계약 협정 체결
  - Open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첫 해외 배치가 “Stargate UAE”로 정해졌으며 이는 글로벌 확장의 시금석으로 평가
- 중국과의 거리두기로 미국 측 기술 유출 우려 해소, UAE 규제정보국(Regulatory Intelligence Office) 설립을 통한 규제 마련, 공공 입법 과정에 AI 활용, AI 윤리 가이드라인 확보 등 법적·행정적 기반 공고화

- G42는 자회사 투자펀드 42XFund를 통해 '23년 3월 틱톡 모회사인 ByteDance의 지분 일부를 약 1억 달러 규모로 인수했으나, '24년 2월 바이트댄스 포함 중국 기업 지분 매각
- 미국 정부 및 의회 차원에서 보안·기술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G42가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 다수

### 〈GCC 국가별 생성형 AI의 경제적 가치 창출 규모〉

(단위: 10억 USD)



- 생성형 AI 활용으로 연간 210억~35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이는 오늘날 GCC의 비(非)석유 GDP 대비 1.7~2.8%에 해당

자료: McKinsey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Vision 2030 등 국가전략 목표의 70%가 데이터 및 AI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며, AI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에 박차
  - 데이터·AI 국가전략(NSDAI)에 따라 '30년까지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와 2만 명의 데이터 및 AI 전문가 양성을 목표, 반도체·AI 인프라·스마트 빌딩 등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투자사 Alat 설립('24년 2월, 국부펀드 PIF 산하)
    - \* 아랍어 거대언어모델(LLM) 올람(aLLaM) 출시('24년 5월)
  - '25년 5월에는 AI 전 밸류체인(인프라·클라우드·모델·응용) 구축을 목표로 PIF 산하에 AI 전문기업 Humain을 설립하며 인프라·자금 총동원 중

- 데이터센터 & 칩 조달 : 리야드·담맘 각 100MW급 데이터센터 1단계 착공, 26년 초 가동 목표. NVIDIA Blackwell 등 美 첨단 GPU 최多 18,000개 등 장기계약 구상
- 아랍어 LLM·애플리케이션 : LLAM 34B 기반 HUMAIN Chat 공개('25년 8월). 아랍어·이슬람 문화 맥락에 최적화된 대화형 앱(초기 사우디아라비아 내 제공)
- center3(STC 그룹 자회사)와 전국·국제 트래픽 연결 프레임워크 체결('25년 10월), AI 팩토리/데이터 센터 백본 연결성 강화

### □ GITEX 2025에서 아부다비 정부는 '27년까지 세계 최초의 AI-Native 정부 도약을 발표하는 등 AI를 도구가 아닌 산업·조직·서비스의 중심으로 확장

#### ※ AI Native

-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기술·조직·서비스가 처음부터 인공지능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를 의미(AI가 후공정(add-on)으로 덧붙여진 "임베디드 AI"와 구분)

- 1,100개 이상의 공공·민간 서비스를 통합하는 슈퍼앱인 TAMM의 최첨단 버전 출시를 발표하는 등 AI 부문에서도 “세계 최초·최대·최고 지향”
- 세계 AI 시장을 재배치(rewire)하는 GCC 국부펀드의 역할(Global SWF)
  - 걸프 지역의 국부펀드(SWF)들은 인공지능(AI) 분야의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글로벌 투자 세력으로 부상 중이라는 평가 다수
  - 이들 펀드는 단순히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결정짓는 “구조적 행위자(architects of AI's future)”로 평가, AI 인프라·칩 공급망·데이터센터·언어모델 생태계까지 글로벌 기술 질서를 재편 중
    - \* UAE Mubadala-G42 AI 얼라이언스(MGX 펀드) : 총 운용자산 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AI 펀드 중 하나

### 중동 국부펀드 AI 부문 동향

국가	국부펀드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UAE	PIF Mubada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400억 달러 규모 AI 전문펀드 구성을 위해 실리콘밸리 VC와 협력 논의 중</li> <li>• Mubadala-G42 AI 얼라이언스(MGX 펀드)는 총 운용자산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AI 펀드 중 하나로 성장</li> <li>• OpenAI, Microsoft, BlackRock과 함께 미국·유럽의 AI 인프라 투자 및 에너지 효율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추진 중</li> </ul>
	Q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형 AI 스타트업 및 반도체 설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에너지 기반의 저탄소 클라우드 인프라 연구 개발을 병행</li> </ul>

### 다. 우리 기업 차세대 생산거점 후보지로서 중동권역 지역가치사슬(RVC)

#### □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한국 제조업의 해외 생산거점 전략적 공략 필요 시점

- 과거 ‘저비용·효율’ 중심의 글로벌 제조업 분업 체계가 통상질서 재편을 거치며 ① 원자재 확보, ② 기술 안보, ③ 환경 규제 등 복합요인으로 재편, 제조 경쟁력의 기준이 가격에서 안정적 공급망 유지 능력으로 전환
- 한국 제조업의 해외 생산거점 역시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새로운 대체처 탐색이 필요한 단계이며, 중국 → 동남아 → 인도를 거쳐 차세대 생산거점으로서 ‘글로벌 사우스’ 검토 및 공략 필요
  - 중동은 전통 제조강국(이집트, 튀르키예), 북아프리카 전략기지(알제리, 모로코), 첨단산업 투자 주도(GCC) 세 축으로 주목
  -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낮고 중국·인도·유럽·역내국 중심의 교역구조를 가져, 수출 다변화 전진기지로서 활용하는 등 우리 기업의 대체처로 전략적 접근 필요
  - 대미 무역의존도가 낮아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도 대다수 국가가 기본 관세(10%) 수준으로 직접적 타격 미미한 수준

### 중동국 對美 관세율 및 美 상호관세율(%)

GCC 및 독립시장	관세율		마그레브	관세율		레반트	관세율	
	대미관세	상호관세		대미관세	상호관세		대미관세	상호관세
GCC 6개국	10	10	알제리	59	30	이라크	78	35
튀르키예	10	15	모로코	10	10	요르단	40	15
이집트	10	10	리비아	61	30	레바논	10	10
이스라엘	33	15	튀니지	55	25	시리아	81	41

\* 7월 31일 행정명령 이후 관세율, 대미 관세율은 미국 측 제시 수치(해당국과의 무역수지/미국 수입액)



#### 현지 동향 :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이집트 현지 반응

- 이집트 정부 : 미국 고관세 부과 속 반사이익 기대, 상대적 관세 우위를 제조업 성장의 모멘텀으로 인식
- T&C 가먼츠(이집트-튀르키예 합작 의류회사) 마그디 툴바 회장 : “섬유 분야에서 경쟁상대국 대상으로 훨씬 높은 관세를 매겼고, 이는 이집트에 매우 좋은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며 “기회가 눈앞에 왔고, 우리는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된다”고 언급

#### □ (튀르키예, 이집트) 전통 제조강국의 제조업 고도화 흐름 및 주요국 진출 확대

- 튀르키예와 이집트는 ① 지리적 우위, ② 무역협정 혜택, ③ 산업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전통적 지역 제조업 거점 역할 → 제조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을 시도 중이며, 각국의 선점 경쟁 활발
  - 튀르키예는 조립·가공 중심 제조산업을 탈피한 첨단산업 육성, 이집트는 제조산업 중심축을 민간으로 이양하며 다변화 시도 중

\* 튀르키예 2030 산업기술전략 발표('25년 3월), 첨단기술 수출 3배(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 수립

####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튀르키예·이집트의 전략적 가치 및 변화 방향

구분	튀르키예	이집트
지리적 우위	유럽·중동·중앙아시아 연결	중동·아프리카·유럽 연결
무역협정 혜택	EU 관세동맹, 20개국 FTA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산업적 이점	우수 제조 인프라, 숙련 인력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자원
변화 방향	차별점	제조 다변화 및 부품 수입·조립·가공 통한 수출 볼륨 확대 (산업의 중심축을 정부 → 민간으로 전환)
	공통점	스마트공장 도입, 수입 대체(현지화), 고부가가치 수출품으로 중심 이전

- (미국) 자동차, 섬유, 제약,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기지 구축
  - (튀르키예) Ford, Coca-Cola, GE 등 대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구축
    - \* (Ford) 튀르키예 완성차 생산기업 중 최대 연간 생산 규모(47만 대), (GE) 고압 전력 변압기, 풍력 터빈 블레이드 등 생산
  - (이집트) 제조 등 2차 산업에 390여 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분야는 화학(95개사), 식품(62개사), 섬유(73개사), 제약(21개사) 분야 우세
    - \* 코카콜라 HBC : 사다(Sadat) 공장 캠 생산라인 3,150만 달러 증설 준공('25년 1월), 저원가 기반 현지 원부자재 사용 확대 및 북아프리카 중동 수출라인 강화
- (중국)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 등 주요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본격화, 유럽·아프리카·중동 진출거점 구축
  - (튀르키예) BYD는 '26년 가동을 목표로 연생산 15만 대 규모 공장 건설 추진 중
  - (이집트) Haier, Media, Hisense 등의 중국 대형 가전사가 최근 2~3년 사이 이집트 진출을 본격 추진했으며, 부문 확장을 위한 추가 착공 활발
    - \* Midea : 총 1억5,000만 달러 투자로 연 100만 대 수준 세탁기·냉장고 제조공장 설립, '26년 소형가전 생산기지 5천만 달러 추가 투자 계획(북아프리카, 중동 시장 점유율 확대)
- (EU) 자동차, 방산 등 분야에서 튀르키예 진출 활발
  - 튀르키예-이탈리아 양국 기업 합작을 통해 설립된 토파쉬(Topas)는 42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현지에서 운영, 유럽형 전진기지로 활용
  - 튀르키예 바이카르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무인 항공기 공동 생산 위한 합작회사 설립 계획 발표 ('25년 6월), '26년 첫 유럽형 항모 착륙 인증 UAV 양산 목표
  - 영국 롤스로이스는 터키항공과 이스탄불 엔진 정비센터 설립 추진, '27년부터 이스탄불 공항에서 연간 최대 200대의 에어버스 엔진을 정비

**□ (GCC) 제조업 성숙도가 낮고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 국부펀드가 이끄는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파트너십, FDI 인센티브 확대로 첨단 제조업 신흥 거점화**

-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산업 제조부문 허브화를 위한 자체 브랜드 출시, 세계 굴지의 제조사 투자 유치 및 생산시설 거점 설치
  -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폭스콘과 독자적 전기차 생산 합작법인 '씨어(Ceer)' 설립<sup>'22년</sup>, 국내 구매 수요 충당 이외 GCC 및 아프리카 수출용 전기차 현지 생산
    - 현대차는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최초의 자동차(EV 포함) 생산 거점인 자동차 반제품 조립(CKD) 공장 설립<sup>'24년 3월</sup>, 연 5만 대 생산 예정(중동 점유율 20%)
  - \* 투자 인센티브로 법인세 20년간 최대 5%로 인하, 현지인 채용규제 미적용 등 혜택

- (UAE) Operation 300bn(817억 달러), Economic Vision 2030 등 반도체·AI 포함 비석유 첨단 산업 부문 GDP 기여도 제고를 위한 투자 집중
  - \* AI·반도체 중심 투자를 위해 기술 투자사 MGX 설립('24년 3월), 운용자산 목표액 1,000억 달러

## GCC 제조업 육성 정책 및 실적

국가명	정책명	주요 내용	성과
UAE	(두바이) Operation 300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규제 및 물류 체계 현대화, R&amp;D 프레임워크 5대 분야에 300억 디르함 규모의 산업 금융지원 마련(석유화학, 금속, 재생에너지 장비 등)</li> </ul>	'24 제조업의 비석유부문 GDP 기여도 13.5%
	(아부다비) Economic Vision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 내 비석유 부문 GDP 기여도 64%까지 확대 * 7대 중점분야(산업금속, 건설기자재, 석유화학, 식음료, 소비재, 항공우주, 산업장비)</li> </ul>	
사우디 아라비아	'Vision 2030' 내 제조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NIDLP) 등 수립, 제조업 전환 및 물류 허브화 기반을 강화</li> </ul>	'25 산업생산 지수 제조업 5% 향상
카타르	Qatar National Manufacturing Strate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제조 품목(금속 가공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석유 화학제품) 투자와 공장 설립을 장려하는 정책 수립</li> </ul>	
오만	Manufacturing Strategy 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부문 고도화, 녹색산업 및 첨단기술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비석유 부문 수출 촉진 위한 인센티브·산업단지 투자 등 실시</li> </ul>	'24년 제조업 부문 7.5% 성장

자료: uae

### □ (마그레브) 우수한 제조 환경, 다만 미성숙한 규제·사회적 이슈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유럽·아프리카·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허브로서 EU, 미국, 중국, GCC와 FTA 및 물류 연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조·수출 거점으로 주목
  - 저임금 숙련인력과 항만(모로코 Tanger Med 등)·특구 등 인프라 덕분에 자동차, 전자, 의류, 항공 등 다국적기업의 공장 이전·투자 확대 활발
  - 모로코는 세계 인산염 매장량의 70%를 보유해 비료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인산염·헬륨·철 광석·납 등 광물자원과 풍부한 석유·천연가스를 보유한 마그레브 지역 내 원자재 가공 소재 산업, 에너지 집약형 제조업 유리
- 다만 느린 통관·비관세장벽, 환경/탄소 규제, 내부통합 부족, 기술력/부품 현지화 한계 등 복합적인 진출 걸림돌이 산존하는 만큼 리스크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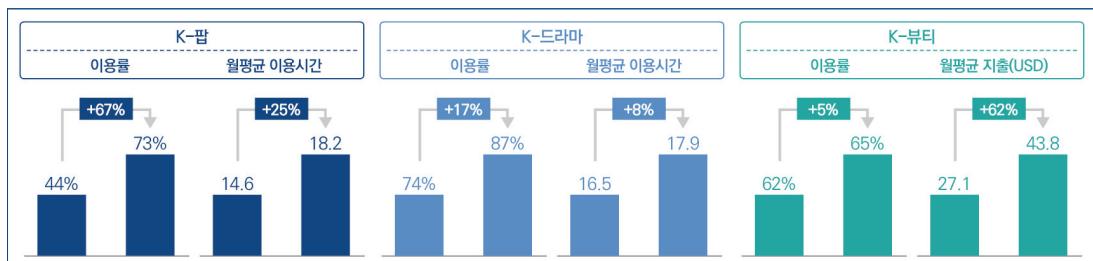
## 라. 중동 대중문화의 ‘관용주의 이슬람화’ 흐름 속 K-Lifestyle 확산

- 이슬람권 문화 개방 가속도 + 구매력 → K-콘텐츠 소비가 구매로 이어지는 타깃 공략 필요
- 탈석유화를 위한 산업 다양화, 관광허브 육성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젊은 인구 유입
- 인구보너스 구간 장기화, 구매력 있는 젊은 인구의 내수확장으로 경제발전 견인 예상

□ 중동에서 한국 소비제품(K-Beauty, K-Food)의 성장은 지난 2~3년간 가장 눈에 띠는 현상 중 하나로, 미 대륙 및 동남아의 ‘한류붐’을 이어받아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이용 및 구매 폭발적 확대 중

- <2025 해외 한류 조사>에 따르면 중동지역의 K-pop 경험도는 전년 대비 67%, K-뷰티 지출은 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월 평균 지출 측면에서 50%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 상위 1, 2위를 차지
  - \* (1위) UAE : 23.9USD → 37USD(54.8% 증가), (2위) 사우디아라비아 : 18.4USD → 28.8USD(56.5% 증가)
  - (3위) 미국 : 18USD → 28.7USD(59.4% 증가), (4위) 영국 : 17.2USD → 24.4USD(41.9% 증가)

〈중동지역의 한류 부문별 이용 현황〉



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기준 '23년 12월 → '24년 12월 설문결과

- 이러한 K-문화 확산에 따른 화장품 및 식품 수출, 관광 등 경제적 효과는 중동의 구매력 및 인구 증가와 맞물려 타 권역 대비 높은 상승세 기록
  - 24년 기준 한국 화장품의 중동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1% 증가한 3.9억 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UAE는 전년 대비 108%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한국이 스킨케어 시장의 4대 수입국으로 자리 잡음

### 중동지역 K-소비재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품목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비누치약 및 화장품	122	27.0%	150	23.2%	222	47.8%	389	75.1%	402	46.8%
2	농산가공품	52	35.9%	63	20.9%	64	2.1%	76	19.7%	65	19.0%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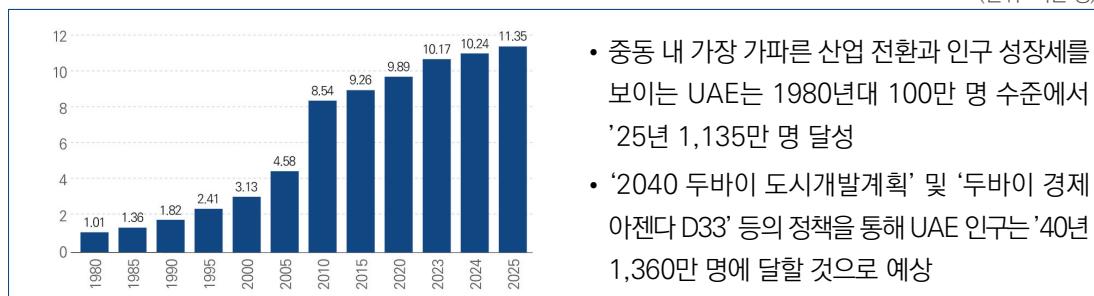
- GCC 6개국의 방한객 수는 '24년 4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이 2.2만 명으로 55%를 차지, 중동 관광객은 대가족·장기간·럭셔리 관광 경향에 따라 초고 부가 시장으로 꼽힐 만큼 한류 확산의 경제적 효과 높음  
\* 중동 방한객 1인 평균 소비액 3,637USD/체류기간 11.8일(전체 평균 2,152USD/7.8일)

## □ 중동국가의 개혁·개방 정책 및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 흐름은 한국문화·제품 확산을 가속화 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

- UAE에서 시작된 아랍·이슬람권의 전통적 문화적 폐쇄성 완화 기조는 타 국가로 확산, 문화·여행·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새로운 GDP 성장 엔진으로 인식되면서 '문화 개방 → 경제이익 창출' 구조로의 전환이 본격화
  - (UAE) 이슬람권 최초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 지역 중심으로 게임·카지노 산업 합법화 추진('27년 개장 예정), 'RAK 베가스 모델' 구축 중
    - RAK 리조트는 국내 소비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 과거 외국인 관광 유치 중심의 경제 모델에서 국내 중산·상류층의 고급 레저 소비로 중심축 이동, UAE의 '관용주의 이슬람'에 따른 다문화·다국적 기업·인재 유입정책 성과를 반증

〈UAE 연도별 인구〉

(단위: 백만 명)



\* Statista, PopulationPyramid 등

-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427억 달러 규모 관광 개발기금 구축('23년), '30년까지 총 2천억 달러 투자 및 방문객 1억 명 유치 목표 수립
  - 특히 기존의 여성과 관련된 이슬람 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고용·복장·공공활동 규범 완화가 사회 및 관광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경제적 성과로도 나타남
- \* '25년 관광·문화 부문의 GDP 기여도 10% 이상(약 2.7백만 명 고용 창출), 국제 관광객 8.6백만 명 도달하며 전년 대비 48% 증가('19년 대비 10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 (이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문화·경제적 유사성을 가진 타 GCC 국가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시장을 테스트베드 삼아 유사한 접근과 전략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양상이 명확, '큰 폭의 규제 완화'보다는 점진적 확장 전략을 채택

□ 이러한 중동의 변화 추세는 ‘종교적 정체성 훼손 없이, 현대적(관용의) 이슬람 문화’모델 구축을 지향하는 만큼 문화 개방 속에서도 종교적 민감성·규제 잔존

- 이러한 변화를 K-콘텐츠·K-소비재 산업 확장의 차기 시장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는 공생형 진출전략이 요구

### 마. GCC 국가 결속, 교통·물류 인프라 확장을 통한 허브 기능 공고화

□ 전 세계 5개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 기반 물류 허브 경쟁, 석유(에너지) 전략적 요충지라는 기준의 허브 경쟁에 더해 주요 신산업 허브 도약 경쟁 점화

- UAE,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중동·아프리카·서남아를 잇는 물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초대형 항공·항만·철도 프로젝트뿐 아니라, AI·디지털, 관광·MICE, 금융·핀테크, 첨단제조업 등 미래시장 허브 선점 위한 공격적 투자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4년 1월부터 자국 내 중동지역본부 미설립 시 정부·국영기업 발주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시행

□ (물류) '24년 교통 인프라(철도·공항·항만) 프로젝트 전체의 27%로 역대 최대치

- (통합) GCC 회원국 간 2,500억 달러 규모의 총 연장 2,117km의 철도망 구축 중이며, G20 정상회의('23년 9월)에서 중동-EU-인도를 잇는 철도망 항로 사업 협력 체결하는 등 물류·에너지·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GCC 철도망 구축 사업〉



자료: Diplomatist, 언론자료 종합

- (UAE) '30년 완공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두바이 알막툼 국제공항\* 통합 물류 허브 역할 기대 및 UAE 최대 항인 아부다비 칼리파항\*\*도 '30년 완공 예정

\* 350억 달러 예산, 70km<sup>2</sup> 면적, 연간 수용 가능 여객 2.6억 명, 화물 1,200만 톤 규모

\*\* GCC 전체 행상 물동량의 61%를 차지하는 두바이 제발알리항보다 화물 처리 능력 ↑

- (사우디아라비아) ‘국제통합물류 허브(International Integrated Logistics Hub)’ 비전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교통·물류 국가전략 추진, 스마트 모빌리티 및 스마트 항만 등 물류 연관 분야에 최대 33억 달러 투자
  - \*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약 300만m<sup>2</sup> 규모 리야드 통합물류특구 조성 예정으로 '24년 준공
  - \* 사우디아라비아 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5.9%로 '26년까지 38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튀르키예) 2053 교통·물류 인프라 마스터플랜 일환 '53년까지 1,980억 달러 투자, '30년까지 유럽 및 중동 최대 항공 화물 허브로 도약 목표

## 바. 사우디아라비아 기가 프로젝트의 리프레이징, 재정·유동성에 맞춘 속도 조절

### □ 저유가 기조 지속에 따라 기가 프로젝트 대폭 수정

-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Vision 2030의 주축으로 흥해 연안의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선언하며 발표('17년 10월)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을 비롯한 기가 프로젝트는 '24년 연말부터 재정 적자에 따라 속도 조절 시작
- 최초 구상 대비 완공까지 중장기화 예상되며, “현실적 실행 시나리오”로 전환 중

###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기가 프로젝트 당초 계획 및 현재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당초 계획	진행 경과('25년 7월)
NE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 170km 선형도시 ‘더 라인’ 건설, '30년 150만 명 수용 목표(재생에너지 100% 사용)</li> <li>예산 5,000억 달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식 진도율 미공개. '30년까지 2.4km 완공 및 수용 인구 30만 명으로 1단계 목표 설정</li> </ul>
Qiddiy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엔터테인먼트·문화·스포츠 복합단지 개발사업</li> <li>예산 800억 달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공정 약 89%, Six Flags 테마파크 89%, 워터파크 84%, 골프장 77% 등 시설별 진도 공개 (공식 페이지)</li> </ul>
Diriya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관광 복합도시 개발 사업</li> <li>예산 500억 달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식 진도율 미공개, Bujairi Terrace 개장 등 단계별 진행률 가장 빠름</li> </ul>

\* 이외 Red Red Sea, New Murabba 등 전체 16개 ‘기가 프로젝트’ 합계 1조 달러 이상 책정

### □ '25년 재정 조정 내용 및 프로젝트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여전히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전체 재정 수입의 약 70%가 석유에서 발생,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해야 예산 균형이 가능하나 60달러 후반 유지
- '25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24년 약 3,590억 달러에서 '25년 약 3,430 억 달러로 축소, 적자 27억 달러 전망
- PIF(국부펀드) 보유 메가 프로젝트 자산가치도 약 80억 달러 평가절하됨에 따라 재정유동성 유지와 투명성을 위해 일부 프로젝트 우선순위 재배치 및 속도 조절 정책 공식화, 민간 투자 유치 확대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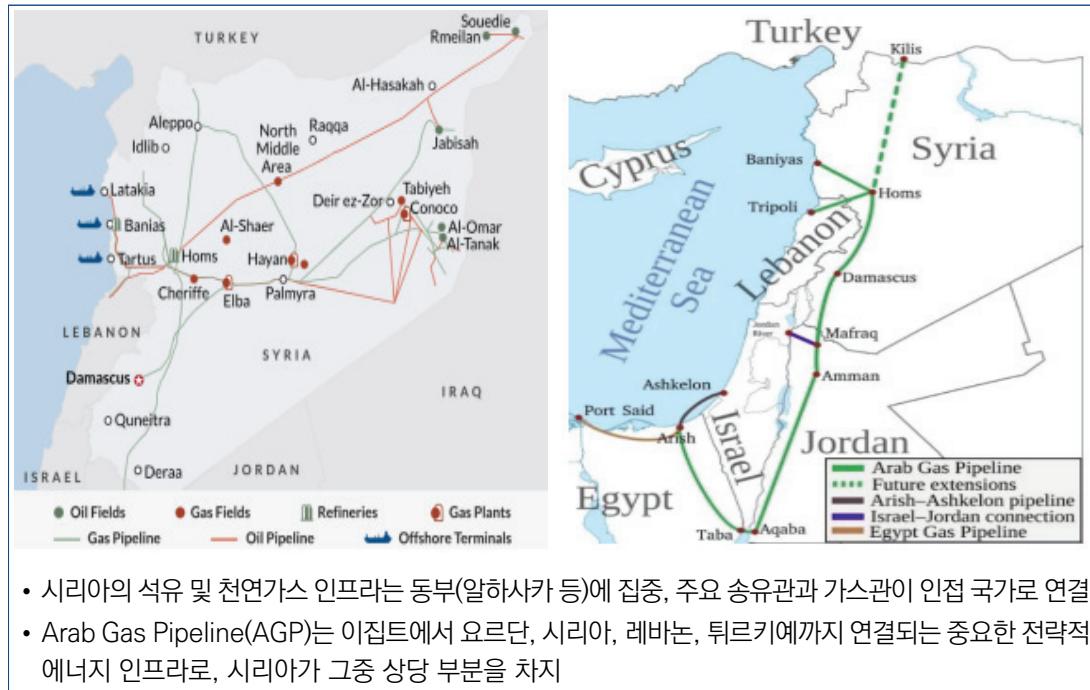
- 실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액은 '24년 2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 '25년 1~5월 발주금액도 77% 감소(360억 SAR)
- 대형 프로젝트들이 '30년을 목표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 월드컵 연계 사업 등 지연 리스크가 낮은 사업들 위주로 참여하는 등 선별적 참여, 타임라인 및 설계 조정 등의 책임규정 명확화할 필요성

## 사. 시리아 경제제재 완화('25년 5월), 재건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리스크

### □ 에너지·물류 인프라로서 시리아의 지정학적 중요성

- 시리아는 13년간의 내전 종식 후 '24년 12월 과도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정세 불안정(극단주의 및 난민·무기 불법거래 등), 그럼에도 물류 및 에너지 허브로서 중요성으로 인해 각국이 재건시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 중동의 중심에 위치하여 튀르키예·이라크·요르단·이스라엘·레바논 등 주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동-유럽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주요 경유국
  - 특히 주요 항구인 타르투스, 라타키야, 바니야스가 지중해에 접해 있어 중동 내외 해상 및 육상 물류의 연결점 역할

〈시리아 석유·천연가스 인프라 및 지정학적 중요도〉



자료: EIA, Energy Intelligence, IENE

- 레반트 지역 내 경제 및 안보 협력을 목표로 '19년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3개국이 구상한 새로운 레반트(New Levant)는 지역 동맹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으며, 시리아도 참여 가능성이 높음
  - \* 레반트(Levant) : 지중해 동부 연안과 인접 내륙 지역을 포함하는 지리적 개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이 포함

#### □ 미국·EU의 對시리아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재건시장 선점 움직임

- 25년 5월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완화 발표 직후부터 각국이 전쟁지역 재건 및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시리아 과도 정부가 들어선 직후 튀르키예가 지역 에너지 안보 다각화를 목표로 카타르-시리아-튀르키예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논의를 시작한 것은 시리아가 재건 전부터 이미 허브 국가로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

#### 시리아 경제제재 해제·완화 및 각국 재건시장 참여 움직임

주체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대통령, 시리아 과도정부 접견 및 제재 해제 발표('25년 5월 13일)</li> <li>• 일반 라이선스 25(GL25) 발표로 대부분의 금융, 투자, 석유 관련 거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이란·러시아·북한 등 관련 거래는 제외, 제재 일부 유예</li> </ul> </li> </ul>
유럽연합(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외교장관 회의 계기 제재 해제 발표('25년 5월 20일)</li> <li>• 이탈리아 등 각국에서 부동산, 전력 등 재건시장 투자 움직임 활발</li> </ul>
국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인도적 지원 및 인프라·공공서비스 재건 지원 강조</li> <li>• (세계은행) 시리아 미납채무 15백만 달러 면제</li> </ul>
걸프국(G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전쟁 폐허지역 재건, 의료·통신·금융 등에 약 64억 달러 투자 합의 체결</li> <li>• (UAE) 두바이 월드(DP월드)와 타르투스 항만 개발을 위해 약 8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li> <li>•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시리아의 세계은행 미상환 채무 1,500만 달러 공동 상환</li> </ul>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타르와 함께 70억 달러 규모의 전력(복합 화력발전소, 태양광발전) 계약,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논의</li> </ul>

## □ 재건시장 참여와 관련해 시기, 경제안보 리스크 측면의 고민 필요

- 지정학적 기회에도 불구하고 정세·정책, 경제·투자 이슈 등 다각도의 리스크 점검과 현지 맞춤 전략 마련이 필수적
  - 내전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붕괴, 인구의 90%가 빈곤선 아래에 머무는 등 극심한 경제난이 빠른 시일 내 회복되기 어려운 시장
    - \* 유엔개발계획(UNDP) : 연평균 6배 이상의 성장률이 10년간 지속되어야 '11년 경제 수준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 현재의 성장률로는 회복까지 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
    - \* 유엔(UN) : 시리아 내전 7년째인 2017년 재건에 최소 2,500억 달러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현 시점 재건 비용이 최소 4,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
  - 과도정부의 영토 통제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 무장조직의 활동 재개 가능성, 이스라엘과의 긴장 우려 등 위험 요인 지속
  - 초반에는 ODA(공적개발원조) 중심의 인도적 지원 분야가 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프라·건설과 같은 고부가 사업의 경우 발주에 시일 소요 예상
- 미국과 유럽의 잔여 제재, 투자·수출입 제한, 금융 거래 및 보험 제한 등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



##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42
2. 유망 산업	90
3. 협력 기회	108

# II 시장 분석



## 1.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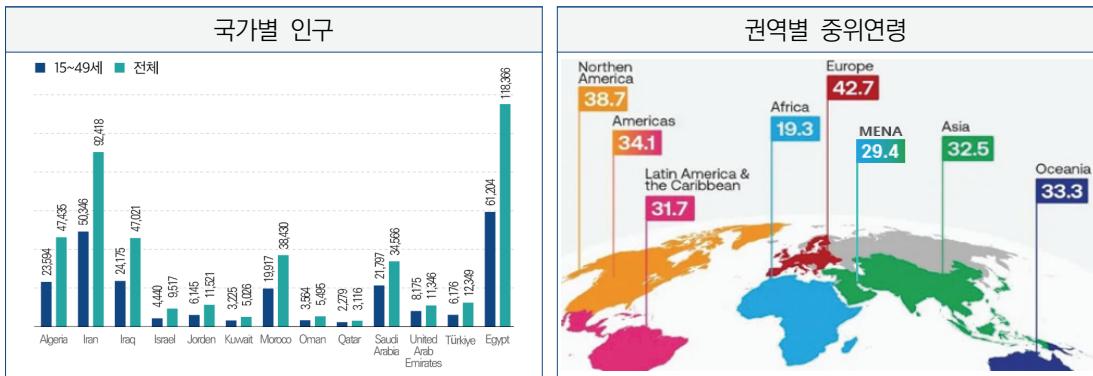
- (인구·시장 특성) 젊은 인구, 적극적 소비계층으로 구성된 잠재력 높은 내수시장, 변화 수용성이 높음
- (구매력) 초고가의 프리미엄 시장부터 저가까지 다양한 시장이 공존, GCC 구매력 글로벌평균 상회
- (전략적 가치) 전 세계 5개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 기반 물류·비즈니스 허브 역할 및 산업 다각화
- (인증제도) 제조업 육성 및 자국산 우선주의 심화에 따른 강제 인증 및 현지화 요건 강화

### 가. 시장 특징

#### □ (인구·시장 특성) 중동 특유의 “젊은 + 다국적 + 프리미엄 + 변화 수용성”의 소비시장

- '25년 기준 전체 인구 6.1억 명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가 53.3%으로 절반 이상 차지, 50대 미만 인구는 80.9%로 젊은 대류
- 높은 출산율, 관광산업 육성 및 도시화 추진으로 인한 인구 유입 지속으로 인구보너스 구간 장기화 예상, 경제 성장 주요 동력으로 작용

〈'25년 중동국가 인구 현황 및 권역별 중위연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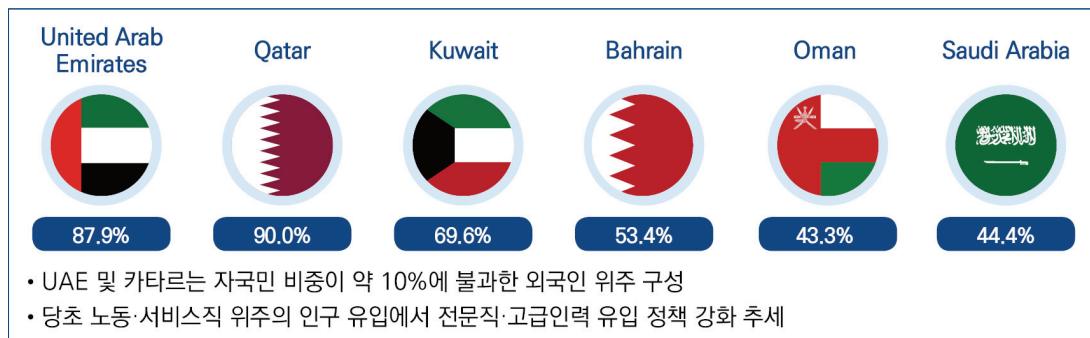


자료: Population Division Database, Database Earth, UN, 중동지역본부 가공(MENA 기준)

□ (구매력) GCC 내 외국인 인구가 과반을 차지해 다국적·다언어 소비층이 표준인 시장 특성,  
1인당 명목 GDP 3.8만 달러 수준

- GCC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소비·정책 등의 유사성으로 시장 최초 진입 이후 타 국가로의 진출 확장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
- 중동 특유의 “젊은+다국적+프리미엄+변화 수용성”의 소비자 구조는 FDI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정책에 따른 성과로, 정책 변화가 즉각적으로 시장구조에 반영되는 특성으로 경제 민첩성(Resilience) 및 위기 회복력이 높음
- 유사한 수준의 유럽·일본 등 선진국 권역이 고령화 및 내수 확장·신규 수요 창출에 제약을 받는 데 반해 UAE·사우디아라비아 등은 '25년 기준 소비지출 성장률, 명목 GDP 성장을 모두 글로벌 평균을 상회
- 프리미엄·할랄·지역(인도, 서구, 아시아계) 등 다각적 소비자가 공존, 젊은 인구의 변화 수용도가 높아 인근 지역 진출을 위한 소비시장 테스트베드로서의 가치, 혁신 서비스 진출 기회를 제공
- 이는 공급·유통·마케팅·상품 전략에서도 국가별, 국가 내 세분화된 시장별 맞춤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One-size-fits-all”이 통하지 않는 시장

〈GCC 국별 외국인 인구 비중〉



자료: GASTAT, IMF, KUWAIT PACI 등

□ (전략적 가치) 전 세계 5개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 기반 물류·비즈니스 허브 역할, 풍부한 오일머니 및 산업 다각화 가속화에 따른 진출 기회 다대

- (물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홍해·호르무즈 해협 불안 및 수에즈 교역 차질에도 불구하고, UAE·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된 항만·공항·철도 투자가 물류의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대체 루트를 확장하며 중동의 글로벌 물류 허브성을 더 공고화
  - (GCC) GCC 물류시장 규모는 25년 \$81.3B(연평균 성장을 6.2%)에서 '33년 \$171B 전망, 회원국 간 2,500억 달러 규모의 총연장 2,117km의 철도망('30년 12월 완공 목표)을 구축하는 등 권역 내 연결성 확대를 통한 교역 규모 확대 예상

- (UAE) '25년 신흥시장물류지수에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기록, 두바이국제공항 및 제벨알리항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및 운송 인프라 보유

### '25년 신흥시장 물류지수

순위	국가명	종합점수	국내 기회	국제 기회	사업 기초 여건	디지털 여건
1	중국	8.58	8.58	9.65	6.37	8.47
2	인도	6.94	7.59	7.49	6.03	5.76
3	UAE	6.31	5.53	5.90	8.53	6.55
4	사우디아라비아	6.08	5.61	6.07	7.45	5.82
8	카타르	5.64	5.36	4.92	6.97	6.25

자료: Agility

- (사우디아라비아) NIDLP(국가산업개발·물류프로그램), KAEC(홍해 최대항만·물류단지) 등을 통해 '30년까지 물류 GDP 비중 10%로 확대 목표
  - \* 홍해를 둘러싼 갈등 지속으로 수에즈 운하 통행량은 '23년 연말 전쟁 발발 이전 시점의 절반 수준
  - \* 수에즈 운하 통항선박 수(일평균) : ('23년 11월 가자전쟁 이전) 71.7 → ('24년 3월) 35.7 → ('25년 3월) 35.6
- (제조) 튀르키예, 이집트는 인근 아프리카 및 유럽 생산기지 역할
  - (튀르키예) 유럽·중동시장 진출의 생산기지로 가치가 있어 다국적기업 및 자국 대기업 자동차·가전·섬유산업 중심 제조업 발달, EU와 관세동맹 체결 이점
  - (이집트) 아프리카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MVA) 비중이 20% 이상으로 역내 최대 제조업 보유 인프라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 (관광) '아랍권 문화' 고정관념 탈피, 게임·스포츠·관광 등 문화 허브 전략
  -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427억 달러 규모 관광 개발기금 구축('23년) 및 '30년까지 총 2천억 달러 투자, 세계 10대 엔터테인먼트 관광지(홍해, 키디야 등) 구상에 따른 대형 행사 개최 등에 힘입어 성지순례 위주 관광이 아닌 엔터테인먼트·휴가 목적의 관광이 '19년 대비 656% 증가하는 등 급속 성장
    - \* 세계 10대 및 아시아 4대 엔터테인먼트 관광지 변모를 위한 투자 또한 확대
  - (UAE) 관광객 유치 관련 팬데믹 이후 가장 강력한 반등세를 기록하는 국가이며, 라스알카이마 이슬람권 최초의 카지노 설립('27년 개장 예정), e-스포츠 아일랜드 등 종교적·문화 폐쇄성 탈피한 관광객 유치 전략 확대
    - \* '25년 상반기 국제 방문자 988만 명 유치(전년 대비 6% ↑), 호텔 점유율 80.6%·객실 15.2만 개 기록
  - (카타르) '카타르 국가 관광 전략 2030' 막바지 단계(2024~2030) 돌입
  - (기타) FIFA 월드컵 중동지역 유치\*에 따른 스포츠·관광인프라 개발 박차
    - \* '30년 모로코·스페인·포르투갈 3국 공동 개최, '34년 사우디아라비아 조기 확정

- (경제안보) AI·에너지 안보 강화 기조 속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
- 브릭스(BRICs)에 이란·UAE·이집트 정회원국 참여('24년 1월), 세계 GDP의 36% 차지하는 협력 기구로서 G7 견제 등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
- 에너지 부국으로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주요 역할
  - 중동은 세계 석유생산의 36% 및 가스 생산의 22% 차지
  -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를 차지하는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호르무즈 해협 위치
    - \* 한국 원유 수입의 80%는 중동에 의존, 이 중 99%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운송
- 중동 내 관계 정상화 및 FTA 체결 확대 등 대외협력 강화
  - 아브라함 평화협정('20년), 사우디아라비아·이란('23년) 및 튀르키예('23년)와의 관계 정상화 등
  - 인도·인도네시아·한국 등과의 CEPA 체결 및 中·日·아세안까지 FTA 협상 확대

## □ 인증제도

- (국별 인증) 중동 투자 유치 경쟁에 따른 투자 진출 진입장벽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자국산 우선주의 심화에 따른 강제 인증 및 현지화 요건 강화
  - (GCC) 걸프표준화기구(GSO) 통합인증(G-Mark) 적용으로 인증 대상 지속 확대 중,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등 인증 필수 제품은 GSO 공인기관 심사, 제품 샘플 시험, 문서 심사 등 통과 후 G-Mark 및 GCTS(걸프추적마크) 부착 필요
    - \* G-마크 외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별국가 강제 인증 추가 획득 필요

### ※ 인증 관련 최신 동향(GCC)

- '25년 1월부터 12자리 HS코드로 전환하여 통합 관리 / G-Mark·GCTS 없을 시 통관 불가
- '26년 2월부터 일부 전기제품(예 : 냉장고)의 경우 IEC 60335-2-24 규정 등 상향된 기술 규격이 적용. 기존 인증서는 '26년 1월까지 유효

-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 주도 연방 인증제도 운영, 수입 및 유통 시 적합성인증(ECAS) 획득이 필수요건으로 요구되며, 식품·소비재·산업재 등 광범위하게 규제 확대 중. 환경 규제 등 TBT 강화
  - \* UAE Eco Mark, UAE Mark for Sustainable Agriculture 등 환경 규제로 재료-생산-폐기 전 과정이 규제 대상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은 사우디아라비아 제품 안전성 프로그램 (SALEEM) 구현을 위해 수입 관련 온라인 인증 플랫폼 'SABER' 도입, 규제 품목에 대해 PCoC (제품적합) 및 SCoC(선적적합)을 요구했으나 모든 수입화물로 확대 적용('25~)
  - \* 저위험/비규제 품목 등 일부 케이스에서 Undertaking Letter(화약서), 사후 SCoC 신청이 제한적으로 가능했으나, 사후(입항 후) SCoC 무효화 등 적용 강화

- (튀르키예) EU 규정과 높은 정책적 정합성 유지, 기계 및 장비류 CE 인증 등
  - \* 화장품 및 의료기기 : 수입업체가 UTS(제품추적시스템) 포털에 제품 등록 필요
  - \* 식품류 : 농림부 포털을 통해 식품통제증명서(Food Control Certificate) 발급 필요, 통관 시 GMO 관련 검사를 포함한 샘플 재검사 통과 필요하며 GMO 검사 기준이 매우 엄격
- (이집트) GOEIC 적합성 평가를 통해 CoC를 발급 받아야 하며 품목에 따라 표준품질청(EOS), 식약처(EDA) 등 등록시 각 참조 국가가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FSC) 필요
  - \* 단, 의약품은 '24년 7월 한국이 참조 국가로 인정되어 수출 절차 간소화'
- (알제리) 국내미생산인증규제 'ALGEX' 지속 시행 중으로 의약품, 전자제품 등 자국 내 생산품이 일정 수준 품질로 시장 수요 충족 시 경쟁품 수입 금지
  - \*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제도 '19년부터 유지하고 있으나, '23년부터 FTA 체결국 대상 추가관세 면제'

#### ※ 인증 관련 최신 동향(국가별)

- (UAE) MolAT 마크·라벨 리브랜딩(2024)에 따라 이행기간(2025) 중 ECAS/EQM/관련 마크 로고 교체 유예기간 부여, 2025 패키징 반영 필요. 할랄 CB 간신·감사도 상시 진행
  - (사우디아라비아) '25년부터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SABER 발행, PCoC + SCoC '사전' 구비 필요
  - (튀르키예) 원격판매(전자상거래) 시장 감시 규정 도입, 온라인 거래 제품안전·표시·추적 강화
  - (oman) 국가 적합성제도(OCS) 적용 품목 확대 + OCTS/GCTS 레지스트리로 추적성 강화. '25년 9월에는 Omani Quality Mark(품질마크) 관련 절차 확대 발표
- 
- (인증관리) '24년부터 통합 Gulf Conformity Tracking System(CTS) 가동, 인증서 관리 투명성이 향상되었으며, 기존 일부 인증 미부착 제품유통 등 관행에 따라 수출 시 통관 불가·인증 지연·벌금 등 리스크가 있으므로 재점검 필요
    - 특히 UAE·사우디아라비아는 '25년부터 인증 전 과정에 블록체인·AI 등 첨단기술 도입, 할랄·식품 등 일부 품목 전용 추적 시스템 적용 확대
    - 전기제품 IEC 60335-2-24 규정 등 상향된 기술 규격이 적용되는 경우, 초반 과도기 단속이 강화되므로 사전 준비 필수

#### 중동국별 수출 관련 인증 총괄표

국가	인증명(인증기관)	분야(HS코드)	인증마크	주요 사항
UAE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UAE 첨단기술산업부, MolAT)	화장품과 향수, 가전, 담배, 전자담배, 자동차 부품 외	 مطابق COMPLI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정 규제 품목의 제조·수출업체가 획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li> <li>• 통관 및 유통 과정에서 인증서 제출 요구 받을 수 있음.</li> <li>• 일부 품목 경우 RoHS 또는 IMS(산업측정시스템) 인증 선행 필수</li> </ul>

국가	인증명(인증기관)	분야(HS코드)	인증마크	주요 사항
사우디 아라비아	Emirates Quality Mark (UAE 첨단기술산업부, MoLAT)	(의무 대상) 생수, 주스 및 음료수, 유제품	 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이 아닌 제조 라인 및 생산 과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 부여</li> <li>의무 대상 품목은 제조사설 실사 후 EQM 의무 획득 필수</li> <li>기타 품목 취득 시 UAE 시장에서 품질 우수성을 입증 가능</li> </ul>
	National Halal Mark (UAE 첨단기술산업부, MoLAT)	육류 및 육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 국가 할랄 제도에 따른 공식 인증 마크</li> <li>식품, 화장품, 의약품, 보충제 등 광범위 품목으로 의무화 예정</li> </ul>
	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 Quality Organization)	SFDA 등록 대상 제외 전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06년 5월</li> <li>인증 절차 : 제품정보 등록 → 인증기관 선정 → PCoC수수료 지급 → 서류 확인 및 보완 → SABER플랫폼 인증 등록 → PCoC 발급</li> <li>인증소요비용 : 50~95만 원</li> </ul>
	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식품 및 농산물, 의약품 및 화장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08년 12월</li> <li>인증 절차 : 수권대리인(AR) 발굴 → 회사정보, 제품정보, 인증정보 공유 → AR이 SFDA MDMR 시스템 및 MDMA 시스템 제품 등록 → SFDA 승인</li> <li>인증소요비용 : 품목별 제품 분류에 따라 상이</li> </ul>
카타르	G-Mark (GSO,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저전압 전기제품 장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장난감(2014년), 저전압 전기제품(2016년)</li> <li>인증 절차 : 제품 테스트 결과 제출을 통한 인증서 획득</li> <li>소요비용 : 대행 업체별 상이</li> <li>참고사항 : 3년간 유효하며, 인증 유지를 위한 재인증 신청 필요</li> </ul>
오만	오만 수출을 위한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며 필요시 GSO (Gulf Standard Organization)를 따름	관련 전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04년</li> <li>인증 절차 및 소요비용 : 제품 및 필요 요건별 상이</li> <li>국내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li> </ul>
	에너지 효율 라벨 Omani Energy Efficiency Registration and Labelling Scheme (EER)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온수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19년(에어컨) 2023년(냉장/냉동고, 세탁기, 온수기 등)/24년 6월 이후 강제</li> <li>참고사항 : HAZM 플랫폼을 통해 발급, 등록 유효 기간 에어컨 3년 그 외 제품 2년</li> </ul>
	Omani Quality Mark	포틀랜드 시멘트 및 세라믹 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24년 12월 발표, 2025년 9월 일부 품목 의무화</li> <li>참고사항 : 점진적 도입 중, 소요 시간은 90일, 유효 기간은 3년</li> <li>소요비용 : 허가 발급 비용 약 \$1,560 (제품 검사 비용 별도)</li> </ul>

국가	인증명(인증기관)	분야(HS코드)	인증마크	주요 사항
쿠웨이트	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 Certification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건축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06년</li> <li>인증 절차 : 쿠웨이트 산업청(PAI) 승인 인증기관에서 기술평가보고서(TER, 2~3년 유효) 및 기술검사보고서(TIR, 선적당 유효) 발급을 통한 인증</li> <li>소요비용 : 품목별 상이</li> </ul>
이집트	EOS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 이집트 표준 인증	기계, 화학, 식품, 섬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시기 : 1979년</li> <li>인증절차 : (기업)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 제출서류 검토 → 제품 성분 등 샘플 검사 → 인증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 시정사항 보완 → 라이선스 획득</li> <li>인증소요비용 : 최소 1000파운드(20불 내외) 이상이며, 항목별 차등 적용</li> </ul>
이집트	Certificate of Inspection (GOEIC, General Authority of Export and Import Control) * 이집트 제품적합성 검사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29개 지정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15년</li> <li>인증 절차 : (기업) 선적전 검사 신청(PI, 패킹리스트, 제조자명 및 주소 등) 및 수수료 결제 → 서류 및 샘플 검사 → 인증서 발급</li> <li>인증소요비용 : 항목별 차등 지정됨.</li> <li>국내 지원기관 : TUV, SGS, Intertek 등</li> </ul>
이집트	Registration of Qualified Factories GOEIC, General Authority of Export and Import Control * 해외 제조공장 등록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29개 지정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16년</li> <li>등록 절차 : (기업) 신청서 제출 → (GOEIC) 서류 검토 → (기업) 상공회의소 및 등록서류 아랍어 공증번역, 서류제출 → (GOEIC) 공장 등록 완료</li> <li>등록소요비용 : 5000파운드</li> </ul>
이집트	EDA (Egyptian Drug Authority) * 이집트 의약품청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03년</li> <li>등록 절차 : (기업) 이집트 내 등록대리인(AR) 지정 및 신청서 제출 → (EDA) 서류 검토 및 평가 → (기업) 보완서류 제출(필요 시) → (EDA) 최종 승인 및 등록번호 발급(10년 유효)</li> <li>등록소요비용 : 약 60~600 달러</li> </ul>
요르단	요르단 품질 인증 (Jordanian Quality Mark) * 이하 JQM, 요르단 기술표준국 (Jordan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	전품목 (의약품 및 수의학 제품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07년</li> </ul>
이라크	Iraqi Quality Mark (COSQC)	전기·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24년 7월 1일 전자제품·담배류 1단계 의무화 시행, 2025년 10월 15일 전 품목(가전·배터리 포함)으로 확대</li> <li>인증 미획득 시 통관 불가, 선적 전 검사(PSI) 및 현지 라벨 부착 필수</li> </ul>
이라크	의약품 등록 제도 (Registration Department, Ministry of Health)	의약품 (처방약·O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부 기술국(Registration Dept.)이 수입·제조·유통 의약품 등록 담당.</li> <li>공공조달은 보건부 산하 KIMADIA(국영의약품 유통공사) 통해 집행</li> </ul>

## II. 시장 분석

국가	인증명(인증기관)	분야(HS코드)	인증마크	주요 사항
이란	Certificate of Conformity (이란표준기구)	모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1980년</li> <li>인증 절차 : 신청 후 검사</li> <li>인증소요비용 : 5~50달러</li> <li>국내 지원기관 : 없음</li> </ul>
	IFDA (이란 식약처)	식품, 의약,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02년</li> <li>인증 절차 : 수입시 의무신고</li> <li>인증소요비용 : 50~300달러</li> <li>국내 지원기관 : 없음</li> </ul>
	HALAL (할랄)	식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랄 인증서는 생산자가 생산 시점에 발급함</li> <li>이란은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할랄 인증서를 인정함</li> <li>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인증서는 이미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란 당국에서 검증 필요</li> <li>할랄 인증서는 음식이 이슬람 규정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보증함</li> </ul>
이스라엘	The Standard Institution of Israel (SII)	산업, 상업 및 무역, 정부에 대한 규제 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1923</li> <li>인증 절차 : 분야별, 인증 소요 비용, 내 지원기관 등에 대한 안내 링크 <a href="https://www.sii.org.il/en/questionsanswers">https://www.sii.org.il/en/questionsanswers</a></li> </ul>
	TITCK (Turkish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의료기기, 의약 품, 화장품 등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2011년</li> <li>인증 절차 : 제품추적시스템(UT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수입 및 등록 관리</li> <li>소요비용 : 품목별 상이</li> </ul>
튀르키예	튀르키예 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식품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시기 : 1924년</li> <li>인증 절차 : 온라인 포털 시스템 서류 등록과 실험실 검사를 통해 식품 통제 증명서(Food Control Certificate) 발급</li> <li>소요비용 : 품목별 상이</li> </ul>

자료: 중동지역본부 조사 종합('25년 10월 기준)

## 나. 무역

□ (중동 교역 동향) '25년 8월 누계 중동 교역 1조 7,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

### 중동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수출	1,463,028	△12.9%	1,435,548	△1.9%	870,449	△7.6%
역외수입	1,243,472	2.4%	1,295,956	4.2%	817,616	△1.7%
무역수지	219,556	△52.8%	139,592	△36.4%	52,833	△51.7%
총 교역	2,706,500	△6.5%	2,731,504	0.9%	1,688,065	△4.8%

자료: Global Trade Atlas

## □ (중동 수출입 동향)

- (수출) '25년 8월<sup>누계</sup> 중동의 수출은 8,70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
  - 국제 유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에너지·원자재 수출 감소
- (수입) '25년 8월<sup>누계</sup> 중동의 수입은 8,1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
  - 내수 경기 둔화 및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자본재·소비재 수입 축소

##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주요 수출국) 중동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로 **對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6억 달러<sup>△6.3%</sup> 감소**

### 중동 주요 수출국

(단위: 억만 달러, %)

연번	국가명	수출액		점유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1	중국	2,331	2,185	16%	15%
2	인도	1,488	1,619	10%	11%
3	일본	975	874	7%	6%
4	한국	952	944	7%	7%
5	미국	864	860	6%	6%
6	이탈리아	631	552	4%	4%
7	프랑스	503	458	3%	3%
8	독일	462	393	3%	3%
9	스페인	407	401	3%	3%
10	영국	378	400	3%	3%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주요 수출 품목) 중동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원유, 석유, 천연가스 등 광물성 연료가 전체 수출의 56.3%를 차지하며, 에너지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원유 수출 감소( $\triangle 5.6\%$ )가 전체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4년 중동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억 달러, %)

연번	품목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24/'23)
1	광물성 연료, 광유 및 종류물	8,076	56.3%	△5.6%
2	진주, 귀석·반귀석, 귀금속	966	6.7%	16.7%
3	전기 기계 및 장비, 그 부품	609	4.2%	9.3%
4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51	3.1%	△0.2%
5	자동차 및 부품	451	3.1%	8.7%
6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 장치	375	2.6%	1.3%
7	알루미늄 및 그 제품	241	1.7%	1.1%
8	유기 화학품	229	1.6%	△2.3%
9	비료	229	1.6%	△2.4%
10	철 및 강	184	4.3%	△14.1%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주요 수입국) GCC는 중동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권역으로, UAE의 재수출 물량 증가세 지속과 GCC 내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내수 확장 등에 힘입어 우상향 전망
  - 중동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24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각각 8.3%, 5.2% 증가

## 중동 주요 수입국

(단위: 억 달러, %)

연번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1	중국	2,422	2,623	19%	20%
2	미국	935	984	8%	8%
3	인도	807	799	6%	6%
4	독일	785	777	6%	6%
5	튀르키예	538	516	4%	4%
6	이탈리아	529	595	4%	5%
7	프랑스	469	484	4%	4%
8	스위스	429	359	3%	3%
9	사우디아라비아	405	420	3%	3%
10	영국	358	372	3%	3%
16	한국	277	286	3%	3%

자료: IMF 국제 상품무역 통계,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주요 수입 품목) 에너지 전환과 산업 다각화(Vision 2030·Industrial Strategy 300bn) 추진에 따른 플랜트·전력망·데이터센터 설비 수입 확대가 맞물려 원자로 및 전기 기계 수요 증가

### '24년 중동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억 달러, %)

연번	품목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24/'23)
1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 장치	1,632	13%	7.0%
2	전기 기계 및 장비, 그 부품	1,421	11%	8.8%
3	자동차 및 부품	1,351	10%	4.6%
4	진주, 귀석·반귀석, 귀금속	866	7%	1.4%
5	광물성 연료, 광유 및 종류물	721	6%	△13.5%
6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87	4%	3.6%
7	철 및 강	418	3%	1.6%
8	의약품	348	3%	13.6%
9	철강 제품	297	2%	6.2%
10	의료·외과 기기 및 부품	294	2%	7.9%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중동은 한국의 주 에너지원 공급망으로서 원유석유제품의 수입액 412.7억 달러 수준('25년 9월)으로 무역적자구조 주 요인, '25년 중동사태 장기화로 수출이 일시 감소되었으나 석유가격 하락 등 요인으로 수지 개선
- (교역 규모 및 품목) 9월 對중동 교역 누계는 836.9억 달러로, 전년 동기<sup>933.6억 달러</sup> 대비 약 96.7억 달러 감소
  - (수출) '25년 9월<sup>누계</sup> 216.9억 달러로 전년 동기<sup>215.7억 달러</sup> 대비 0.6% 증가, 자동차·전력용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 상승세가 유지되며 완만한 회복세 지속

### 對중동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對중동 수출		對중동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2021년	22,410	11.8	73,008	58.6	△50,597
2022년	25,041	11.7	109,203	49.6%	△84,161
2023년	27,684	10.6	95,232	△12.8	△67,548
2024년	28,625	3.4	94,465	△0.8	△72,900
2025년 9월	21,687	0.6%	62,011	△13.6%	△40,324

자료: 한국무역협회, '25년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기준

## 〈對중동 권역별 및 GCC 세부 국가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 기공

## 한국의 对중동 권역별·국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권역 <sup>1)</sup>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누계)	
						증감률(%)	
GCC	UAE	3,975	3,967	4,432	5,067	3,895	1.4%
	사우디아라비아	3,325	4,865	5,325	5,235	3,401	△14.6%
	쿠웨이트	349	402	558	431	465	53.0%
	오만	388	351	503	631	494	11.1%
	바레인	185	149	154	196	80	△37.3%
	카타르	420	527	764	1,491	634	△50.6%
	소계	8,642	10,261	11,736	13,051	8,969	△10.2%
독립시장	튀르키예	7,026	7,723	8,988	9,009	7,202	5.6%
	이스라엘	1,824	2,122	1,914	1,821	1,464	19.0%
	이집트	1,682	1,468	1,335	1,366	1,133	13.0%
	이란	177	195	183	158	107	△8.9%
	소계	10,709	11,508	12,420	12,354	9,906	8.0%
	이라크	986	1,151	1,196	1,249	972	0.4%
	요르단	669	822	759	547	462	14.2%
레반트	레바논	95	93	90	84	87	26.5%
	시리아	28	21	17	15	152	1517.0%
	소계	1,778	2,087	2,062	1,895	1,673	15.3%
	리비아	429	367	572	450	345	8.0%
	모로코	310	358	392	366	306	17.2%
	알제리	197	233	284	291	292	34.0%
	튀니지	219	143	140	139	136	38.2%
마그레브	모리타니아	8	12	9	15	12	11.3%
	소계	1,163	1,113	1,397	1,261	1,091	20.2%
	기타	119	72	69	65	47	△7.1%
	중동 합계	22,411	25,041	27,684	28,626	21,686	0.6%

1) 중동 지역을 지리적·경제협력체 기준에 따라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독립시장(이란·이라크 등 비회원 산유국), 레반트(동부 지중해 연안국), 마그레브(북아프리카 서부국)으로 구분

자료: 한국무역협회

- (권역별) **对마그레브**<sup>+20.2%</sup> 및 **레반트**<sup>+15.3%</sup>, 독립시장<sup>8.0%</sup>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5년 3분기<sup>누계</sup> **对중동** 수출의 41%를 차지하는 GCC는 10.2% 감소
- (국가별) **对쿠웨이트**<sup>53.0%</sup>, **오만**<sup>11.1%</sup>, **UAE**<sup>1.4%</sup> 등 GCC 대상 수출 증가, **对중동** 수출 상위 3위 **對이집트** 수출도 13.0% 증가하며 호조 견인,
  - ① (쿠웨이트) 쿠웨이트의 "Kuwait Vision 2035" 산업전환 전략 아래, 한국 기업이 인프라·건설장비·전기기계 등 수출 사업 기회 증가
  - ② (오만) 산업 다각화 추진과 비석유 산업 설비 수요 확대, 한국 기업의 인프라 공급 역량이 주요 요인
  - ③ (UAE) 제조업 확대·인구 증가로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sup>50.1%</sup>, 자동차<sup>12.1%</sup>, 무선통신기기<sup>59.7%</sup> 수출 증가
- (품목별) '25년 3분기<sup>누계</sup> **对중동**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합은 12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7%를 차지
  - (자동차 50.5억 달러, +30.2%) 소비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동차 수요 증대, 국내 브랜드 튀르키예·이집트 등 현지 생산 관련 부품 수출 견조
  -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6.8억 달러, +78.5%) UAE 등 중동국의 산업 다각화 전략과 도시화에 따른 프로젝트 활성화로 산업용 일반기계 수출 호조 전망
  - (전력용 기기 8.9억 달러, +35.9%)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태양광·풍력 전력 저장용 중대형 배터리 수요 증가

#### 한국의 **对중동**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16,241	7.3%		총 수출	12,350	18.9%
1	자동차	6,075	△0.8%	1	자동차	5,049	30.2%
2	철강판	1,823	△5.4%	2	합성수지	1,309	10.4%
3	합성수지	1,770	△5.7%	3	철강판	1,291	9.2%
4	자동차 부품	1,313	△2.8%	4	전력용기기	892	35.9%
5	전력용 기기	1,020	46.5%	5	자동차 부품	890	△3.9%
6	기타 산업기계	933	321.3%	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680	78.5%
7	무기류	861	24.1%	7	원동기 및 펌프	623	10.6%
8	원동기 및 펌프	857	△3.8%	8	석유화학합성원료	559	△15.3%
9	석유화학합성원료	856	△0.9%	9	무기류	535	△2.4%
10	석유제품	734	47.4%	10	건설광산기계	524	28.8%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 (수입) '25년 9월 누계 620.1억 달러로 전년 동기<sup>718.0억 달러</sup> 대비 13.6% 감소, 낮은 유가와 달러화 강세 영향

### 한국의 對중동 권역별·국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권역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누계)	
						증감률(%)	
GCC	UAE	13,914	13,856	16,423	17,931	11,706	△16.5
	사우디아라비아	24,271	41,640	32,763	31,450	20,870	△12.3
	쿠웨이트	8,254	12,402	9,659	8,850	5,828	△14.4
	오만	3,001	5,306	5,365	5,659	2,335	△45.0
	바레인	674	914	499	398	526	79.7
	카타르	11,611	16,567	14,999	14,208	8,086	△24.8
독립시장	소계	61,725	90,686	79,708	78,496	49,352	△17.6
	튀르키예	1,237	1,389	1,439	1,277	1,110	11.0
	이스라엘	1,600	1,603	1,543	1,267	1,124	20.4
	이집트	646	1,691	630	202	53	△71.1
	이란	6	11	4	9	1	△82.2
	소계	3,489	4,695	3,616	2,754	2,289	7.7
례반트	이라크	5,331	9,484	7,899	9,028	7,081	5.7
	요르단	107	146	63	78	40	△31.8
	레바논	33	25	33	30	16	△17.7
	시리아	0	0	0	35	0	△99.2
	소계	5,472	9,656	7,995	9,172	7,137	5.0
	리비아	13	91	46	27	97	361.2
마그레브	모로코	222	260	178	191	182	23.3
	알제리	1,903	3,372	3,153	3,633	2,843	7.2
	튀니지	109	350	463	121	74	△17.9
	모리타니아	27	36	38	35	12	△45.7
	소계	2,274	4,109	3,877	4,007	3,208	5.2
	기타	48	57	36	37	25	△19.7
중동 합계		73,008	109,203	95,232	94,465	62,011	△13.6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 (권역별) 마그레브<sup>+9.4%</sup>, 對독립시장<sup>+7.7%</sup>, 레반트<sup>+5.2%</sup>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5년 3분기 누계 對중동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GCC는 17.6% 감소
- (국가별) 對중동 對바레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해 GCC 내 유일하게 수입 플러스 기록, 이외 對리비아<sup>361.2%</sup>, 이스라엘<sup>20.4%</sup>, 튀르키예<sup>11.0%</sup> 등 수입이 증가했으며 대부분 마이너스 기록
- (품목별) 원유<sup>△13.3%</sup>, 석유제품<sup>△5.1%</sup>, 천연가스<sup>43.2%</sup> 등 상위 3개 자원의 수입이 對중동 전체 수입의 95.6%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sup>74.2%</sup>, 알루미늄<sup>2.2%</sup> 증가

#### 참고 : '25년 3분기 對GCC 상위 10개 수입 품목 및 국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91,210	△0.2%		총 수입	59,349	△13.1%
1	원유	62,009	△1.3%	1	원유	41,265	△13.3%
2	석유제품	15,664	24.9%	2	석유제품	11,206	△5.1%
3	천연가스	10,381	△18.6%	3	천연가스	4,272	△43.2%
4	알루미늄	1,005	8.6%	4	알루미늄	752	2.2%
5	정밀화학원료	450	△9.9%	5	반도체제조용장비	369	74.2%
6	농약 및 의약품	418	△28.8%	6	정밀화학원료	348	124.0%
7	동제품	402	△19.4%	7	LPG	331	15054.8%
8	LPG	307	250.8%	8	농약 및 의약품	323	78.8%
9	기타 석유화학제품	303	23.5%	9	동제품	299	388.6%
10	반도체제조용장비	271	△25.4%	10	의류	184	2729.9%

자료: 한국무역협회

- (무역수지) 對중동 무역수지는 △403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48.6억 달러 감소하여 무역수지 개선, 석유가격 하락 등 요인에 따른 수입액 감소 영향
- (우리나라 對중동 권역별 내 수출시장 점유율) 한국은 '24년 기준 對중동 수입시장의 2.2%를 점유하며, 최근 3년간 보합세 유지
  - 한국의 對GCC 수출 품목 동향 및 위상 변화
    - '24년 기준 1.0% 차지, 자동차·기계·전자기기 등 기술집약형 제조품 중심으로, 석유화학·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수요 지속 증가
    - 한국산 제품은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제조국 이미지 강화
  - 한국의 對독립시장 수출 품목 동향 및 위상 변화
    - '24년 기준 1.0% 차지,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철강 등 소비재 및 기초소재 중심의 구조로, 산업화 진전과 인프라 재건, 내수 소비 회복에 따라 수송·건축·생활소재 수요 확대 추세

- 중국·튀르키예 등 경쟁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기술 표준·품질 관리·납기 신뢰성 측면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시장 내 중상위 제품군 중심 입지 강화
- 한국의 **对레반트** 수출 품목 동향 및 위상 변화
  - '24년 기준 0.2% 차지, 자동차, 산업기계, 전자기기 등 산업재 및 내구소비재 중심 구조로, 인프라 재건과 제조 기반 확충에 따른 기계·전력설비 수요 증가와 소비시장 회복세로 인한 자동차·가전 수입 확대 지속
  - 중국·튀르키예산 제품 대비 품질 우위를 확보하며 재건·소비 병행 시장 내 안정적 입지 강화
- 한국의 **对마그레브** 수출 품목 동향 및 위상 변화
  - '24년 기준 0.1% 차지, 모로코·알제리의 산업 다각화 정책과 유럽 공급망 연계 강화로 한국산 중간재 및 조립형 제품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 유럽산 대비 가격 경쟁력, 중국산 대비 품질 우위를 확보하며 현지 제조·조립 산업 내 파트너십 수요 확대

## □ **對중동 주요 수출 성공 사례**



### **성공 사례로 보는 UAE 진출전략 : 기능성 의류기업 X사(현지 T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바이어 T사가 원하는 니치 상품(기능성 쿨링 조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 가능했으며, 현지 기후 조건에서 성능이 매우 우수함.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 매우 소수이며 대부분 가격이 너무 높거나 바이어가 원하는 성능이 아니어서 국내기업 X사의 제품이 높은 경쟁력을 가짐
  - T사와 수출을 진행하며 X사는 매우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아 T사가 카타르 프로젝트에 해당 품목을 적극 추천하여 새로운 수출길을 여는 계기가 됨
- 필수 인증 : 없음
- 성약 소요 기간 : 약 3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기존 두바이무역관 마케팅 사업에 참여했던 바이어가 해당 품목을 희망한다고 요청하여 두바이무역관 직원이 KOTRA 고객리스트에서 국내 기업 X사 발굴 및 연결 지원. X사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이어와 화상미팅 등을 하며 UAE 수출에 임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해당 분야에 특화된 단일 회사와 협력하며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은 것이 향후 더 큰 거래로 이어짐
  - 한국 기업이 추가 신제품 지원을 통해 바이어가 한국 기업의 신규 제품을 함께 홍보하도록 한 점도 긍정적



### 성공 사례로 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전략 : 차량 용품 기업 B사(현지 A'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B사는 자동차 관리 제품 전문 기업으로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이 강점
  -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의 아랍어 라벨 규정에 맞춘 제품 공급이 가능하며, 기술 자료 등 관련 문서를 제공하여 바이어의 요구에 적극 대응
- 필수 인증 :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내 판매를 위해 아랍어 라벨 부착이 필수 요구사항, 추가적으로 TDS(Technical Data Sheet) 제공을 통해 수입 요건 충족
- 성약 소요 기간 : 약 7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무역관 직접 발굴, 화상상담 주선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현지 규정(아랍어 라벨, TDS 등)을 충족하는 것이 수출 성사의 핵심
  - 바이어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만이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음
  - 한국 기업은 초기 상담 시 기술 자료, 인증, 라벨링 등 비가격적 요소를 철저히 준비



### 성공 사례로 보는 카타르 진출전략 : 식품 기업 P사(현지 V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한국 두부는 신선식품 가공기술, 위생 관리 기준 충족, 건강식 이미지라는 차별성을 보유. 카타르 내 아시아인 및 채식·웰빙 수요 증가와 맞물려 경쟁국 제품 대비 높은 관심
- 필수 인증 : COC(적합성 인증서)
- 성약 소요 기간 : 6개월 이상
- 바이어 발굴 경로 : 현지 바이어 DB 매칭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카타르 가공식품 시장은 할랄·라벨링 규정이 엄격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대비 요망
  - 단, 물류비용과 신선도 유지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안정적 콜드체인 확보가 필요
  - 지속적 샘플 제공과 바이어의 현지 테스트 과정이 거래 성사에 핵심 역할



### 성공 사례로 보는 이집트 진출전략 : C사 동물용 백신 수출(현지 G'사에 수출 성약)

- 품목 : 동물용 백신
- 수출액 : U\$405,350.00
- 수출일자 : '25년 4~5월
- 제품의 비교우위 : 동물용 백신은 이집트인의 식량 안보의 핵심 식품인 가금류 보호에 필수적이며, 가금류의 폐사율을 낮추려는 정부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임. 한국산 동물용 백신은 우수한 품질,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아 경쟁 우위가 있음.
- 필수 인증
  - 이집트 농업부 규정을 준수하고 수입 전에 제품 등록 필수
  - 원산지 증명서, GMP(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제품 안전·품질 검사 보고서 등이 필수서류

- 소요 기간 : 바이어 접촉부터 제품 등록, 현지 시험, 규제 승인, 계약 체결까지 약 4~6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 경로 : KOTRA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및 지사화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 바이어에게 사전 제품 소개와 후속 방문했으며, 특히 공장 방문과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지원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이집트는 대규모 가금류 및 축산업이 형성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고 인증된 동물 백신에 대한 수요가 높음.
  - 현지 바이어들은 가격보다 입증된 품질, 안정적인 공급, 규제 준수를 우선시하므로 현지 바이어와의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핵심이며, 대면 미팅, 기술 지원, 신속한 대응 등으로 신뢰를 쌓아나갔음. 성공적인 제품 등록 및 인증으로 수출 가능성은 높였으며, 특히 우리 기업과 무역관의 전략적 지원과 우수한 제품 경쟁력이 비교적 단시간 내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었음.



### 성공 사례로 보는 이집트 진출전략 : 지사화 기업 J사(현지 C'사에 수출 성약)

- 품목 :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 수출액 : U\$ 200,000.00
- 수출시기 : '25년 8월까지
- 제품의 비교우위 : 외환위기 이후 신차 대신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기존 차량을 지속 소비하려는 소비자가 증가,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이 좋은 한국산을 선호하는 수요가 높음. 한국 기업들은 공장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동시에 제품 다변화를 통한 바이어의 다양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함
- 필수 인증 : E mark 인증
- 성약 소요 기간 : '23년 무역관의 지원을 통해 발굴된 바이어로 '25년 2~3개월마다 수출 진행 중
- 바이어 발굴 경로 : 한국 제품 수입을 희망한 바이어사가 다수의 한국 제조사에게 연락했고, '23년 외화 부족 사태로 기존 바이어와 거래에 어려움을 겪던 J사가 해당 바이어 메일을 확인 후 무역관에 신뢰성 확인 요청, 무역관 직원이 바이어 방문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며 수출 지원, '23년부터 꾸준한 거래 진행 중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J사는 WhatsApp을 통한 빠른 교신으로 바이어 요구에 대응했고, 무역관의 동참으로 연락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었음.
  - J사가 바이어의 연례 행사(판매왕 시상식)와 소비자 방문에 동행하여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방문이 진짜 한국산 제품이라는 신뢰를 주며 판매 증대에 기여했고 및 바이어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기여



## 성공 사례로 보는 튀르키예 진출전략 : 계량 솔루션 기업 A사

- 제품의 비교우위
  - 산업용 제품은 자동화가 핵심인 바, 단순 계량 기능만으로는 산업용 솔루션으로 부족하여 계량된 무게를 입력 변수로 하여 단순 계량 기능이 아닌 선별 기능, 프린팅 기능, 운반 기능, 스티커 부착 기능 등을 추가한 산업 솔루션을 현지 시장에 적극 소개
  - 전통적인 계량 제품뿐만 아니라 저울+컨베이어, 저울+프린팅, 저울+선택기 콘셉트로 개발한 산업용 솔루션 확대 공급
- 바이어 발굴 경로 : 단순 에이전트가 아니라 A사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자사 재고로 영업하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딜러망을 구축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계량 + 부가 기능을 콘셉트로 산업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급화를 위해 자사 기술이 있음에도 한국의 POS 장비 기업과 협업으로 신제품 출시하는 튀르키예 기업 존재
  - 제품 움직임 센싱 기술을 보유한 튀르키예 기업과 협업하여 튀르키예 출시 제품에는 동사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
  - 위와 같은 적절한 현지화 전략과 제품의 차별화 전략 추구를 통해 '22~'23년간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불안, '24년의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영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



## 성공 사례로 보는 튀르키예 진출전략 : 제약기업 B사

- 제품의 비교우위 : 공공 입찰 참여 및 내수 직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튀르키예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원료 의약품을 수입하여 현지 기업을 통해 제품을 위탁생산하고 유럽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등의 시장 확대 노력
- 바이어 발굴 경로
  - 공공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암제 제품의 공공 입찰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 점유율 및 매출 확대 추진
  - 내수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간접판매를 진행하였으나, 단가 협상 등에 애로가 많아 직판으로 변경하여 영업 이익 확대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공공 부문 입찰은 현지화로 진행되고 대금 회수 기간이 길어 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현지 파트너사를 입찰 파트너로 발굴하여 현지 파트너가 대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여 대금 회수 기간 장기화에 따른 환손실 위험 회피
  - 민간 판매 부문을 통해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 부문 사업의 애로를 민간 부문 사업으로 보완



### 성공 사례로 보는 이란 진출전략 : 혈당측정 스트립 기업 R사

- 제품의 비교우위 : 혈당 측정용 스트립으로 인도적 무역 품목. 제재 대상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수출 가능
- 필수 인증 : IFDA(이란 식약처)
- 성약 소요 기간 : '24년 기준, KOTRA 확인서 포함 약 3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 경로 : 현지 의료기기 거래 네트워크 및 KOTRA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인도적 무역 절차는 매우 엄격하며, KOTRA는 서류 검토와 현지 협의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안전하게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전 승인과 단계별 확인 없이는 거래 중 문제 발생 가능성 크므로, 한국 기업들은 결제 완료 전 제품 발송을 자제해야 함



### 성공 사례로 보는 요르단 진출전략 : 페인트 제조기업 A사(현지 발주처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까다로운 발주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사양
- 필수 인증 : Adhesion Test of Coating System, Abrasion Resistance Test 등의 시험인증
- 성약 소요 기간 : 6개월
  - 제품의 기술데이터 및 테스트 보고서 검토, 요르단 원자력 위원회의 예산 승인 절차 등
- 바이어 발굴 경로
  - 요르단은 과거 한국 기술로 연구용 원자로 건설. 발주처 접촉 결과 동 원자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한국의 관련 기자재 기업의 수출 기회가 있음을 포착
  - 발주처를 설득하여 별도 상담회(온라인) 개최, 발주처가 요구하는 한국 기업들을 찾아 '25년 6월 상담회 시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관련 기자재는 기술 기준이 높고 적용 제품의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편
  - 한국의 A사는 기술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기업이나, 현지에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기술 설명 자료 제공, 샘플링/시방서 대응 등을 통해 시장 진입 기반 마련할 수 있었음



### 성공 사례로 보는 이스라엘 진출전략 : 전력 기기 제조업 B사

- 제품의 비교우위 : B사는 배열회수보일러를 이스라엘 담수화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쟁 위기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납기 준수에 성공함. 이는 현지 발주처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유사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참여 권유로 이어져 기술력과 책임감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 필수 인증 : 국제 담수화 및 산업 설비 관련 안전·품질 인증과 더불어 배열회수보일러 특성에 따른 기술 및 성능 검증 서류

- 바이어 발굴 경로 : 과거 수주 경험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이스라엘 담수화 관련 인프라 시장은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심화로 향후 성장 가능성 지속 예상
  - B사의 성공 사례는 기술력과 신뢰가 시장 진출의 핵심임을 보여줌.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넘기 준수와 현지 인력 관리로 좋은 평판을 얻은 점이 경쟁 우위
  - 향후 유사 인프라 사업 확대에 대비해 지속적인 기술 품질 관리와 현지 네트워크 강화



### 성공 사례로 보는 알제리 진출전략 : 지폐계수기 수출 A사(현지 국영기업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위폐 감별, 번호 인식, 지폐 구분 등 뛰어난 성능에 현지 화폐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 보유
- 성약 소요 기간 : 최초 입찰 참여까지 5년이 소요 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납품 중
- 바이어 발굴 경로 : 자사화 사업 참여 → 정부 입찰 참가 및 납품 계약 체결 → 이후 후속 입찰 지속 단독 낙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지치지 않고 지속적인 거래선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 유지
  - 약 5년 간의 정부 입찰 시도 끝에 알제리 국영기업과 납품 계약(450만 달러)을 체결 후 물품을 선적 하였으나 발주처의 계약 지연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지만 무역관 지원으로 신속히 대체 거래선 발굴로 판매 완료
  - 또한, 계약 지연의 사유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발주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기존 계약 금액보다 180만 달러 높은 6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
  - 이 과정을 통해 국내 기업과 무역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주처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물품 납품 중



### 성공 사례로 보는 알제리 진출전략 : 주자기 제조 수출 B사(주사기 현지 생산 위한 제조설비 수출)

- 제품의 비교우위 : 주사기 제조설비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생산기반이 약한 알제리에 우수 기술 공급 가능
- 성약 소요 기간 : 지사화 가입 후 1년 만에 바이어와 구매 계약 합의 및 계약서 체결 후 3개월 만에 수출 성약 창출
- 바이어 발굴 경로 : 지사화 사업 참여 → 신규 바이어 발굴 소개 → 현지 출장 지원 → 수출 성약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알제리 제조업 육성 정책을 기회로 활용한 생산설비 납품
  - 알제리 제조업 육성에 따른 현지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용 소모품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바이어는 현지 생산을 희망하나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하여 한국 파트너 발굴을 희망
  - B사는 알제리 시장 가능성을 타진 후 바이어에게 설비와 기술을 전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생산설비 '23년 247만 달러 납품을 성공하고 대표의 지속적인 출장 및 기술자 지원으로 '25년 7월 생산 공장 세팅 완료
  - 향후 주사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지속 수출 및 주사바늘 생산 기술 이전 프로젝트 추진 기대



### 성공 사례로 보는 이라크 진출전략 : 자동차 부품 기업 E사(현지 A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자동차용 에어컨·엔진 냉각·난방 부품’의 계절적 특성 따른 적시 공급(Lead Time) 관리 중요; 이 부분 우수
- 필수 인증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성약 소요 기간 : 약 5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무역관 지사화 전담 직원의 현지 시장 방문을 통한 인콰이어리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현지 시장을 직접 방문해 바이어 면담하며 소통 채널을 열었고, 이후 방한 지원으로 바이어 본사 직접 방문
  - 이후 바이어는 몇 차례 성공적인 거래를 완료했으며, 현재 거래 및 사업 확대를 위한 관련 협의 진행 중임



### 성공 사례로 보는 오만 진출전략 : 스팀기기 제조기업 S사(현지 K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사막 기후에 적합한 물 절약 효율성과 고온 작동하는 내구성 보유로 현지 유통 제품 대비 강점 보유
  - 기본 용도 외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여러 산업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
- 필수 인증 : 별도 필요 인증은 없으나 일부 기기의 경우 G-Mark, 상공투자촉진부 등록 요구
- 성약 소요 기간 : 8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바이어 연락, 이후 오만 방문을 통한 바이어 면담과 무역관을 통한 후속 교신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외부 사용용 기계류의 경우 오만 현지 고온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부분 확인 필요
  - 에이전트가 현지 마케팅을 전적으로 담당하기에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바이어의 발굴 필요성 증가, 제품 마케팅 목적의 무료 샘플 등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 필요
  - 한국의 다운-탑 결정방식이 아닌 탑-다운 결정방식이 주가되고 있어, 주요 결정에 시일 다수 소요되는 점 참고

##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UAE 수입시장의 27.8%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자로, 산업용 기계, 자동차 등
  - 중국(20.2%)은 중동의 최대 수입 파트너이나 점유율은 2년 연속 소폭 상승, 전기·전자장비·자동차 부문 중국 의존도 높은 편
  - 미국(7.6%)은 ’23년 6.3% 대비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원자로, 항공기, 자동차 등 수입이 전체에 약 40% 차지
  - 인도(6.2%)는 ’23년 5.5% 대비 소폭 감소, 정제유·귀금속·전자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로 정제·가공·조립 기반의 중간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동 내 가격경쟁형 공급국으로 자리
  - 튀르키예(4.0%)는 귀금속 세공, 산업기계, 전자기기 등 가공·조립 중심의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을 확대

- \*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동 내 생산·공급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 한국(2.2%)은 3년간 점유율 보합세를 보였으며, 자동차·기계·전자기기 등 기술집약형 제조품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과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수출 경쟁력 강화

### 중동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단위: %)
중국	18.7%	19.3%	20.2%	
미국	7.2%	7.5%	7.6%	
인도	6.8%	6.5%	6.2%	
튀르키예	4.5%	4.3%	4.0%	
한국	2.1%	2.2%	2.2%	

자료: IMF 국제 상품무역 통계,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 (수입 규제·비관세장벽) 현지 제조업 육성과 고도화 전략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 (수입 규제) 제조업 중심 육성책 확대로 인한 자국산 우선주의 기조 확대

### 최근 중동 주요국별 수입 규제 현황

권역	구분	품목명	기준일	비고
GCC (對한 수입 규제)	반덤핑 반덤핑	납축전지 (자동차 배터리) 고흡수성 수지	'16년 12월 31일 (최초 판정) '23년 4월 11일 (연장 결정) '23년 1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4월 23일 반덤핑 관세부과</li> <li>• 관세율: 세방전지 19%, 아트拉斯비엑스 21%, 동아타이어 25%, 현대성우 12%, 기타 25%</li> <li>• '22년 3월 23일 Sunset Review 개시</li> <li>• '23년 4월 11일 최종 판정 및 부과 연장 개시</li> <li>* '28년 4월까지 규제 연장</li> </ul>
사우디아라비아 (對한 수입 규제)	반덤핑	PVC 코팅직물	'24년 12월 17일 (최초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12월 17일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li> <li>• 관세율 : CIF 기준, 한국산 26.83~41.84%</li> </ul>
튀르키예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섬유·의류, 철강·금속, 화학, 의료기기, 기타	'25년 9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1건(규제 중 : 110건/조사 중 : 21건)</li> <li>• 13건(규제 중 : 10건/조사 중 : 3건)</li> <li>• 0건(규제 중 : 0건/조사 중 : 0건)</li> </ul>
이집트 (對한 수입 규제)	반덤핑	디옥틸 프탈레이트	'21년 11월 29일~ '26년 11월 28일 (일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11월 28일 최종판정</li> <li>* 관세율 : 6.2~13.9%</li> <li>• 2021년 11.29일 일몰 재심 최종판정</li> </ul>

권역	구분	품목명	기준일	비고
	세이프가드	원료 알루미늄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4월 14일까지 예정됐으나 종료</li> </ul>
	세이프가드	열연강판 (20개 항목)	'25년 9월 11일 부터 20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개시) '25년 4월 22일</li> <li>• (부과 기간) '25년 9월 11일부터 200일간</li> <li>* 관세율 : 13.6% 또는 톤당 3,673EGP 중 높은 금액</li> </ul>
	세이프가드	냉연강판(13개), 아연도금강판 (6개), 컬러강판(5개)	'25년 9월 11일 부터 20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개시) '25년 9월 10일</li> <li>• (부과 기간) '25년 9월 11일부터 200일간</li> <li>* 관세율 : (냉연강판) 11.11% 또는 톤당 4,152EGP 중 높은 금액, (아연도금강판) 12.16% 또는 톤당 4,812EGP 중 높은 금액, (컬러 강판) 4.94% 또는 톤당 2,584EGP 중 높은 금액</li> </ul>
	세이프가드	비합금 철 또는 강철 반제품(1개)	'25년 9월 11일 부터 20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개시) '25년 9월 10일</li> <li>• (부과 기간) '25년 9월 11일부터 200일간</li> <li>* 관세율 : 11.11% 또는 톤당 4,152EGP 중 높은 금액</li> </ul>
<b>모로코 (對한 수입 규제)</b>	세이프가드	열연판	'21년 1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6월 19일~'26년 6월 18일 20% 적용</li> </ul>
	세이프가드	냉연판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1월 1일~'24년 12월 31일 11.25% 적용</li> </ul>
	세이프가드	안전용 및 보호용 신발	'25년 9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9월 1일~'26년 8월 30일</li> <li>• 전 세계 대상(단, 개도국에서 저수량 생산되는 제품 제외) 하지만 중국, 우크라이나, 오만산은 제외 해당 안 됨)</li> <li>• 5.75 JOD/pair(<math>\approx</math> 8.12 USD) → 매 년 0.25 JOD 인하 하여 최종 5.25 JOD(<math>\approx</math> 7.42 USD) 까지</li> </ul>
	반덤핑	태양광 모듈/패널	'25년 4월 25일 (조사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대상 조사 중</li> </ul>
<b>오르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기 인증 중 하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li> <li>- EU Whole Vehicle Type Approval(WVTA) Certificate, Small Series Type Approval Certificate</li> <li>- GCC 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GSO) Conformity Certificate</li> <li>- 사우디아라비아 SASO Type Approval Certificate</li> </ul> </li> <li>• 중고 승용차는 미국, EU, GCC,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된 차량만 수입 가능</li> </ul>
	인증규제	승용차	'25년 11월 1일	
<b>이라크</b>	비관세장벽	전기·전자제품	(1차) '24년 7월 1일~ (2차) '25년 10일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7월 1일 전자제품 담배류1단계 의무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전자, 삼성전자 인증 획득</li> </ul> </li> <li>• '25년 9월 15일 전 품목(가전·배터리 포함) 인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15일로 시행 연기, 모델별 인증기준 협의 중</li> </ul> </li> </ul>

자료: 무역관 자료 취합

- (비관세장벽) 국별 비관세장벽 주요 동향
  -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를 중심으로 산업표준화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소비재뿐 아니라 산업재까지 규제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
    - \* ECAS 규제 품목 :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향수, 페인트, 생분해 플라스틱백, 전자담배, 세제, 식품접촉물질, 아기용품, 조명기구, 냉장고, 세탁기, 주스와 음료수, 우유와 유제품, 에너지 드링크, 엘리베이터, 윤활유, 전자담배 외
    - 아울러 무역 관련 환경 규제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 제품의 재료·생산·폐기 전 과정이 규제 대상화 추세
  - (튀르키예) '25년 9월 기준 총 144건의 수입 규제 조치 시행 또는 조사 진행 중
    - \* (세이프가드 10건, 세이프가드 조사 3건, 반덤핑 110건, 반덤핑 조사 21건)
    - 튀르키예는 '25년 9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1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는 전년 대비 1건 감소
  - (이집트)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에 따라 가금류 등 8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 중고 제품은 13개 품목군만 수입이 가능
    - 28개 소비재에 대해 '16년부터 해외 제조공장 등록제 시행
      - \* 소비재의 수입 억제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목표, 공장 등록 대상 품목은 선적 전 검사(COI) 후 이집트 통관 시 제출해야 하며, 선적 전 검사비는 품목당 약 1000불 수준
    - 화학·전자·소비재 등은 자체 인증 기준 미비로 검사 지연 및 보관료 부담이 증가하며, 세관 담당자의 자의적 HS코드 해석으로 과다 관세 부과 사례도 다수 발생
  - (카타르)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가공식품 인증)
    - '24년 2월 15일부터 적용된 COC는 가공식품의 할랄 기준 위반(알코올·돼지고기 함유) 및 국문·아랍어 라벨 불일치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로 이어짐
    - 카타르로 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OC(적합성 인증서) 제출이 필수
      - \* 보건부(MoPH)가 주관하며, 제품의 성분표, 라벨링, 유통기한, 위생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
  - (알제리) 자국 산업보호 및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엄격한 수입 규제 실시
    - 수입쿼터제를 통해 전체 수입량 통제('25년 7월 수입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및 국내미생산제품 제한 등 비관세장벽 존재
    - WTO 미가입국이므로 수입 규제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
      - \* 다만, 경제 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향후 유가 상승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 시 완화 가능
  - (이라크) 이라크 기획부는 표준청(COSQC) 통해, 전자제품 대상으로 이라크 품질마크(Iraqi Quality Mark, IQM) 전격 시행
    - 이라크 무역부는 연비·배기ガ스 기준 강화, 연식 제한(자동차 나이 제한 설정 가능성), 하이브리드·전기차 우대 등의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수입 규제 방안을 준비

## 다. 산업

### □ 중동 권역별 산업 개요 및 최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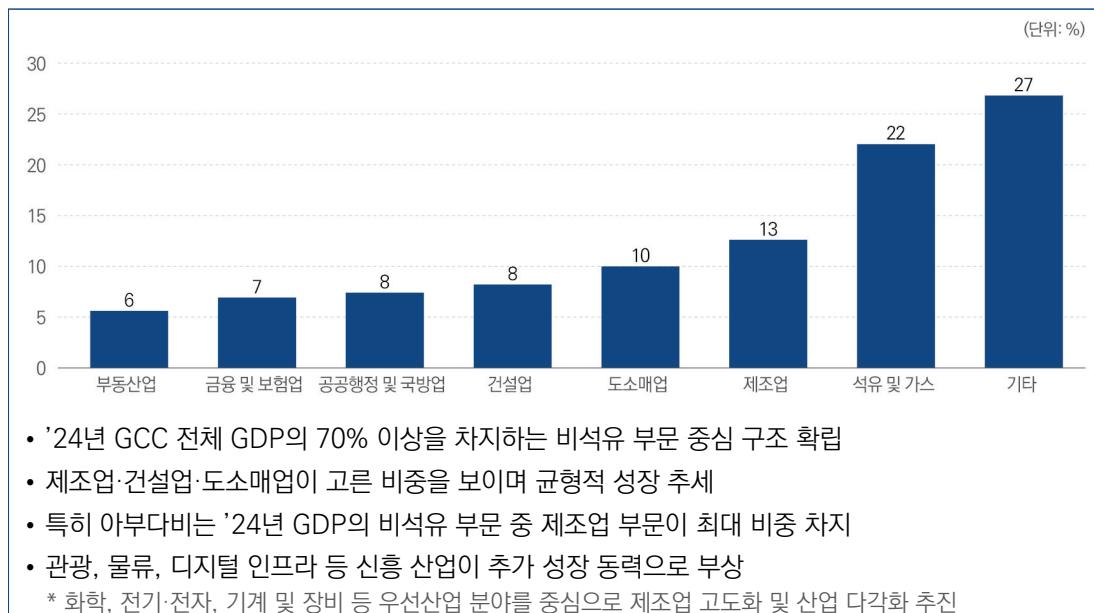
- (GCC) 전통적으로 석유·가스 의존형 경제였으나,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흐름에 따라 산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 중
  - 사우디아라비아 Vision 2030, UAE Centennial Plan 2071, 카타르 National Vision 2030 등 국가별 정사진 마련
  - 석유·가스 부문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제조업·물류·관광·금융·디지털 인프라가 부상

(참고) 최근 GCC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90~'99년			'00~'09년			'10~'19년			'20~'25년 8월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27	광물성 연료	90%	27	광물성 연료	89%	27	광물성 연료	81%	27	광물성 연료	72%
29	유기화학품	2%	71	귀금속	2%	71	귀금속	5%	71	귀금속	8%
76	알루미늄	1%	29	유기화학품	3%	39	플라스틱	4%	39	플라스틱	4%
39	플라스틱	1%	39	플라스틱	2%	29	유기화학품	3%	29	유기화학품	3%
84	원자로	1%	76	알루미늄	1%	76	알루미늄	2%	76	알루미늄	2%

자료: Global Trade Atlas(한국, UAE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GCC '24년 산업별 GDP 기여 비중〉



자료: GCC-Stat 자료('24년 4분기), 중동지역본부 가공

- (마그레브) 자원 기반 산업과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천천히 이동 중
  - 모로코는 재생에너지, 자동차·항공기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 알제리 등은 전통 자원 산업 의존도가 높으나 친환경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
- (레반트)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며 산업 기반이 취약하나, 일부 국가에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모색
  - 이라크는 여전히 석유 의존도가 높아 경제 구조 다변화 필요
  - 요르단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제약·IT 아웃소싱 등 서비스 산업 육성
  - 레바논·시리아는 정치·경제 불안으로 외부 원조 및 재건 수요가 중심
- (4대 독립시장) 인구·자원·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독립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제조업·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
  - 이란은 풍부한 석유·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재로 내수 산업에 집중
  - 튀르키예는 제조업·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EU와 중동을 잇는 교두보
  - 이집트는 대규모 인구와 수에즈 운하를 기반으로 건설·물류·에너지 허브로 성장
  -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농업기술·국방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라. 중동 투자 현황

### □ (투자 유치) '24년 對중동 FDI 유입은 1,490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9% 증가

- (권역별 동향) '24년 FDI는 전년 대비 독립시장(+98.8%)이 크게 증가했고, 마그레브(+31.9%)와 GCC(+9.7%) 역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레반트( $\Delta 73.9\%$ )는 감소세를 기록
  - (GCC) '24년 UAE가 FDI 456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오르며 GCC 유입을 견인,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자유지대·비석유 다변화 등 정책이 투자 유치 증가의 주 요인
  - (독립시장) '24년 이집트는 라스 엘 헤크마(Ras El Hekma) 초대형 개발 협약(ADQ, 단기 350억 달러 규모)을 계기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하며 중동 전체의 투자 흐름을 견인
  - (마그레브) '24년 모로코는 자동차·배터리·그린수소 투자 유치로 FDI가 55% 증가
  - (레반트) '24년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확산과 실질 GDP 급락으로 레반트 전반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 FDI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

## 중동 권역별 외국인직접투자(FDI Inflows)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동	60,636	△2.8	98,202	62.0	109,533	11.5	105,798	△3.4	149,065	40.9
GCC	22,247	1.4	59,064	165.5	57,714	△2.3	67,101	16.3	73,607	9.7
독립시장	35,670	△4.5	36,757	3.0	49,155	33.7	37,945	△22.8	75,427	98.8
마그레브	3,211	△18.7	3,796	18.2	3,229	△15.0	3,043	△5.8	4,014	31.9
레반트	△492	△43.6	△1,415	△187.6	△565	60.1	△2,290	△305.3	△3,982	△73.9

자료: UNCTAD,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국가별) 이집트는 4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3.3% 대폭 증가했으며, UAE는 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7% 증가한 반면, 주요국 사우디아라비아△31.0%, 쿠웨이트△70.9% 감소
  - (이집트) '24년 FDI 유입국 순위에서 세계 9위, 아프리카 1위를 기록
    - \* 초대형 관광 도시 개발사업(Ras El Hekma) 등 주요 요인으로 작용
  - (UAE) '24년 UAE FDI 유치 규모 사상 최대치 기록하며 FDI 유입 글로벌 10위 기록

## 중동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FDI Inflows)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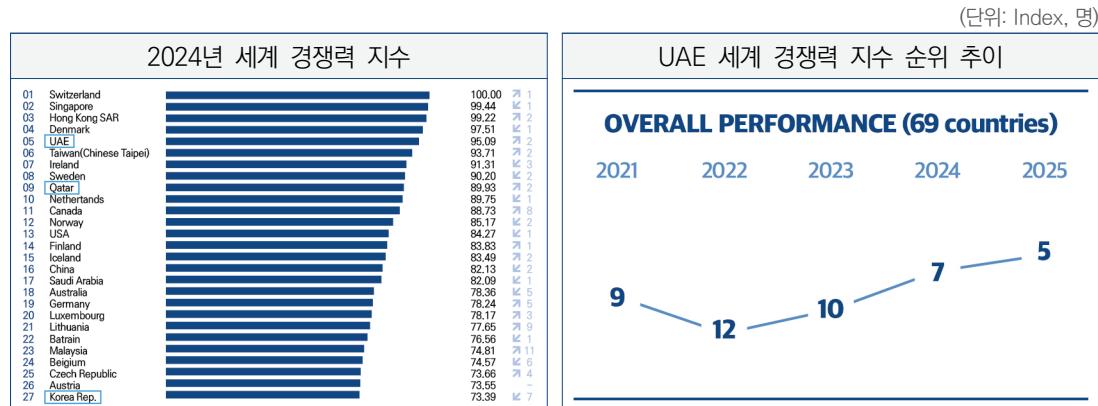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중동	60,636	△2.8	98,202	62.0	109,533	11.5	105,798	△3.4	149,065	40.9
UAE	19,884	11.2	20,667	3.9	22,737	10.0	30,688	35.0	45,632	48.7
이스라엘	20,969	20.8	18,950	△9.6	22,883	20.8	16,135	△29.5	16,808	4.2
사우디 아라비아	1,621	△47.3	28,350	1648.7	26,710	△5.8	22,803	△14.6	15,737	△31.0
튀르키예	7,507	△20.7	11,260	50.0	13,372	18.8	10,547	△21.1	10,591	0.4
이집트	5,852	△35.1	5,122	△12.5	11,400	122.6	9,841	△13.7	46,578	373.3
바레인	1,021	△32.0	1,779	74.2	1,951	9.7	7,226	270.3	2,478	△65.7
오만	1,914	△1.2	8,793	359.4	5,480	△37.7	4,745	△13.4	8,685	83.0
쿠웨이트	240	△31.7	567	136.7	758	33.6	2,113	178.8	614	△70.9
이란	1,342	△11.0	1,425	6.2	1,500	5.3	1,422	△5.2	1,449	1.9
알제리	1,140	△17.5	870	△23.7	255	△70.7	1,216	377.5	1,439	18.3
모로코	1,419	△17.5	2,266	59.7	2,260	△0.3	1,055	△53.3	1,639	55.4
요르단	760	4.2	622	△18.2	963	54.8	2,006	108.4	1,635	△18.5
튀니지	652	△22.8	660	1.2	714	8.1	772	8.1	936	21.4
레바논	1,607	△15.7	600	△62.7	561	△6.4	1,067	90.2	1,843	72.7
카타르	△2,434	13.5	△1,093	55.1	76	107.0	△474	△723.1	460	197.0
이라크	△2,859	18.5	△2,637	7.8	△2,088	20.8	△5,364	△156.9	△7,458	△39.0

자료: UNCTAD,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특히, 중동 내 최대 투자 유치 국가인 UAE는 매력적인 경제지표와 비즈니스 환경 제공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 완화 등 세계적인 투자처로 변모 중

\* UAE는 '25년 세계 경쟁력 순위 5위, 카타르 9위 기록하며 10위권 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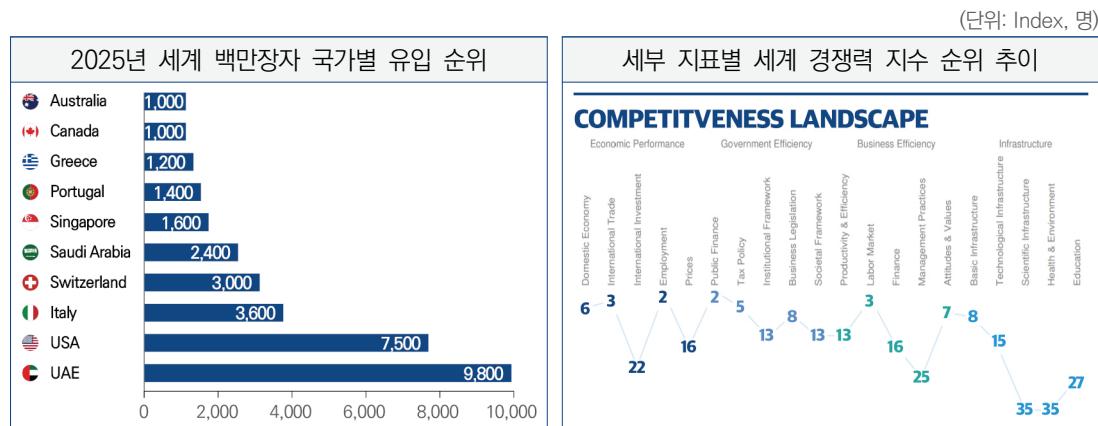
### 〈'24년 UAE 세계 경쟁력 지수 및 변화 추이〉



자료: IMD, New World Wealth,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자본 유입 관련, UAE 가장 많은 백만장자 순유입 5년 연속 1위 차지

### 〈UAE 세계 경쟁력 지수 순위 추이 및 자본 유입 현황〉



자료: Henley & Partners, 중동지역분부 가공, IMD

## □ 주요 경쟁국의 중동 투자 동향

- 중국·일본 주요 경쟁국의 중동지역 투자 확대 및 미래 산업 중심 전략적 진출 확대
  - PwC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80%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UAE 진출 및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24~'25년 첨단·청정에너지 중심 투자를 강화 중
  - 전자, 모터·기계류 완성 공장(사우디아라비아), 합작 데이터센터(UAE), 광물 및 배터리 소재 산업(사우디아라비아)이 주요 유형 대표 FDI 사례
  - (중국) BRI(일대일로) 연계 인프라(항만, 물류), 신도시, 산업플랜트 및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도 다수 FDI를 진행 중
  - (일본) '25년 기준, 일본 투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GCC 기준), MOU 및 합작법인 형태로 그린수소·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확장
    - \* '25년 일본계 18개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중동지역 본사(RHQs) 설립, 총 62개사 활동(전자, 의약, 소재, 자동차, 첨단소재·에너지 등)
-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 제공, 프리존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첨단 기술 및 미래 주력산업 분야 기업 및 인재 유치 확대

### 참고 : 중동 주요국 진출 여건

국가명	법인 설립 요건(투자 비율)		최소 자본금(천 달러)		현지인 고용의무		기타 참고사항
	대표	예이 전트십	금액	비고	적용 여부 (명칭)	분야 및 조건	
UAE	(전략산업) UAE 국적자 의무 지분 보유 최소 51%*	불요 (‘23년 6월 폐지)	없음	-	O	50인 이상 사업장, '26년限 자국민 비율 총원의 10%, (일부) 20인 이상 '25년限 최소 2명 필수	본토 기준, 경제자유구역 (프리존) 내 회사 설립 시 본토 미적용
사우디 아라비아	100% 가능	불요	0~ 53,333	단독·합작투자 차이, 업종별 상이	O	사업유형별 차등	분야별 일부 제한, 업종별 법인 설립 및 최소 자본금 상이
카타르	제한된 분야에 한해 100% 자본 투자 가능	의무 X	-	-	O (카타라이 제이션)	적용 조건 검토 중	지분 투자의 경우 농업, 산업, 보건, 교육, 관광, 천연자원, 에너지 또는 광업 분야에 한해 외국인 100% 지분 투자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 검토 및 승인 필요
오만	Negative List 제외 산업의 경우 외국인 100%	의무 X	없음	외국인 100% 소유의 SPC, LLC회사 설립 시	O (오마니 제이션)	산업 분야별 상이하나 통상 40% 내외, 수전력의 경우 최대 100%	사업체 설립 1년 이내 오만인 최소 1인 이상 의무 고용 필요

국가명	법인 설립 요건(투자 비율)		최소 자본금(천 달러)		현지인 고용의무		기타 참고사항
	대표	에이 전트십	금액	비고	적용 여부 (명칭)	분야 및 조건	
쿠웨이트	KDIPA 인허가 미취득 시 쿠웨이트인 지분 51% 이상 일부 민감 산업 (원유, 천연가스, 방위산업, 보안, 부동산 등) 투자 금지	불요	1,000	O	분야별 적용 비율 상이 외국인 투자기업 최소 30% 이상 고용 의무, 금융업 75% 이상 통신업 65% 등		유한책임회사(WLL)의 은행업, 보험업, 투자펀드 운영 불가
이집트	외국인 100% 지분 가능	의무 X	없음	유한책임회사 (LLC)	O	전 산업 분야	외국인 고용 비율 10% 초과 불가 단, 국내에 적격한 인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20%까지 상향 가능
이란	외국인 100% 보유 가능	의무 X	1만	-	없음	없음	
요르단	조건부 제한 미적용 ① 비요르단 기업 내 요르단인 자본 50% 이상의 지분 보유 ② 회사는 요르단 국가 외부에 법인화되고 등록 ③ 관계 법령에 대한 소유권 또는 참여에 제한이 없음 * 단, 외국인 지분을 일정 비율로 한정하는 분야 제외			상이	공개주식회사 신고 자본금 70만 달러/ 주식 자본금 14만 달러/ 공시 자본금의 20% 중 더 큰 것	최소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 고용 시, 소득세 면제되거나 30% 이상 감면	* 비요르단인 투자 50% 미만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경제 활동으로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 금융, 도소매 등 제한
이라크	이라크 지분 51% 이상		0.77	O	프로젝트 50% 지사 50%	쿠르디스탄 지역만 외국인 지분 100% 허용	
알제리	해당 없음	불요	10만~ 500만 DZD	회사 형태별 차등	X	현지인 고용 우선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현지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	
튀르키예	해당 없음	-	1.8	회사 형태별 차등 (5만 리라)	O (1:5 Rule)	외국인 1명당 현지인 5명 의무 고용	-
이스라엘	해당 없음	-	없음	O (특정 산업 및 개발 지역 대상)	시민권자 한 명 이상 임명 (외국 기업의 지사 형태)	-	

자료: 중동지역본부 및 관할 무역관 자체 조사

## 참고 : 중동 주요 산업단지 및 프리존, 스타트업 지원기관

국가	단지명	구분	주요 사항
UAE	제벨알리 프리존 (Jebel Ali Freezone)	경제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기관 : Jebel Ali Freezone Authority</li> <li>1979년 개소한 UAE 최초, 최대 프리존으로 140개국 기업이 입주, 글로벌 물류 허브</li> <li>제벨알리항, 알막툼 신공항, 철도 등 입지상 이점</li> </ul>
	두바이 사우스 (Dubai South Freezone)	경제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기관 : Dubai Aviation City Corporation</li> <li>알막툼 신공항과 제벨알리항 인근에 위치</li> <li>물류, 항공, 상업, 전시, 주거 등 복합 기능 수행 허브로 설계</li> </ul>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 (Khalifa Economic Zones Abu Dhabi)	경제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기관 : Abu Dhabi Ports</li> <li>칼리파항 인접, 추후 에티하드 철도망과 연결</li> <li>산업 지구와 프리존 연계, 금속, 폴리머, 식음료 가공, 자동차, 에너지, 운송 산업 중심 육성</li> </ul>
	샤르자 함리야 자유무역지대 (Hamriyah Freezone)	경제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기관 : Sharjah Ports Authority</li> <li>UAE 제조업의 메카인 샤르자 지역 가장 큰 규모</li> <li>샤르자 국제공항, 칼리드항 등 물류 인프라 활용 용이</li> </ul>
	拉斯알카이마 프리존 (Ras Al Khaimah Economic zone)	경제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기관 : Government of Ras Al Khaimah</li> <li>拉斯알카이마 토후국 대표 프리존으로 본토 기업, 프리존 기업 모두 설립 가능</li> <li>상업, 서비스, 산업, 전자상거래, 교육, 미디어 등 50여 개 이상의 업종 지원</li> </ul>
사우디 아라비아	클라우드 컴퓨팅 S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야드 소재, MS·Oracle 등 투자 유치</li> <li>특화산업군 : IT, 항공물류 연계</li> </ul>
	라스 알 카이르 S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I, MCDERMOTT, MAKEEN, BAOSTEEL 등 투자</li> <li>특화산업군 : 조선 및 리그플랫폼</li> </ul>
	KAEZ SEZ (SEZ) (운영 : 자잔 SEZ)	특별경제구역 (SEZ) (운영 : ECZ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카 소재, LUCID, CEER, Himmah, SIAC 등 투자</li> <li>특화산업 : 자동차, 의료기술, 물류, 소비재 등</li> <li>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자잔 소재, Mashareq, Bestoo 등 투자</li> <li>특화산업 : 식품 가공업, 물류</li> </ul>
	RISL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야드 국제공항 인근 소재, GACA(사우디아라비아 민간 항공청) 운영</li> <li>특화산업 : 소비재, 컴퓨터 부품, 제약, 항공우주 등</li> </ul>
	디지털 인큐베이션 센터((DIC),Digital Incubation Center)	스타트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신정보부(MCIT) 운영, ICT, 솔루션 및 서비스 중심</li> <li>(입주 혜택) 사무 공간, 기술 지원, 교육 및 지도, 멘토링, 스타트업에 대한 노출 및 홍보</li> </ul>
카타르	카타르 핀테크 허브 (QFTH, Qatar Fintech Hub)	스타트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타르개발은행(QDB, Qatar Development Bank) 및 EY(Ernst &amp; Young)의 협업 조직, 핀테크 중심</li> <li>(입주 혜택) 인큐베이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및 해커톤</li> </ul>
	카타르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 (QBIC, Qatar Business Incubation Center)	스타트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타르개발은행(QDB) 운영, 디지털, 모빌리티, 제조</li> <li>(입주 혜택) 사무 공간, 자금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li> </ul>

국가	단지명	구분	주요 사항
	카타르 금융센터 (QFC, Qatar Financial Centre)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 혜택) 국내법 적용, 외국인 지분 100%, 영국 관습법, 세계 경쟁력, 모든 통화 거래 등</li> <li>(주요 분야) 펀테크 및 금융 서비스, 보험, 컨설팅 및 법률 자문, 교육, 세무회계 등 전문 서비스</li> </ul>
	카타르 과학기술단지 (QSTP, Qatar Science & Technology Park)	경제자유구역 스타트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타르재단(Qatar Foundation) 운영, 주요 분야 에너지, 환경, 건강 과학, 정보 통신 기술</li> <li>(입주 혜택) 프리존, 자금 지원, 인큐베이팅 센터, 멘토링</li> </ul>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QFZA, Qatar Free Zone Authority)	경제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 혜택) 법인세 20년간 면제, 개인 소득세 없음, 수입품 무관세, 외국인 100% 투자 등</li> <li>(주요 분야) 첨단기술,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물류</li> </ul>
오만	SEZAD 두qm 특별경제구역 (The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t Duqm)	특별경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특구로 30년간 개인소득세 및 통관세 면제, 추가 30년 연장 가능</li> <li>저렴한 토지임대료와 장기 임대,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 및 최소 투자 자본금 필요 없음</li> </ul>
	OPAZ (Public Authority of Economic Zones and Free Zones)	경제특구 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ohar Free Zone, Industrial Estates, Khazaen Economy City, Salalah Free Zone, Al Mazunah Free Zone, Sezad 등 관리</li> <li>일정 기간 법인세 면세, 관세 면제, 완화된 자국민 의무고용비율 등의 인센티브 제공</li> </ul>
쿠웨이트	Kuwait Free Trade Zone(KFTZ)	자유무역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슈웨이크 항구 서쪽 부근 위치, 쿠웨이트 상공부 운영</li> <li>100% 외국인 지분 가능, 법인세 면제, 관세 면제</li> </ul>
	수에즈운하 경제특구 (SCZone)	경제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okhna, Portsaid City 등 위치,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 (SCZone) 운영, 주요 산업 식음료, 화학제품, 섬유 등</li> <li>(입주 혜택) 유틸리티 감면, 관세 혜택, 부가세 면제, 법인세 50% 환급, 토지비용 할인 등</li> <li>한국 진출 기업 SH Chemical 등</li> </ul>
이집트	Kom Abu Radi Industrial Zone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ni-Suef City 위치, 이집트 투자청(GAFI) 운영</li> <li>유틸리티 비용 감면, 관세 혜택, 토지비용 할인 등 혜택</li> <li>전자제품·화학제품 등 중심 운영, 삼성전자 등 진출</li> </ul>
	10th of Ramadan Road Industrial Zone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집트 투자청(GAFI) 운영</li> <li>유틸리티 비용 감면, 관세 혜택, 토지비용 할인 등 혜택</li> <li>전자제품·화학제품 등 중심 운영, LG전자 등 진출</li> </ul>
	Badr City Industrial Zone (East and West Al-Robeky)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dr City 위치, 이집트 투자청(GAFI) 운영</li> <li>유틸리티 비용 감면, 관세 혜택, 토지비용 할인 등 혜택</li> <li>식음료 및 화학제품, 섬유 중심으로 한국 진출 기업 SH Chemical 등 소재</li> </ul>
요르단	Abudllah II bin Al-Hussein Industrial Estate(AIE)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르단 최대의 산업단지. 수도 암만에서 남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사합(Sahab) 시에 위치</li> <li>요르단 산업단지공사(JIEC)에서 운영</li> <li>산업단지는 제조업 육성에 특화, 일부 단지는 대미 수출 무관세/무쿼터 적용(QIZ 조약)</li> </ul>

국가	단지명	구분	주요 사항
알제리	King Hussein Bin Talal/Mafraq Development Zone	개발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르단 최대의 산업단지. 수도 암만에서 남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사합(Sahab) 시에 위치</li> <li>개발단지는 요르단 투자청(JIC)에서 총괄, 각 단지별 관리회사 (Development Corporation)가 별도 운영</li> <li>개발단지는 지역 경제 발전에 맞는 산업에 특화</li> </ul>
	Zarqa Freezone	경제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르단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중고차 수입의 관문. 수도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자르카(Zarqa) 시에 위치</li> <li>요르단 자유구역/개발단지 그룹(JFDZ)에서 운영</li> <li>산업단지와 개발단지 내 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국제무역 관련 산업에 특화</li> </ul>
	아카바경제특구 (ASEZ)	특별경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르단의 유일한 항구인 역사적인 도시 아카바는 3개 대륙이 만나는 전략적 위치인 홍해 소재</li> <li>중동의 관광, 서비스, 복합 운송 및 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주요 면세 경제자유구역으로 기능</li> <li>항구와 국제공항을 보유, 대형 선박 수용 가능</li> </ul>
	JODDB INDUSTRIAL PARK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Jordan Design and Development Bureau(방산기업) 소유</li> <li>요르단 국방 및 군사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민간 자유무역지대로 30년짜리 임대 계약(갱신 가능), 고품질 산업 인프라 제공</li> <li>수입 수수료, 관세, 기타 세금, 라이선스 비용 등 없음</li> </ul>
	StartupsJo	스타트업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SF(Innovative Startups and SMEs Fund)의 지원을 받은 요르단 정보통신기술위원회가 관리</li> <li>요르단의 주요 기업가, 투자자 및 스타트업들을 연결하며 펀딩, 사무공간 등 기업 네트워크 제공</li> </ul>
	iPARK	스타트업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립과학협회(Royal Scientific Society)에 위치</li> <li>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전용 시설,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통해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활성화 및 지원</li> </ul>
	세티프(Setif) 산업단지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전자(특히 가전), 플라스틱, 건설자재, 제지 관련 기업이 분포된 알제리의 대표적 산업단지</li> </ul>
	시디 압델라 사이버파크	스타트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기관 : ANPT(기술단지개발청)</li> <li>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위주</li> </ul>
이스라엘	Beer Sheva Innovation District (Gav Yam Negev High Tech Park)	스타트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스라엘 남단에 위치, 이스라엘 정부(혁신청) 운영</li> <li>입주 혜택 : 하이테크 고임금 고용 인센티브 및 보조금, 우선 기술 인정 기업 세율 6~7.5% 인하 등</li> <li>첨단 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반 시설 건설 분야 진출</li> <li>스타트업이 지방에 연구 개발 시설이나 생산 시설 구축 시 정부가 전체 예산의 50~60% 지원</li> </ul>
	Har Hotzvim	첨단 기술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루살렘 북서부에 위치한 주요 기술 산업단지</li> <li>인텔, 테바, 모바일아이 등 글로벌 기업 및 100여 개 중소기업 입주</li> <li>기술 인큐베이터 운영 중</li> </ul>
	Matam Haifa	첨단 기술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스라엘 최대의 첨단 기술 산업단지</li> <li>아마존,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기업의 R&amp;D 센터 위치</li> </ul>

국가	단지명	구분	주요 사항
	Eilat (SEZ, Special Economic Zone)	특별경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남부 홍해 연안에 위치</li> <li>• 관광, 무역, 수출 촉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li> <li>• 구역 내 기업과 개인에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등에서 감세 또는 면세 혜택</li> </ul>
튀르키예	빌리심 바디시 (Bilişim Vadisi)	스타트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산하 공식 출범</li> <li>• 코자엘리 주에 위치(이스탄불 인근), 이스탄불-코자엘리-이즈미르를 잇는 튀르키예의 'Mega Technology Corridor'의 핵심거점</li> <li>• 클러스터 지원, 정기적 네트워킹 행사, 정부-산업 간 협력 프로그램 등 제공</li> <li>•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첨단 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중점</li> </ul>

자료: 중동지역본부 및 관할 무역관 자체 조사

## □ (투자 진출) '24년 중동 투자 진출 규모는 77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

- (권역별) '24년 중동 FDI 투자 진출은 GCC(+12.9%), 독립시장(+19.5%), 레반트(+59.0%)가 증가한 반면, 마그레브( $\Delta$ 38.0%)는 감소세를 기록
  - (GCC) NEOM, ADNOC, Aramco, PIF 등이 글로벌 M&A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투자 진출 증가에 기여
  - (독립시장) 오만·바레인 등 비GCC 국가의 재정 안정이 회복되면서 민간기업의 해외 투자활동이 확대
  - (마그레브) 튀니지·알제리의 재정 불안과 모로코의 정치·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의 해외투자 여력이 위축되며 투자 유출이 감소
  - (레반트) 걸프 및 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재건·인프라 프로젝트에 요르단·레바논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해외투자가 크게 확대

## 중동 권역별 해외직접투자(FDI Outflows)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중동	50,806	42,416	68,526	98,395	67,934	77,278	13.8
GCC	36,748	33,965	53,288	81,253	51,949	58,644	12.9
독립시장	12,153	8,220	15,854	15,919	14,241	17,014	19.5
마그레브	1,323	29	572	829	1,188	736	-38.0
레반트	582	202	-1,188	394	556	884	59.0

자료: UNCTAD,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국가별) '24년 FDI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카타르(918.3%), 이스라엘(32.4%), 사우디아라비아(27.1%), UAE(4.8%)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ublic Investment Fund(PIF)를 중심으로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투자가 확대되며, 시리아 재건을 위한 투자도 활발히 진행
    - \* 시리아 재건 위해 50억 달러 투자 계약 발표, 전략 분야 협력 및 주요 프로젝트 통한 고용 창출 추진
  - (UAE) SWF·에너지 공기업 주도로 AI, 클린에너지, 인프라를 북미·유럽·GCC 인접국에 확장
    - \* '24년 오만 350억 달러 패키지 같은 지역형 메가딜이 상징 사례
  - (이스라엘) 사이버보안·소프트웨어·반도체·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투자하며, '24년에는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R&D 거점 설립 증가로 해외직접투자 증가
  - (카타르) 금융·보험, 운송·창고, 정보통신, 광업·채석업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

#### 중동 국가별 해외직접투자(FDI Outflows)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b>중동</b>	50,806	42,416	68,526	98,395	67,934	77,278	13.8
<b>UAE</b>	21,226	18,937	22,546	24,833	22,328	23,399	4.8
<b>사우디아라비아</b>	14,553	5,411	24,674	26,531	17,345	22,046	27.1
<b>쿠웨이트</b>	-2,696	7,932	4,666	24,613	11,189	10,317	-7.8
<b>이스라엘</b>	8,690	4,579	10,369	10,955	7,911	10,478	32.4
<b>튀르키예</b>	2,973	3,236	5,036	4,522	5,853	5,939	1.5
<b>바레인</b>	-197	-205	64	1,948	1,113	275	-75.3
<b>모로코</b>	893	458	644	641	1,228	694	-43.5
<b>아랍</b>	405	327	367	342	390	508	30.3
<b>이라크</b>	194	147	135	238	286	439	53.5
<b>오만</b>	-588	-840	1,178	944	165	1,044	532.7
<b>이란</b>	85	78	82	100	87	89	2.3
<b>알제리</b>	31	15	-52	85	84	53	-36.9
<b>레바논</b>	345	29	-1,339	34	121	391	223.1
<b>요르단</b>	43	26	16	122	149	54	-64.8
<b>튀니지</b>	22	43	35	53	40	46	15.0
<b>리비아</b>	377	-487	-55	50	-164	-57	65.2
<b>카타르</b>	4,450	2,730	160	2,384	-191	1,563	918.3

자료: UNCTAD,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투자 동향) GCC 중심 막대한 국부펀드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대내외 투자 확대

### '25년 세계 주요 국부펀드(SWF) 순위 및 GCC SWF의 위치

순위	국부펀드(SWF)	국가	운용자산(십억 달러)	비중(%)
1	NBIM(Norga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노르웨이	1944	14.1
2	SAFE IC(국가외환관리국 투자센터)	중국	1581	11.4
3	CIC(중국투자공사)	중국	1332	9.6
4	ADIA(아부다비 투자청) <b>GCC</b>	UAE	1109	8.0
5	KIA(쿠웨이트 투자청) <b>GCC</b>	쿠웨이트	1002	7.2
6	GIC(싱가포르 투자 공사)	싱가포르	769	6.8
7	PIF(공공투자기금) <b>GCC</b>	사우디아라비아	930	6.7
8	QIA(카타르 투자청) <b>GCC</b>	카타르	524	3.8
9	ICD(두바이 투자 공사) <b>GCC</b>	UAE	400	2.9
10	TWF(튀르키예 국부투자기금)	튀르키예	360	2.6
<b>상위 10개 SWF 중 GCC SWF 5개 위치</b>				
12	Mubadala(ADIC에서 흡수합병 '19년)	UAE	329	2.4
22	ADQ(아부다비 개발 지주 회사)	UAE	251	1.8
23	NDF(국가개발기금)	사우디아라비아	132	1.0
27	EIA(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UAE 연방 SWF)	UAE	102	0.7
29	DIF(두바이 글로벌 지주 회사, DP World 100% 소유)	UAE	80	0.6
35	DH(Dubai Holdings)	UAE	72.16	0.5
46	OIA(오만 투자청)	오만	53	0.4
48	Mumtalakat	바레인	18	0.1
52	SAM(샤르자 자산 관리)	UAE	3	0.0
75	TSFE(이집트 국부투자기금)	이집트	2	0.0
76	FGR(미래 세대 예비금)	바레인	1	0.0
<b>GCC SWF 합계</b>				<b>5,009</b>
<b>총 100개 국부펀드 총계</b>				<b>13,838</b>
-				

자료: Global SWF

## 마. 한국↔중동 투자 현황

□ (對韓 투자 유치) '25년 3분기 중동의 對韓 투자액은 405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증가에 기인

\* ('24년 3분기 → '25년 3분기) : 사우디아라비아(\$0 → 300백만), UAE(\$279백만 → \$93백만)

### 중동의 국별 對韓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분기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증감률
중동 총계	294	298	186	1,217	142	464	104	405	17.4%
UAE	14	201	23	490	25	396	16	93	△66.6%
사우디아라비아	4	0	13	457	3	54	4	300	452.6%
이라크	21	52	23	2	25	3	15	2	△32.0%
이집트	27	4	50	6	27	2	21	2	△2.2%
튀르키예	17	4	16	55	17	2	10	1	△22.5%
시리아	45	6	5	1	8	1	3	0	△84.1%
요르단	32	3	24	2	14	2	11	1	△30.9%
쿠웨이트	0	-	0	-	1	1	0	0	0.0%
예멘	9	1	7	1	8	1	1	0	△84.1%
이스라엘	12	18	4	0	5	0	4	3	958.4%
카타르	0	-	1	150	1	0	1	0	△70.4%
기타	113	10	20	52	8	1	18	2	159.6%

자료: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통계,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25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sup>32</sup>백만 달러 부문이 올해는 30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4.2% 대폭 증가

### 중동의 산업별 對韓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분기		증감률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제조업	13	120	10	202	6	39	3	300	844.2%
서비스업	166	168	160	923	131	464	90	104	△62.1%
정보통신	3	0.3	4	457	7	393	-	-	-
운수·창고	1	0.2	4	44	4	145	1	0.1	△99.8%
도·소매(유통)	152	166	140	135	107	57	86	90	156.4%
금융·보험	2	0.2	5	237	4	37	1	5	△83.1%
연구개발 과학기술	4	0.4	2	0.2	6	30	2	9	△62.7%
숙박·음식점	1	71	2	0.2	2	24	-	-	-
농축수산·광업	0	0	2	70	1	0.148	-	-	-
농축·임업	0	0	2	70	1	39	-	-	-
전기·전자	5	2	4	151	3	32	-	-	-
기계장비 의료정밀	8	118	4	51	1	1	-	-	-

자료: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통계,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 (對중동 투자 진출) '25년 상반기 우리 기업의 對중동 투자 진출액은 154백만 달러, 전년비<sup>△351</sup>

백만 달러 **56.1% 감소, 미국의 관세 강화 등 글로벌 무역 긴장으로 인한 투자 둔화**

\* 바레인(10백만 달러), 모로코(7백만 달러), 카타르(3백만 달러) 등 일부 지역 증강세

- (법인) 對중동 투자 10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sup>336백만 달러</sup> 대비 68.8% 감소
  - \* 전년비 신규법인수(+6개), 신고건수(+13건)로 증가했으나 신고금액(-205백만 달러, -62.1%)로 감소
- (지점·지사) 對중동 투자 4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sup>15백만 달러</sup> 대비 220% 증가
  - \* 전년 동기 대비 신규법인수는(+82개)는 투자금액(+33백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신고건수(-19건), 신고금액(-54백만 달러, △74.0%)로 감소

## 우리 기업의 對중동 진출 형태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개)

법인구분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증감률	
구분 전체	신고건수	220	223	269	119	△5.6%
	신규법인수	41	47	64	116	317.9%
	신고금액	408	455	754	144	△63.7%
	투자금액	294	324	608	154	△56.3%
현지법인	신고건수	114	131	161	87	20.8%
	신규법인수	34	43	50	29	31.8%
	신고금액	240	320	590	125	△61.2%
	투자금액	249	289	550	105	△68.5%
지점·지사	신고건수	106	92	108	32	△38.5%
	신규법인수	7	4	14	89	1383.3%
	신고금액	169	135	164	19	△74.2%
	투자금액	43	34	25	49	162.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업종별) '25년 상반기 對중동 투자액 기준 제조업(40백만 달러)이 전체의 26% 차지, 정보통신업(19백만 달러, 1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백만 달러, 12.3%) 순

## 우리 기업의 對중동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비중
				증감률		
對중동 업종별 투자금액 총계	294	324	608	154	△56.3%	-
제조업	191	238	230	40	△68.0%	26.0%
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1	96	6	△92.6%	3.9%
정보통신업	6	12	58	43	0.0%	27.9%
도매 및 소매업	21	4	48	12	△69.2%	7.8%
건설업	54	40	101	15	△51.6%	9.7%
금융 및 보험업	3	0	23	1	-	0.6%

주: 투자금액 기준, '25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화 요건 및 자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 요건 확대가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p.15~16 참조)

- (현지화) 산업 전반 현지 생산 비중 확대를 위한 요건 상향 조정
- (채용·노동법) 현지화 규제 내에 자국민 채용 관련 사항이 주요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구 대비 자국민 비율이 낮은 UAE·카타르 등 국가의 경우 자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요건 강화 추세

## 바. 프로젝트

□ (중동 발주) '25년<sup>10월 기준</sup> **발주액 1,688억 달러로 전년<sup>1,337억 달러</sup> 대비 26.2% 증가, 에너지, 통신, 유ти리티 등 광범위 인프라 고도화 프로젝트 확대**

- (권역별) 중동 전체 프로젝트 발주의 72% 이상을 차지하는 GCC는 38.1% 증가하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레반트는 3.5% 감소
  - (GCC) 상위 프로젝트 대다수 교통·레저던스 등 주거 환경 및 해수 담수화 및 전력망 확충, 상하수도 터널 공사 등 인프라 개발 집중
  - (독립시장) 이란 대규모 가스전 개발, 이집트 신도시 프로젝트 및 튀르키예 폐기물 재처리(WTE) 프로젝트 추진 등 프로젝트 추진 활발
  - (레반트) 분쟁 이후 인프라 복구, 공공시설 현대화 및 주거재건 중심 프로젝트 확대, 국제기구 차관 및 PPP 방식 활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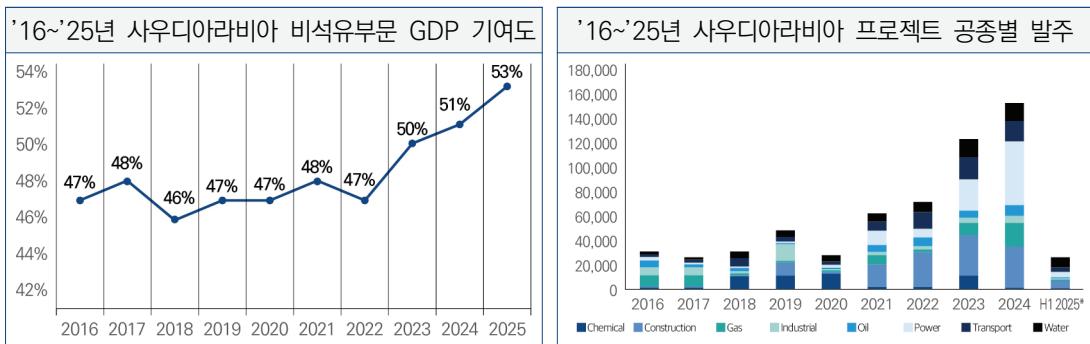
### '21년~'25년 중동 프로젝트 발주액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증감률	
<b>중동 전체</b>	<b>1,950</b>	<b>1,787</b>	<b>1,859</b>	<b>1,831</b>	<b>1,688</b>	<b>26.4%</b>
<b>GCC</b>	<b>발주액</b>	1,429	1,030	1,155	1,177	1,104
	<b>비중</b>	73.3%	57.6%	62.1%	64.3%	65.4%
<b>독립시장</b>	<b>발주액</b>	310	477	454	417	323
	<b>비중</b>	15.9%	26.7%	24.4%	22.8%	19.1%
<b>레반트</b>	<b>발주액</b>	78	200	151	113	144
	<b>비중</b>	4.0%	11.2%	8.1%	6.2%	8.5%
<b>마그레브</b>	<b>발주액</b>	133	80	99	124	117
	<b>비중</b>	6.8%	4.5%	5.3%	6.8%	6.9%

자료: Meed Project

- (국가별) 중동 전체 프로젝트 발주의 35%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 카타르는 전력·운송 부문 중심으로 141% 증가, 이라크는 재건·인프라 복구사업 본격화로 수주 급증
    -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와 아람코의 LNG 확장 사업 및 복합화력 발전(CCPP) 본격 확대 중이며, 기가 프로젝트 중심의 계약 발주 증가로 전년 대비 약 20% 상승세
- \* NEOM – THE LINE, NEOM City Development Program / NMDC – The New Murabba 등



자료: Argaam, Meed Project, Gulf news, 중동지역본부 제공

- (카타르) 가스 부문이 전체 시장의 1/3 이상 차지, 그 뒤로 운송·건설 부문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중
  - \* North Field West Development 및 CO<sub>2</sub> Sequestration Complex 등 대형 가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생산·저장 역량 확충, QIRP 철도망·Doha Metro 2단계 착수로 운송 부문 성장세 견인
- (UAE)'25~'26년 사이 AI, 철도, 산업단지 등 비석유 부문 중심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특히 건설 부문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
  - \* Dubai Metro Blue Line(55억8천만 달러 규모, '29년 완공 예정) 등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비석유 부문 중심 성장세 가속화
- (쿠웨이트) Vision 2035 추진에 따라 전력·운송·건설 중심의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320억 달러 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1,700억 달러 규모 발주 계획 보유
- (오만) Vision 2040에 따라 건설·화학 중심의 비석유 프로젝트 발주 확대(총 275.9억 달러), 향후 도시 개발 및 에너지 효율화 부문이 성장세 주도 전망
- (이란) 제7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PND) 2023~2027 일환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South Pars 가스전 개발 박차

## 참고 : 중동 세부 산업별 프로젝트 발주 동향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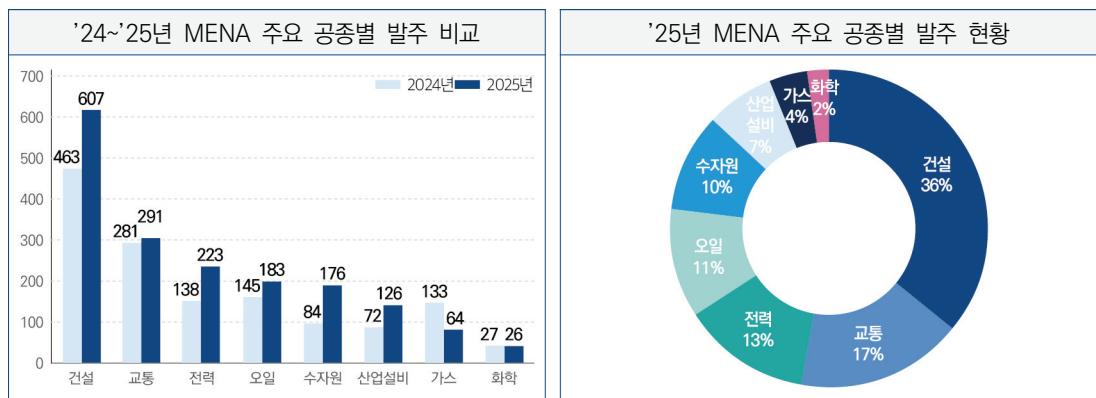
공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증감률	
건설	803	649	611	617	607	30.9
교통	411	375	362	408	291	3.3
전력	188	202	398	213	223	61.8
오일	149	228	224	197	183	26.6
수자원	105	136	138	106	176	110.1
산업시설	68	62	35	84	126	74.0
가스	157	99	63	167	64	△51.7
화학	67	36	29	40	26	△3.6
<b>총계</b>	<b>1,949</b>	<b>1,786</b>	<b>1,859</b>	<b>1,832</b>	<b>1,695</b>	<b>26.2</b>

주1: 취소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이미 완공(Complete)된 프로젝트의 발주액만을 기준('25년 10월 17일)

주2: 프로젝트 수주액이 미미한 국가 제외(시리아, 예멘, 모리타니)

자료: Meed Projects

## 〈MENA 주요 공종별 발주 비교 및 현황〉



자료: Meed Projects, 중동지역본부 가공

## 중동 권역 및 국가별 프로젝트 발주 규모

권역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증감률	(단위: 억 달러, %)
GCC	사우디 아라비아	발주액 비중	532 37.2	324 31.4	273 24	558 47.4	584 52.9
	UAE	발주액 비중	456 31.9	339 32.9	502 43	336 28.5	276 25.0
		발주액 비중	195 13.6	220 21.4	188 16	89 7.5	141 12.7
	카타르	발주액 비중	13.6	21.4	16	7.5	141.0
	오만	발주액 비중	71 4.9	48 4.6	92 8	56 4.8	50 4.5
	쿠웨이트	발주액 비중	135 9.5	75 7.3	81 7	60 5.1	33 3.0
		발주액 비중	40 2.8	25 2.4	19 2	78 6.6	20 1.8
	바레인	발주액 비중	40 2.8	25 2.4	19 2	78 6.6	20 1.8
	소계	1,429	1,030	1,155	1,177	1,104	38.1
	이란	발주액 비중	97 31.3	54 11.2	112 24.6	108 26.0	80 24.7
독립시장	이집트	발주액 비중	111 35.7	159 33.4	159 35.1	186 44.6	163 50.4
	이스라엘	발주액 비중	24 7.6	24 5.1	50 11.0	21 5.1	42 13.1
		발주액 비중	78 25.3	239 50.2	133 29.4	102 24.4	38 11.8
	튀르키예	발주액 비중	310	477	454	417	323
	소계	310	477	454	417	323	-3.5
	이라크	발주액 비중	48 62	191 95.5	135 89.5	107 94.2	131 90.8
례반트	요르단	발주액 비중	15 20	5 2.7	12 7.8	3 2.5	13 8.9
	레바논	발주액 비중	14 18	4 1.8	4 2.7	4 3.2	0 0.2
		발주액 비중	78	200	151	113	144
	모로코	발주액 비중	41 30.7	24 29.9	20 20.4	37 29.4	44 37.2
	튀니지	발주액 비중	9 7.1	1 1.5	7 7.3	6 4.6	4 3.0
마그레브	알제리	발주액 비중	82 61.6	44 55.2	64 64.9	68 54.9	65 55.4
	리비아	발주액 비중	1 0.6	11 13.4	7 7.4	14 11.1	5 4.5
		발주액 비중	133	80	99	124	117
	중동 합계	1,950	1,787	1,859	1,831	1,688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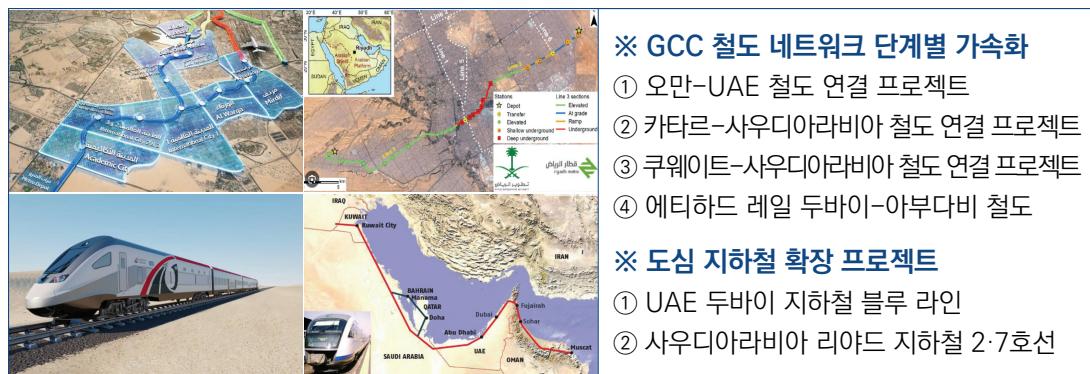
주1: 취소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이미 완공(Complete)된 프로젝트의 발주액만을 기준('25년 10월 15일)

주2: 프로젝트 수주액이 미미한 국가 제외(시리아, 예멘, 모리타니)

자료: Meed Projects

## □ (중동 전망)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건설·전력 중심의 PPP 기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 (국가별) 사우디아라비아<sup>36%</sup>, UAE<sup>16%</sup>, 이라크<sup>10%</sup>, 이집트<sup>10%</sup>, 카타르<sup>8%</sup> 등 프로젝트 시장을 주도할 예정이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sup>+62%</sup>, 카타르<sup>+141%</sup> 등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전망
  - (공종별) '26년 수자원, 산업시설, 전력, 건설 순으로 전년 대비 발주 증가가 기대, 가스, 화학 부문에서 큰 감소가 예상되며 교통 및 오일은 지난해와 유사 전망
    - 특히, 최대 발주 규모를 자랑하는 건설 부문의 경우 국가 간 철도 네트워크 및 메트로 건설 등 하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속 확대될 전망
- \* 철도 및 지하철 프로젝트는 역대 최대 발주 규모를 자랑하며 2,000억 달러 이상의 파이프라인 보유



## □ (한국 수주) '25년 9월 30일<sup>누계</sup> 기준 對중동 프로젝트 수주 규모는 110억 달러로 전년 동기<sup>119억</sup> 달러 대비 8.3% 감소

- 對중동 수주는 한국의 전체 프로젝트 수주<sup>413억 달러</sup>의 약 26.5%를 차지, 유럽<sup>48.0%</sup>, 아시아<sup>11.5%</sup>, 태평양, 북미<sup>11.0%</sup>, 중남미<sup>1.6%</sup> 순
- \* 유럽(체코) 198.2억 불 대형 수주(금액·비중 사상 최대)로 중동 지역 수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락

### 對중동 프로젝트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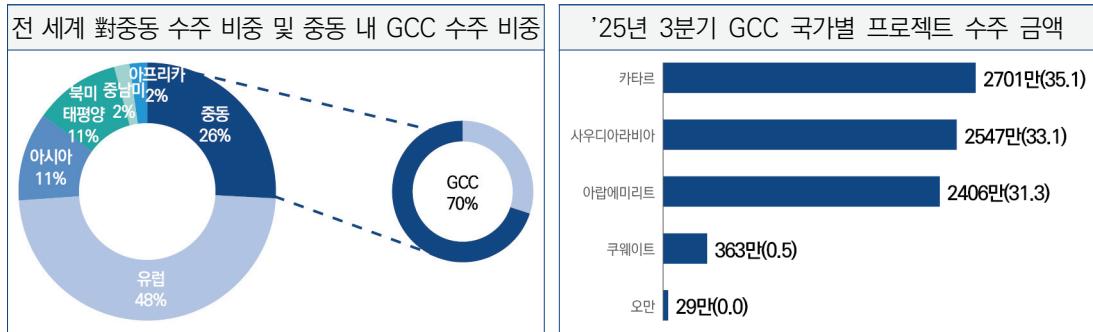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분기
전체 수주(증감률)	30,580 (△13.0%)	30,981 (1.3%)	33,314 (7.5%)	37,114 (11.4%)	41,329 (11.4%)
对중동 수주(증감률)	13,297 (179.5%)	11,220 (△15.6%)	9,021 (△19.6%)	18,494 (48.8%)	10,949 (△8.3%)
전체 대비 중동 비중(%)	37.9	36.7	29.1	49.8	26.5

자료: 해외건설협회

-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對GCC 수주가 중동 전체 수주의 70% 차지
  - \* GCC 국별 비중 : 카타르(35.1%), 사우디아라비아(33.1%), UAE(31.3%), 쿠웨이트(0.5%) 순

〈'25년 3분기(누계) 對중동 프로젝트 수주 동향〉



자료: 해외건설협회, 중동지역본부 가공

- (공종별) 중동지역의 발전·메탄을 플랜트 등 산업 수요 증가에 힘입어 산업설비 및 건축 분야 수주가 확대
  - (산업설비) '25년 3분기 기준 산업설비 수주액은 총 102억 달러로 중동 전체 수주<sup>110억 달러</sup>의 약 94% 차지
    - \* 발전소가 38.1%로 가장 크며, 원유시설(30.9%), 화학공장(15.0%), 가스시설(13.8%) 순
  - (건축) 사우디아라비아 공장, UAE 거주시설 산업·주거 인프라 확장 수요
    -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현대차 첫 생산시설 건설을 현대건설에 위탁, 계약 규모는 2억 4,800만 달러
    - \* (UAE) 쌍용건설은 두바이 크릭 하버 지역의 고급 레지던스 2건 수주, 계약 규모 2억 2,300만 달러, UAE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EMAAR가 발주한 프로젝트 첫 수주
- (국가별) '25년 3분기<sup>누계</sup> 對이라크 수주 30.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15.9% 대폭 증가, 중동 전체의 30.1% 차지하며 프로젝트 수주 시장 성장 견인
  - (사우디아라비아) Vision 2030 이행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며, 복합화력발전·가스터빈 등 발전설비 분야 중심의 수주 확대
  - (UAE) 탈탄소 정책과 산업 다변화 추진에 따라 석유화학·메탄올 등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발주 확대 추세
  - (이라크) 대형 해수처리시설 공사<sup>'25년 9월</sup>(역대 30위 규모)로 수주로 3위 차지

## '25년 한국의 대중동 주요 국별 프로젝트 수주 현황

국가	발주처	국내 기업	규모 (\$억)	내용
사우디 아라비아	레말 에너지 회사 (Rimal Energy)	두산Enb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umah1 복합화력발전소 공사('25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야드 북동부 약 80km 지점에 1,800MW 규모 복합사이클 발전소 건설</li> <li>민자발전(IPP) 방식으로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수요 대응 핵심 프로젝트</li> </ul> </li> </ul>
	나심 에너지 회사 (Naseem Energy Company)	두산Enb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iryah1 복합화력발전소 공사('25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나이리야 지역에 1,800MW 규모 복합 사이클 발전소 건설</li> <li>루마-1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전력망 안정화 및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li> </ul> </li> </ul>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공사 (Saudi Electricity Company(SEC))	두산Enb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P12 복합화력발전소 확장공사('25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야드 북서부 약 150km 지점에 위치, 1,800MW 규모 복합사이클 발전소 신설</li> <li>사우디아라비아 전력망 안정화 및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확장 프로젝트</li> </ul> </li> </ul>
	SEC-내셔널 그리드 SA	현대건설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umaij(HMJ) 380KV 송전('2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umaij 지역을 중심으로 380kV급 고압 송전선 및 변전 설비 구축</li> <li>대규모 산업단지 및 신도시 전력 공급 안정화 목적</li> </ul> </li> </ul>
	SEC-내셔널 그리드 SA	현대건설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ew Khulis 380kV 송전 공사('2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ew Khulis 지역 일대 380 kV 급 송전선 및 변전 설비 건설 프로젝트</li> </ul> </li> </ul>
UAE	ADNOC	삼성 E&A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지즈 메탄올 프로젝트('2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일 5,000톤 생산능력의 UAE 최초 메탄올 플랜트 건설</li> <li>탈탄소·산업 다각화 전략에 따른 화학플랜트 투자 확대의 대표 사례</li> </ul> </li> </ul>
	Al Dhafra	삼성물산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 Al Dhafra OCGT IPP 프로젝트('25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부다비 알 Dhafra 지역에서 건설될 예정이며, TAQA가 100% 지분으로 소유·운영하며 차세대 전력망 및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li> </ul> </li> </ul>
카타르	DIFC Invest. Ltd.	쌍용건설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바이 이머시브 타워('24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타버스·디지털아트 전시,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한 신개념 복합시설 건설</li> <li>두바이의 관광 엔터테인먼트 산업 다변화 전략에 부합하는 상징적 프로젝트</li> </ul> </li> </ul>
	카타르에너지 (Qatar Energy)	삼성물산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ukhan 태양광 발전소('25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atarEnergy가 약 2GW 규모로 발주한 카타르 서부 Dukhan 지역 태양광 플랜트 사업</li> <li>도하 서쪽 약 80km 지점에 건설 예정이며, '30년까지 카타르 태양광 발전 용량을 약 4 GW까지 확대하는 계획의 핵심 사업</li> </ul> </li> </ul>

국가	발주처	국내 기업	규모 (\$억)	내용
카타르수전력공사 (Qatar Electricity & Water Company (QEWC))	두산Enb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s Abu Fontas 피킹유닛 프로젝트(500MW 가스화력발전)(25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사이클 가스터빈 방식 500 MW 규모 발전소 건설 예정</li> <li>- 도하 남부 라스 아부 폰타스 산업지대에 위치하며, 여름철 피크부하 대응 및 전력망 안정화 목적</li> </ul> </li> </ul>
이라크	토탈에너지 일라타위	현대건설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스라 해수처리 사업(WIP)(25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 약 5백만 배럴 규모의 해수처리·송수설비를 구축하는 EPC 계약을 체결</li> <li>- 프로젝트 착수 후 약 7,000여 명의 현지 인력이 건설에 동원될 예정</li> <li>- '25년 중 착공으로 중동 플랜트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확대 가능성을 시사</li> </ul> </li> </ul>

자료: 해외건설협회, 종동지역본부 조사

## 2. 유망 산업

### 가. AI·디지털 혁신

#### 〈AI〉

##### □ (개요) 정부 주도 국가 최우선 과제로 AI 및 첨단 미래 기술 도입 및 확산 주도

- (현지 산업 규모) '24년 중동의 ICT 시장 규모는 1,834억 달러로 추정되며, '29년까지 2,503억 달러로 매년 6.4%의 성장세 기록 전망(Mordor Intelligence)
  -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중동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등 클라우드 인프라 빠르게 확장 중

#### 중동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괄호 안은 공급전력 수요, MW)

구분	2025년	2030년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중동 전체	15.76(1,460MW)	47.03(3,230MW)	24.44%(17.25%)
- 사우디아라비아	4.19(440MW)	14.29(1,190MW)	27.84%(21.87%)
- UAE	5.53(496MW)	13.27(918MW)	19.13%(13.11%)

자료: Mordor Intelligence, 2024

- (주요 정책) 중동 내 가장 활발한 투자 지역인 GCC 및 주요 독립시장 주도 AI 및 첨단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 (UAE)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가 AI 전략 2031<sup>'17년 발표</sup>, 두바이 AI 범용 계획<sup>'24년 4월</sup> 로드맵을 통해 도시 전체에 AI 도입 촉진
  -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 및 AI 국가전략(NSDAI)' 발표<sup>'20년</sup>,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을 중심으로 AI 발전에 '30년까지 200억 달러 지원
  - (카타르) 제3차 국가개발전략(NDS-3)을 통해 경제 기반(에너지 → 자식) 전환 추진, 국가 디지털 어젠다(NDA) 2030 구체적 디지털 프레임워크 구축<sup>'24년 2월</sup>
    - \* 제조, 에너지, 관광, 물류, 금융 서비스 등 '30년까지 110억 달러 규모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쿠웨이트) 국가개발전략 New Kuwait 2035 일환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중앙정보기술청(CAIT) AI 분야 이니셔티브를 통해 '25년까지 100억 달러 투자
    - \* '전자정부 구축 프로그램 2023-2027' 5개년 전략을 활용해 AI 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 구축
  - (오만) 경제 다각화 '비전 2040' 일환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2021-2025' 발표<sup>'21년</sup>, 탄력 추진을 위한 AI·첨단기술 국가 프로그램 추가 발표<sup>'23년 6월</sup>
    - \* 7개 세부 프로그램 : AI 및 첨단기술, 우주기술, 디지털산업, 사이버보안, 디지털전환, 인프라, 전자상거래

- (이집트) 비전 2030 일환으로 ICT 부문 GDP 기여도 5.8%<sup>'24년</sup> → 8%<sup>'30년</sup>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제조, 아웃소싱 육성을 통한 디지털 수출 확대 등 주력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정부 차원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부펀드 산하 기업을 설립, 공격적인 투자와 글로벌 하이퍼스케일과의 협업 추진 중**

**중동 주요국 AI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육성 기업 및 기관**

국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GX : AI 및 첨단 기술 위원회(AIATC) AI 및 첨단 기술 개발과 도입 가속을 위해 설립('23년 3월)한 기술 투자 회사           <table border="1" data-bbox="323 709 1272 840"> <tr> <td style="width: 10%;">주요 투자</td><td>(인프라) 데이터센터 및 연결성 (반도체) 메모리 칩 설계 및 제조 (기술) AI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생명과학 및 로봇공학 등 핵심 기술</td></tr> </table> </li> </ul>			주요 투자	(인프라) 데이터센터 및 연결성 (반도체) 메모리 칩 설계 및 제조 (기술) AI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생명과학 및 로봇공학 등 핵심 기술
주요 투자	(인프라) 데이터센터 및 연결성 (반도체) 메모리 칩 설계 및 제조 (기술) AI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생명과학 및 로봇공학 등 핵심 기술			
UAE	주요 서비스	정부, 의료, 금융 등에 걸쳐 아랍어 LLM(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AI 슈퍼컴퓨팅 빅데이터, 공간정보 기술 등		
	주요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42 : UAE 정부가 설립한 최대 AI 칩 및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 7개의 자회사 보유           <table border="1" data-bbox="323 860 1272 991"> <tr> <td style="width: 10%;">주요 서비스</td><td>정부, 의료, 금융 등에 걸쳐 아랍어 LLM(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AI 슈퍼컴퓨팅 빅데이터, 공간정보 기술 등</td></tr> </table> </li> </ul>			주요 서비스	정부, 의료, 금융 등에 걸쳐 아랍어 LLM(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AI 슈퍼컴퓨팅 빅데이터, 공간정보 기술 등
주요 서비스	정부, 의료, 금융 등에 걸쳐 아랍어 LLM(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AI 슈퍼컴퓨팅 빅데이터, 공간정보 기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UMAIN : PIF 산하 '25년 5월 설립된 대형 인공지능 전문 플랫폼, 100억 달러 규모 글로벌 벤처펀드 (HUMAIN Ventures) 및 AI 인프라 투자를 통해 데이터센터, 첨단 칩 설계·제조 등 AI 생태계 확장 목표</li> <li>• Prosperity7 Ventures : 아랍코 산하 30억 달러 규모로 설립('21년)된 벤처 캐피탈로 확장성이 높은 혁신 기술, 금융 및 산업기술, 의료 및 교육 솔루션에 집중 투자</li> <li>• ALAT : 국부펀드 PIF 산하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 조성을 위해 설립('24년 2월)한 자회사로, AI 사업부 출범으로 지속가능한 제조 역량 강화 예정           <table border="1" data-bbox="323 1212 1272 1319"> <tr> <td style="width: 10%;">주요 투자</td><td>(인프라) 데이터센터 및 연결성 (반도체) 메모리 칩 설계 및 제조 (기술) AI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생명과학 및 로봇공학 등 핵심 기술</td></tr> </table> </li> </ul>			주요 투자	(인프라) 데이터센터 및 연결성 (반도체) 메모리 칩 설계 및 제조 (기술) AI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생명과학 및 로봇공학 등 핵심 기술
주요 투자	(인프라) 데이터센터 및 연결성 (반도체) 메모리 칩 설계 및 제조 (기술) AI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생명과학 및 로봇공학 등 핵심 기술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AI·첨단기술 강대국인 미국, 중국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 및 협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의 협업 사례도 확장

## GCC-해외 AI 분야 최근 파트너십 사례

국가	내용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차 :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MOU 체결('23년 12월)</li> <li>•  MS : 국영 AI 기업인 G42에 15억 달러 투자('24년 4월),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Azure)'에 접속해 생성형 AI 모델 훈련 및 AI칩 기반 서비스 판매 권한 확보 → G42 중국과의 관계 단절 선언('24년 2월), 바이트댄스 지분 매각, 화웨이 기술 배제</li> <li>•  퀄컴 : G42의 자회사인 코어42(Core42)의 AI 플랫폼 추론 성능 향상을 위해 퀄컴의 AI 가속기인 '클라우드 AI 100' 채택('24년 4월)</li> <li>•  MS·블랙록 : AI 투자사 MGX와 AI 데이터센터 및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0억 달러 규모 공동 프로젝트 추진 협의('24년 9월)</li> <li>•  엔비디아 : G42와 파트너십 체결('24년 9월) 및 기후 예측 플랫폼 어스-2 공동 개발</li> <li>•  오픈 AI : AI 투자사 MGX, '오픈 AI'의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참여('24년 10월) → UAE 및 중동시장 AI 채택 촉진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23년 10월)</li> <li>•  바벨 : 국부펀드 무바달라는 스페인 IT 기업 바벨의 지배 지분 인수('24년 10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웨이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개설 및 대형언어모델(LLM) 제공 계획 발표('23년 9월)</li> <li>•  네이버 : 1억 달러 규모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사업 수주('23.10월)</li> <li>•  안랩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SITE와 사이버 보안 협작법인 설립('24년 1월)</li> <li>•  소프트뱅크 : 국부펀드 PIF 산하 기업 'ALAT'과 산업용 로봇 협작법인 설립('24년 2월) → 사우디아라비아 내 자동화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 및 신설 공장에 협작회사 기술 적용을 위해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자동화 로봇 생산 하브 구축, '24년 12월 운영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웨이 : 통신사 Zain KSA 주요 도시 내 5.5G 기술개발 MOU 체결('24년 2월)</li> <li>•  앤드리슨 호로위츠 : 국부펀드 PIF와 400억 달러 규모 파트너십 체결('24년 3월), 반도체 제조 및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지원, 리야드 사무실 개소 방안 논의</li> <li>•  IBM : 아람코 자체 캐피털 아람코 벤처스와 75억 달러 펀드 조성 계획('24년 3월)</li> <li>•  Lenovo : ALAT은 미국의 기술 제재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국 PC 제조업체 Lenovo에 전환사채 발행('23.5월), 이를 계기로 리야드에 지역본부 설립 및 제조공장 건설</li> <li>•  Zhipu : 아람코 벤처 캐피털 '프로스퍼리티7'은 오픈 AI 경쟁사로 기대를 모으는 중국 AI 스타트업 '지푸AI'에 4억 달러 투자('24년 6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비디아 : 국영통신기업 Ooredoo, 소유 5개국(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알제리, 튀니지) 데이터센터 내 AI 기술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 AI 칩 도입</li> </ul>

## □ 기타

- (미래 실증) 제한된 정부 예산, 정부 규제 등 고려 사항이 많은 타 권역과 달리 중동은 AI 로봇 인프라 실제 도입 추진 등 미래 실증 테스트베드
  - (로보틱스) 첨단 제조 및 건설, 보안 등 적극 활용해 효율성과 생산성 확대

\* 카카오모빌리티, UAE 샤르자 왕실에 자율주행 및 로봇 등 모빌리티 관련 협력 방안 논의('24년 10월)

### ※ UAE정부 차원의 ‘실증배치(검증·현장 적용)’ 전환시점

- Technology Innovation Institute(TII·아부다비)와 Nvidia Corporation
  - 중동 최초의 AI·로봇 연구랩을 UAE에 출범('25년 9월),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보행 로봇, 산업용 로봇 암(arm) 등을 개발하며 실제 현장 배치를 목표
- 전자정부의 피지컬 AI 활용, 로봇 차량 및 무인배송분야 활용도 강화
  - Dubai Police가 자율 순찰로봇을 글로벌빌리지(Global Village)에서 공식 배치('25년 10월)
  - 두바이 도로교통청(RTA), 자율주행 배달 로봇 ‘탈라봇(Talabot)’ 시범운영
  - 아부다비의 Masdar City에서 공식 면허판을 받은 무인배달차량 시험운행('25년 9월)



- (보호·규제) 빠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공공·민간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투자 확대
  - 중동 내 사이버 공격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는 교육<sup>36%</sup>, 항공<sup>29%</sup>, 의료<sup>15%</sup>, 정부 기관<sup>8%</sup>, 투자<sup>7%</sup>, 은행 및 금융<sup>4%</sup> 등
  - 물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지적 재산으로 확대
    - \* 역내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UAE는 일일 평균 7만 번의 사이버 공격 경험

### 〈스마트시티〉

#### □ (개요)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체화

- (동향) 중동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따른 인구 증가 및 내수 확장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스마트시티에 중점
- (정책) 스마트시티 주도국인 GCC 오일머니 바탕의 중앙집권적 ‘탑다운’ 정책 추진과 이외 주요국들의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 등 인프라 현대화에 박차
  -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일환 도시 정책 활성화를 위해 ‘국가 계획 2025’ 발표<sup>'24년 2월</sup>, 자국의 주요 10개 도시를 글로벌 톱 50 도시에 진입시키기 위한 전략 추진
    - \* '30년까지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스마트시티 적극 추진 중,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24년) 7억 달러 → ('28년) 11억 달러로 57% 성장 전망
    - \*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AI 청 주도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해 '24년 IMD 스마트시티 지수 5계단 상승
  - (UAE) ‘플랜 아부다비 2030’, ‘2040 두바이 도시 마스터플랜’ 등 스마트시티 계획, '25년 IMD 스마트시티 지수 146개 도시 중 아부다비 5위, 두바이 4위로 평가
    - 두바이 작년 대비 8위상승, 아부다비 작년 대비 5위 상승
      - \* 중앙정부 및 토후국별 e-정부 전환 전략 및 사이버보안,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세부 전략 수립
      - \*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아시아 도시 최초로 1·2위 달성 심지어 베이징(14위), 타이베이(23위), 서울(13위), 상하이(15위), 홍콩(19위) 등의 최첨단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보다 상위권
      - \* 사우디아라비아(27위), 카타르(33위), 바레인(36위)도 세계 상위 50위 진입
      - \* 스마트시티 평가 기준은 경제 활동성, 시민 삶의 질, 인프라 및 기술, 시민 참여와 포용성 기준 등

## ('25년 IMD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수 순위)

City	Smart City Rank 2025	Smart City Rating 2025	Structure 2025	Technology 2025	Smart City Rank 2024	Change	City	Smart City Rank 2025	Smart City Rating 2025	Structure 2025	Technology 2025	Smart City Rank 2024	Change
Zurich	1	AAA	AAA	AAA	1	—	Vienna	26	A	A	A	23	▼3
Oslo	2	AAA	AAA	AAA	2	—	Riyadh	27	BB	BB	BB	25	▼2
Geneva	3	AAA	AAA	AAA	4	▲1	Warsaw	28	BBB	A	A	38	▲10
Dubai	4	A	A	A	12	▲8	Bilbao	29	A	A	BBB	29	—
Abu Dhabi	5	A	A	A	10	▲5	Wellington	30	A	A	BB	28	▼2
London	6	AA	AAA	AAA	8	▲2	Luxembourg	31	A	A	BBB	27	▼4
Copenhagen	7	AAA	AAA	AA	6	▼1	Sydney	32	A	A	A	22	▼10
Canberra	8	AAA	AAA	A	3	▼5	Doha	33	BB	BB	BB	48	▲15
Singapore	9	AAA	AAA	AAA	5	▼4	Vilnius	34	BBB	A	A	47	▲13
Lausanne	10	AAA	AA	AA	7	▼3	Boston	35	A	BBB	BBB	36	▲1
Helsinki	11	AA	AA	AA	9	▼2	Manama	36	BB	BB	BB		NEW

자료: IMD Smart City Index 2025

- (카타르) 지방자치부 2024–2030 전략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단계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중앙 집중식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건물·공원 등 관리 시스템 통합
  - ① (중앙 집중식 플랫폼)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도시 서비스 및 자원 관리 선제적 운영
  - ② (차량 관리·작업 배분) 정부 차량과 장비에 추적 장치 설치, 운행 경로 및 작업 실시간 모니터링
  - ③ (스마트 폐기물 관리) 폐기물 용기 및 보유 수거 차량 전자 센서 설치 등
- (오만) 비전 2040 일환으로 토지 활용 계획인 ‘국가 공간 전략(ONSS)’ 발표<sup>24년</sup>,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균형 잡힌 도시 통합 개발 추진
- (튀르키예)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과 지자체 주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단, 지자체 주도형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 국제 투자기관·정부 펀딩 활용
  - \* 현재 25개 스마트시티에 5개 스마트화(에너지, 빌딩, 모빌리티, 물, 정부) 중점 적용 중이며, 2053 교통물류 마스터플랜을 위해 2,000억 달러 투입 예정
- (이집트) 현 엘시시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대도시 과밀화 탈피를 위한 신행정수도 외 모든 신규 도시 확장 프로젝트 스마트시티로 추진
- (이스라엘) 정부 주도 스마트시티 정책 일환으로 5G 인프라 촉진을 위한 기업 대상 5G 기술 기반의 5세대 인프라 사이트 구축 확대 가속화
- (추진 현황) 교통 부문 및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과의 프로젝트를 확대 중이며, 스마트시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또한 확대
  - (UAE)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역점을 두고 프로젝트 확대,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 중 → ‘세계 톱3 자율주행 선도 도시’, ‘탄소배출·폐기물 제로 도시’ 중점
    - \* (아부다비)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ChamberGPT’, 지방자치교통부(DMT)의 도시 점검을 위한 ‘스마트 AI 점검 차량’, 아부다비 세관(ADC)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세관 시스템 등 개발 프로젝트 공개
  - (사우디아라비아) 모두의 기대를 받은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투자 유치와 자금 부족으로 사업 규모는 축소됐지만, 정부 자금력을 바탕으로 AI, IoT, 생명공학 및 첨단 보안 로보틱스 등 모든 최첨단 기술을 접목 예정

- (오만) 국토활용전략 일환 최초의 스마트시티인 '슬탄 하이Samsung 시티' 발표<sup>22년</sup>, 한국의 주거 형태(스마트 품 기술 도입 등)를 차용해 건설 예정
  - \* 이외 각 스마트시티를 테마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과의 협력 또한 기대

지역	특징	내용
소하르	자유무역지대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보 5분 이내 도시 개념을 적용해 인프라 조성</li> <li>• 15개 구역으로 구성, 바르셀로나와 유사한 격자형 구현 계획</li> </ul>
살랄라	특별경제특구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물류 중심지</li> <li>• 관광, 산업, 투자, 국제 해상무역 허브화로 낙점</li> <li>• 공유 모빌리티, 온디맨드 운송 모드, ITS 등 교통체계 중심</li> </ul>
니즈와	오만의 지식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패션,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지로 구상</li> <li>• '40년까지 인구수 24만 명, 일자리 12만 개로 확대 전략</li> </ul>

- (추진 사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이집트 신행정수도, 이라크 스마트시티 재건 사업 등 중동 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추진 사례 다수

### 〈중동 스마트시티 추진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일환의 신도시 프로젝트 'NE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170km의 높이 500m에 달하는 1조 달러 규모의 '더 라인' 프로젝트는 '30년 완공이 예정됐으나, 최근 2.4km로 대폭 축소</li> <li>-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인 '옥사곤'을 건설해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 드론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기지로 구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집트 신행정수도(NAC) 2단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이집트 신행정수도 프로젝트 시작 이후 1단계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25년 초부터 2단계 프로젝트 본격 시작</li> <li>- 법무부·계획부·국방부 신호담당부서가 NAC 내 'Smart Justice City'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3자 프로토콜을 체결('25년 10월)</li> <li>- CCTV+AI 감시, 도시 운영 데이터 인프라, 스마트교통 등이 설계 단계부터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 비スマ야 신도시 건설 재개('24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화건설이 수주한 101억 달러 규모의 전후 복구 사업</li> <li>- 도로, 전력망 등 도시 전체 건설을 패키지로 수출한 첫 수출 사례</li> <li>- 이라크 정부 자금난으로 '22년 중단됐으나, 양국 정상회담('23년) 및 장관급 면담 등 G2G 협력으로 사업 재개</li> </ul> </li> </ul>

- (협력 사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한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과 기술집약 솔루션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 팀네이버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sup>1억 달러 규모 착수 선언 '24년 7월</sup>, 네이버의 가장 빠르고 확장성이 높은 SW 경쟁력 우수 평가

\*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시장 : '29년까지 연평균 63% 급격히 성장해 566억 달러 전망

- (팀네이버) 한국수자원공사, LX는 팀네이버로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시계획 및 홍수 시뮬레이션 등 핵심 서비스 개발 및 단계별 파트너십 확대 예정
  - 주요 도시들 매핑 및 정밀 3D 모델링을 통해 정밀하게 구현·복제 가능한 플랫폼 구축
  - 항공사진과 AI를 이용한 10cm 내외의 오차 범위로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솔루션 및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 등 자체 보유
  - 이는 국가 전반의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빌딩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적합

- (이집트) ① 안양시 '누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련 업무협약 체결<sup>'24년 9월</sup>, ② 총 사업비 580억 달러 규모 신행정수도 관련 LG전자와 사업 협력 논의<sup>'24년 2월</sup>
- \* 韓 국토교통부 '23년 해외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인 중 하나로 이집트 신행정수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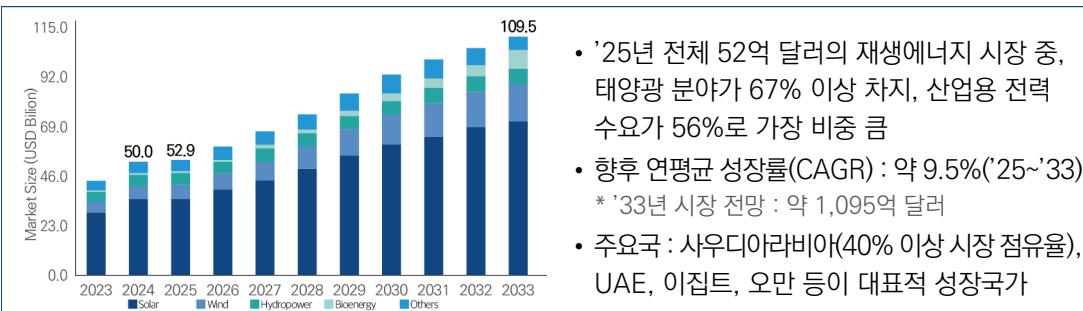
- (안양시) 이집트 첨단 녹색 스마트시티인 '누어 스마트시티'에 안양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기술 적용
- (LG전자) 신행정수도 개발사 LG전자와의 파트너십 강조 및 공동 투자 협력 의지
  - 스마트 가전과 스마트홈 솔루션 등 기술력 기반으로 이집트 스마트시티 구현 지원
    - \* (성공 사례) 구글과 스마트시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18년), 구글의 AI, IoT, 빅데이터 기술과 LG전자의 스마트 가전 및 하드웨어 플랫폼을 통합해 미래형 스마트 타운 구축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집트 정부와 '바드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확대회의 진행

## 나. 재생에너지

###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25년 기준 중동 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529억 달러로 평가되며, 산업은 주로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성장

〈중동 재생에너지 산업 규모〉



- MENA 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태양광 비중이 80%로 절대적으로 높으며, 탄소포집 및 저장(CCS) 기술 및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기술 도입·개발에도 박차
  - \* '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 사우디아라비아 50%, 카타르 20%, UAE 25%, 오만 30%, 쿠웨이트 15%

- GCC의 주도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임과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 막대한 투자로 재생에너지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
- 세계은행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최소 50%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태양에너지의 26%가 중동에 있는 것으로 추정,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5년간 중동 국가 내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이 8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중동 산유국 국부펀드의 막대한 흑색자산이 녹색자산으로 빠르게 전환 중

#### ※ Energy Industries Council

- “중동 ’30년까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756억 달러 투자”

- (주요 정책)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중동의 ‘에너지 전환’
  - 유엔기후변화회의 COP27(‘22년, 이집트)·COP28(‘23년 11월, UAE) 중동에서 연쇄 개최, 중동의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감과 그에 따른 정부 노력 확대
    - \* COP27 당시 이집트·UAE 200억 달러 규모의 합작투자 MOU 체결, 세계 최대 풍력 발전소 건설 합의
  - 중동 주요국은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발표를 통해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 사용 다각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개발 움직임 가속화
  -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하에 ‘국가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50%로 확대, 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해 ’60년까지 넷제로 달성
    - \* ’30년까지 매년 탄소배출량 2,780억 톤 감축,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약 2,660억 달러 투자
    - \*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규모의 네옴(Neom) 시티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운영할 계획, ’3無 도시(탄소배출 無, 폐기물 배출 無, 내연기관 차량 無)’ 달성을 추진
  - (UAE) 최초의 통합에너지 전략 ‘국가 에너지 전략 2050’ 개정안 발표(‘23.7월), 약 70조 원 규모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계획 및 ’30년까지의 단기전략\* 수립
    - \* 272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 그린펀드’ 제공, 인프라 개발, 재생에너지 기여도 3배 증대 등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GCC 지역 에너지 산업은 국영기업·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하고, 글로벌·민간 기업이 기술 제공자이자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

##### 중동 에너지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국가	기업명	기업 동향
UAE	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최대 산유 기업 중 하나이며 석유·가스 생산부터 석유화학, 수소·CCUS까지 사업 다각화를 추진. ’45년 넷제로 목표를 앞세워 글로벌 기업과 협력 확대 중</li> </ul>
	MASDAR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 국영 재생에너지·청정기술 전문기업으로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저장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25년 기준 40개국 5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li> </ul>

국가	기업명	기업 동향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mco	• 세계 최대 국영석유기업으로 상류(탐사·생산) – 하류(정유·화학) – 수소 까지 통합 벤류체인을 보유
	ACWA Power	• 사우디아라비아 PIF 지분 약 44%를 보유한 준국영 에너지 개발기업으로, 국내외 태양광·풍력·해수담수·수소 프로젝트를 주도
오만	OPWP (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 Ibri II(500 MW 태양광), Dhofar Wind Farm(50 MW) 등 다수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주했으며,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5% 달성을 목표로 함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거대 설비개발 및 저가 전력공급(LCOE)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고효율 모듈·EPC 역량·운영기술로 차별화 가능

#### 국내 기업 주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사례

국가	주요 내용	수주 기업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즈반 1500MW 태양광발전 사업 '24년 6월 착공 및 '26년 7월 준공 예정, 향후 30년간 생산될 전력은 EWEC가 구매 보장하며 누적 매출 전망치는 약 3조원</li> <li>* 한국 기업이 수주한 태양광발전 중 단일 사업 가장 큰 규모</li> </ul>	서부발전, 프랑스 EDF-R 컨소시엄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부다비 알 Dhafra 지역에서 건설될 예정이며, TAQA가 100% 지분으로 소유·운영하며 차세대 전력망 및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li> </ul>	삼성물산
사우디 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사다위(2,000MW), 알마사(1,000MW), 라빅2(300MW), 알헤나키야 2(400MW), 등 4개 입찰 진행 중, 총 사업비는 약 3조 300억원 규모로, 건설 후 운영까지 책임지는 BOO(Build·Own·Operate) 방식</li> </ul>	한전은 알사다위, 알헤나키야 2, 라빅 2 등 3개 프로젝트 최종 후보로 선정
오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나1 500MW 태양광발전 '24년 11월 착공 및 '25년 3월 준공 예정, 서부발전은 태양광발전 유지관리(O&amp;M)까지 담당하며 오만수전력공사 OPWP가 구매 보장)</li> </ul>	서부발전, 프랑스 EDF-R 공동수주
카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75MW 규모 Mesaieed 지역과 Ras Laffan 지역에 각 417MW, 458MW 급의 발전소 설립 예정(10km<sup>2</sup>, 태양광 패널 160만 개 초대형 규모)</li> </ul>	삼성물산 단독 EPC
카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atarEnergy가 약 2GW 규모로 발주한 카타르 서부 Dukhan 지역 태양광 플랜트 사업</li> </ul>	삼성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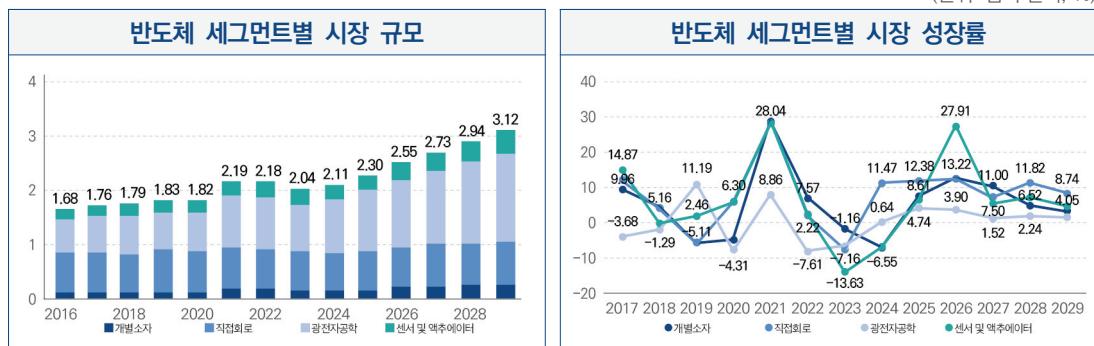
## 다. 반도체

### □ (개요) 미래 산업의 밸류체인 반도체 산업, 자체 반도체 제조 기반 조성 움직임

- (현지 산업 규모) '25년 중동 반도체 시장은 23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8% 성장 전망
  -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대란 현실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는 현재 중동 산유국들의 자금 자연스럽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대거 유입
  - 미국과 아시아권의 반도체 패권 경쟁 중동도 뛰어들며 GCC 및 튀르키예 중심 반도체 공급원 다양화와 자체 반도체 제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 중
  - 중동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가치의 2.5%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첨단산업과 제조업 육성의 강력한 수요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격차 최소화

〈중동 반도체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Statista

- (정책 동향)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생산설비 고도화 및 잠재 공급망 중단에 대비해 G2G·G2B 협력을 확대하며 공급망 다변화
  - (사우디아라비아) 연구·개발 혁신청(RDIA)은 디지털 칩 설계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주요 정부 기관 및 국부펀드 PIF 산하 Alat\* 등과의 고급 교육 프로그램 개시<sup>24년 8월</sup>
    - \* 국부펀드 PIF는 반도체, 첨단산업, 스마트 가전, 차세대 인프라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Alat' 출시('24년 2월)해 '30년까지 1,000억 달러 투자 예정
  - (UAE) 'UAE AI 국가전략 2031'<sup>17년 발표</sup>, Operation 300bn(817억 달러)<sup>21년 발표</sup> 등 산업 부문 GDP 기여도 제고와 제조 역량 확대 등 반도체 제조는 핵심 동인
    - \* AI·반도체 중심 투자를 위해 기술 투자사 MGX 설립('24년 3월), 운용자산 목표액 1,000억 달러
  - (튀르키예) HIT-30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sup>24년 9월 발표</sup> 일환으로 반도체 분야 투자 기업에 최대 10% 보조금 지급, 세금 면제, 투자 부지 제공 등 혜택 제공
    - \* 50억 달러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력 65mm 이상의 나노 공정 기술로 年 최소 백만 웨이퍼 생산 목표, 방산, 자동차, 백색가전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주력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미국發 중국 반도체 규제 여파 확대로 중동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한국·대만과의 접점 또한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 초정밀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sup>'24년 1월</sup>
-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를 통한 세계 최대 반도체 사이언트 기업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로부터 UAE에 팹(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논의<sup>'24년 9월</sup>
  - \* 무바달라는 최대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두 기업의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 유치 추진
  - \* 최근 무바달라의 운용자산 규모는 3천억 달러 수준으로 팹 건설에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

**중동 주요 기업의 최근 파운드리 분야 파트너십**

국가	내용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파운드리 :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09년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최대 주주로서 지분 90% 보유</li> <li>•  퓨리오사AI : 국부펀드 무바달라는 한국의 AI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와 투자 관련 논의 중('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칩인 '레니게이드' 출시('24년 4월)하며 AI 반도체 최초로 SK 하이닉스에서 HBM3 공급받아 탑재했으며 초기대언어모델(LLM) 부문 성능 향상</li> </ul> </li> <li>•  삼성전자 : 국부펀드 무바달라는 삼성전자와 UAE 내 반도체 공장 건설 협의 중('24년 9월)</li> <li>•  TSMC : 국부펀드 무바달라는 TSMC와 UAE 내 반도체 공장 건설 협의 중('24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SMC는 UAE를 방문('24년 9월)해 대만에 있는 자사의 가장 크고 최첨단 시설과 동등한 사양의 공장 단지를 UAE 내 건설하기로 논의</li> </ul> </li> </ul>
사우디 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스콘 : 네옴 도시 내 90억 달러 규모 듀얼 라인 반도체 공장인 파운드리 건설 검토('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스콘)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융자와 세제 혜택, 전기 및 수도세 보조 등 요구</li> <li>* (사우디아라비아) 폭스콘 측에 인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70%를 폭스콘이 이미 확보한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도록 요구</li> </ul> </li> <li>•  인텔 : 아람코의 디지털 및 기술 자회사인 아람코 디지털은 인텔과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오픈랜(Open RAN) 개발 센터 구축 계획 발표('24년 1월)</li> <li>•  GCT Semiconductor Holding : 아람코는 美 소재 반도체 기업과 5G 칩 및 모듈 공동 개발을 위해 MOU 체결('24년 4월)</li> <li>•  리밸리온 : 아람코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밸리온에 200억 원 투자('24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아람코로부터 투자 유치</li> </ul> </li> <li>•  엔비디아 : AI 칩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 허용 고려('24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중국 관계 강화를 경계해對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제한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미국과의 보안 요건 준수를 위한 중국과의 거리두기 시행으로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는 엔비디아로부터 ChatGPT 개발사 오픈AI가 최신 AI 모델 GPT-4o에 사용한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칩인 'H200' 인도 기대</li> </ul> </li> </ul> </li> </ul>
바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마테크 : 인도 광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Polymatech은 '27년까지 GCC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전략을 발표하며, 전략 일환으로 바레인에 1,620만 달러 투자 추진('24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분야에서 바레인에 대한 해외 첫 투자 사례</li> </ul> </li> </ul>

## 라. 방위산업

□ (개요) 지정학 리스크 및 지역 분쟁 상시화에 따라 중동 각국의 자주국방 전략 강화, 드론/미사일·방공·해군력 등 강화를 위한 정부 주도 + 국영/국부펀드 축의 방산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

- (현지 산업 규모) '24년 중동 군사 지출은 2,4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급증, 사우디아라비아 '25년 국방예산 780억 달러 편성 등 '25년에도 증액 기조 지속
  - (사우디아라비아) 자국 중심의 무기 생산 역량 확대, 국방산업 자립화 시도
    - '24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비는 790억 달러로, 정부 지출의 24.04%를 차지. 국방비 지출은 세계 6위로, 중동 내 1위이며 수년간 세계 10위권 유지
  - \* GDP 대비 국방비 지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40%로 매우 높은 수준

### '19~'24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비 지출 동향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지출액(억 달러)	654	646	632	709	758	790
증감률(%)	△12.4	△1.2	△2.1	12.2	6.9	1.5
GDP 대비 국방비(%)	7.79	8.79	7.23	6.40	7.28	7.30

자료: SIPRI(스톡홀름 평화연구소)

### (참고) '20~'24년 세계 무기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	국가	점유율(%)	주요 수출국(수입 점유율, %)
1	우크라이나	8.8	• 미국(45), 독일(12), 폴란드(11), 영국(4.2), 프랑스(3.2)
2	인도	8.3	• 러시아(36), 프랑스(33), 이스라엘(13), 미국(9.6), 영국(3.0)
3	카타르	6.8	• 미국(48), 이탈리아(20), 영국(15), 프랑스(14), 튀르키예(2.4)
4	사우디아라비아	6.8	• 미국(74), 스페인(10), 프랑스(6.2), 캐나다(2.4), 영국(2.0)

자료: SIPRI(스톡홀름 평화연구소) Arms Transfers Database, SEP. 202

#### ※ 사우디-미국 방산 계약 구조

- ① 사우디아라비아 내 조립·생산·MRO(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시설 구축 및 50~70% 현지화
- ② 첨단 전자전·레이더·엔진 기술, 무인기 운용 노하우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첨단기술 이전(현지 훈련센터 설립, 교육프로그램 포함)

- (UAE) 국방산업, 무기 수입국에서 방산 자립국으로의 도약 목표
  -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위에 속하며, 중동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규모가 큰 방위산업 시장으로 '25년 국방 예산은 약 329억 달러(약 5.2%의 GDP)를 기록, 전년 대비 9.8% 증가(Fitch Solutions, '25년 4월)

- 높은 에너지 가격이 국방 지출을 뒷받침하며, 동시에 중동지역 긴장 심화로 '25~'26년 국방 예산은 추가 확대 예상

### UAE 국방 예산 추이('23~'29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국방 예산(백만 달러)	26,873	29,985	32,920	35,407	37,452	39,521	41,639
증가율(%)	2.3	11.6	9.8	7.6	5.8	5.5	5.4

자료: Fitch Solutions('25년 4월)

- UAE 방산산업은 국영기업 EDGE를 중심으로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를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
  - \* EDGE 그룹은 UAE 정부가 25개 방산기업을 통합해 만든 국영 방산기업

### (참고) '25년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동 3국 순방 군사 협력 사례

구분	계약 규모	주요 미국 기업/기관 & 거래 내용	특징
사우디 아라비아	1,42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ckheed Martin : F-35 도입 논의, C-130 수송기 공급, THAAD 부품 현지 생산</li> <li>General Atomics : MQ-9B 드론 200기 공급</li> <li>RTX(Raytheon) : Patriot 시스템 부품 현지 조립 및 인력 교육</li> <li>Northrop Grumman : 전자전(EW) 시뮬레이션 플랫폼 공급 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산산업 현지화율 50% 목표</li> <li>GAMI-SAMI 주도하 THAAD·Patriot 부품 현지 생산 및 MRO (정비·유지보수·개조) 체계 구축</li> <li>Lockheed Martin, RTX 등과 협력, 전자전·레이더·UAV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li> </ul>
카타르	42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eneral Atomics : MQ-9B 드론 8기 및 지상 통제시스템</li> <li>Raytheon : FS-LIDS 근거리 드론 방어체계</li> <li>기타 : KC-46A 공중급유기, THAAD 체계 일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우데이드 미군기지 현대화 투자 연계 가능성</li> <li>드론 전력 및 작전 능력 향상 초점</li> </ul>
UAE	16억 달러+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eing : AH-64(아파치), UH-60(블랙호크) 헬기 부품 및 정비장비 제공</li> <li>RTX(Raytheon) : 갈룸 기반 전자부품, 드론요격 (C-UAS) 시험 시설 구축</li> <li>미 국방부 &amp; 텍사스 주방위군 : 통합 방공·사이버안보·작전계획 훈련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 기술 내재화 및 생산역량 확대</li> <li>갈룸 반도체·C-UAS 분야 기술 실증 확대</li> <li>SPP 통해 분야별 군 전문인력 훈련 및 공동 작전 기획 역량 강화</li> </ul>

- (튀르키예) '24년 방산 국산화율 83% 달성을 자립적 생산 역량 강화
  - '24년 기준,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총 매출은 약 150억 USD에 달했으며, 이는 튀르키예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 \* 주요 방위산업체로는 Baykar, MKE, Aselsan, Roketsan, SYS 등이 방위산업 전반을 주도
  - 방산 수출은 '25년 상반기 40억 달러로 성장하며, 첨단 부품은 선택적 수입에 의존

### 튀르키예 주요 방산기업 수출 현황

기업명	Baykar	TAI	Tusas Engine Industries	MKE
주요 품목	드론	항공우주 시스템	항공우주 엔진	군수품
수출액(달러)	18억	7.5억	3.9억	2.6억
기업명	Roketsan	Ram Dis Ticaret	Aselsan	Samsun Yurt Savunma
주요 품목	미사일	군용차량	전자장비	항공장비
수출액(달러)	1.8억	1.9억	2.2억	1.7억

자료: Anadolu Agency('25년 2월 1일)

- (이스라엘) 방산부문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핵심 분야
  - '24년 이스라엘 방산 수출은 14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전년비 13% ↑), 수출계약의 56.8%가 1억 달러 이상 대규모로 전체 수출의 24.5% 차지
    - \* 주요 수출 품목은 미사일·로켓·방공 시스템(36%), 레이더·전자전 시스템(11%), 유인 항공 플랫폼·항공전자 시스템(11%), 사격 훈련용 탄약(11%), 무인항공기(UAV)·드론(8%)

###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 각국 방산 주요 기업

기업명	국가	주요 분야	특징
	UAE	방산·첨단기술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국방산업 통합을 위해 설립된 국영 방산 지주회사로, 25개 이상 자회사를 보유</li> <li>• 주요 분야 : 무인체계(UAV), 미사일·무기, 사이버·전자전, 항공·해양 플랫폼, 정밀제조 등</li> <li>• 국방자립 및 첨단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한 통합 솔루션 제공</li> </ul>
	사우디 아라비아	항공, 지상 시스템, 무기·미사일, 방산 전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설립된 국영 방산 지주회사,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산업 통합 및 자립 추진. AEC 등 다수 자회사를 보유. Vision 2030의 핵심 국방 전략 축.</li> </ul>
	사우디 아라비아	무기 생산, 군수 장비, 방산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초기 방산 기반을 담당한 국영 방산 생산기관. 이후 SAMI와 함께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 있음.</li> </ul>
	튀르키예	전자전, 통신, 레이더, 방공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 방산전자기업, AI 기반 'Steel Dome' 프로젝트 주도</li> </ul>
	튀르키예	항공기, 헬리콥터, 위성, 무인기(UA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튀르키예 대표 항공우주기업, 5세대 전투기 'KAAN' 개발 주도</li> </ul>
	튀르키예	무인기(UAV), 자율비행, 전술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UAV 선두기업, 'Bayraktar TB2' 수출 및 'Kizilelma' 개발 주도</li> </ul>

자료: 각 기업 웹사이트, Pitchbook

## '25 국별 주요 방산 프로젝트

프로젝트	국가	핵심 내용	규모/주체
Ground Master 200 레이더 현지 생산	UAE	지상감시 레이더 현지 생산라인 구축 (탈레스 합작)	금액 비공개/타와준-탈레스
“Go to UAE” 공급망 프로그램	UAE	현지 부품사 20개 글로벌 공급망 편입 지원	1억6천만 달러/타와준-탈레스
BMP-3 성능 개량	UAE	UAE 보유 BMP-3 대수정 업그레이드(기동·방호·FCS)	약 6억 달러/EDGE-FNSS
HEDÁ 지대지 미사일	UAE	국산 중거리 미사일 1단계 양산·도입	10억2천만 달러/Calidus
함대함 미사일 공동 개발 (MANSUP)	UAE	중·장거리 함대함 미사일 공동 개발 (ER 파생 포함)	개발비 비공개/EDGE-SIATT
“Jeniah” UCAV 개발	UAE	제트 기반 충성의 무인전투기 개발	R&D/EDGE
HT-750 무인헬기 양산	UAE	중형 VTOL UAV 양산·납품 개시	발주 200대/DGE-Anavia
첨단 전자전(EW) 센터	UAE	GPS 재밍 대응·IED 재머 등 EW 역량 내재화	투자 비공개/EDGE
탄약·정밀무장 대량 조달	UAE	정밀탄·PGM 공급, 해군 유도탄 계약	12억 달러(탄약), 5억4천만 달러(해군)/ EDGE·Maestral
미국의 AMRAAM 공대공 미사일 판매 승인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AIM-120C-8 AMRAAM 미사일 및 지원 장비 판매 승인	약 35억 달러/ 미국 정부-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미국의 APKWS 정밀 유도 로켓 판매 승인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정밀 유도 로켓 (APKWS) 판매 승인	약 1억 달러/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미국↔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무기 패키지 제안/판매 계약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규모 무기 패키지를 제안 또는 판매하기로 함	약 1,420억 달러 패키지/ 미국-사우디아라비아 정부
Aselsan의 기술 기반 확장 (Ogulbey 기술 기지 건설)	튀르키예	Aselsan이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대규모 기술기지 건설 계획 발표	15억 달러/Aselsan (튀르키예 방산 전자기업)
‘Steel Dome’ 통합 방공체계 납품 개시	튀르키예	튀르키예 정부가 “Steel Dome” 시스템의 첫 납품 구성품 발표	4억 6천만 달러 상당/ Aselsan 주도
Aselsan의 공중/지대 방어 시스템 계약	튀르키예	튀르키예 정부가 자국군에 제공할 공중·지대 방어 시스템의 납품 계약을 Aselsan과 체결	약 19억 달러/ Aselsan-튀르키예 방위산업청 (SSB)
Aselsan의 Ogulbey 기술기지 건설 투자	튀르키예	기술 기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방산 기술 기지 건설 발표	약 15억 달러/Asel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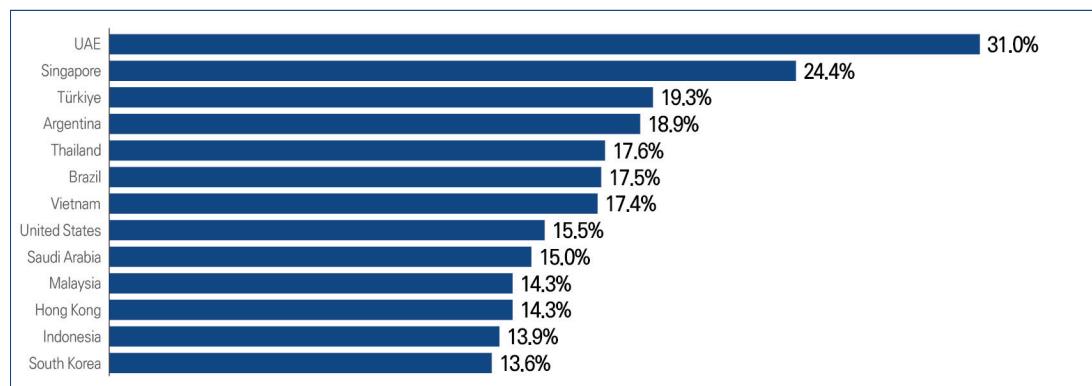
자료: 현지 언론 종합

## (참고) 중동지역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산업 동향

### □ (개요)

- (정책)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 전환 흐름 속에서 중동 주요국 정부는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상위 정책에 반영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을 통해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을 강조
    - 사우디아라비아 내 온체인 암호화폐 거래는 '24년 한 해 동안 154% 증가하였으며, 이는 MENA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에 해당
    - 가상화폐에 관한 정식 법제화는 없으나, 핀테크 샌드박스\*를 통해 실험 중이며 금융기관은 실험 참여 금지
      - \* 핀테크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제 테스트 환경
  - (UAE) 디지털 경제 전략과 아부다비 2030·두바이 2040 마스터플랜에 따라 블록체인·암호자산 허브로의 도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 \* '24년 11월부터는 암호자산 대부분의 거래에 부가가치세(VAT) 면제 적용
    - 두바이는 '22년 세계 최초의 독립 암호자산 규제기관인 VARA<sup>22년 03월</sup> 설립
      - \* VARA는 두바이 정부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전담 암호자산 규제 기관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역할
      - \* 가상자산 기업들은 VARA에 등록 필수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탈중앙화 금융(DeFi) 활용도도 높아 글로벌 평균 대비 적극적으로 DeFi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향
    - '23년, UAE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암호화폐 보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선도국으로 부상
      - \* 그 외 튀르키예 3위, 사우디아라비아 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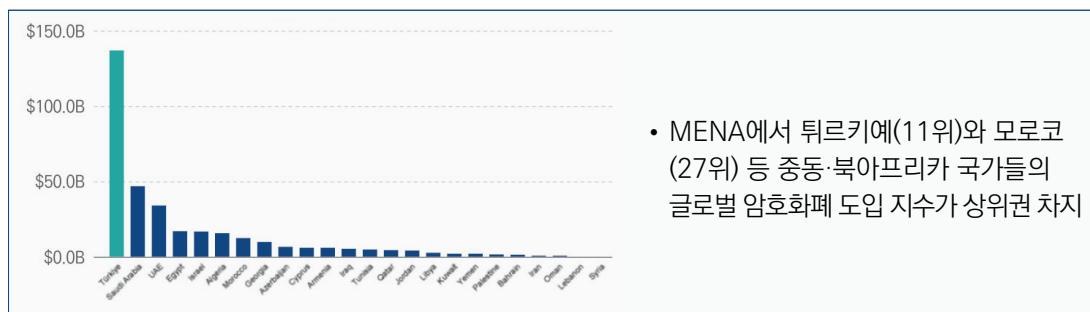
〈국가별 암호화폐 소유권 비중〉



자료: Coinledger.io, '23년

- (카타르) 디지털 자산 규정 2024 발표, 일부 가상자산 허용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육성 방향으로 정책 전환 시도
  - \* 암호화폐는 여전히 금지하면서도,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만든 ‘자산 토크나우’ 분야만 법적으로 허용
- (오만) ‘오만 비전 2040’에 따라 핀테크·블록체인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
  - \* ’23년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등록과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의무화
- (쿠웨이트) ‘쿠웨이트 비전 2035’에서 금융 안정 우선 기조를 유지
  - \* ’23년 7월 중앙은행 등 4개 기관이 암호자산 결제·투자·채굴 전면 금지 공포
  - \* 디지털화는 추진하되 암호자산은 질서 위협 요소로 차단
- (바레인) ‘경쟁력 비전 2030’에 따라 핀테크·디지털 자산 허브로의 도약 추진
  - ’22~’24년간 암호자산 면허제 강화 및 구체화, 증권·AML 규정 등 국제 기준에 맞춘 규제 체계 정비
    - \* 규제 투명성·안정성을 무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 유치 노력 지속
-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연간 1,368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취하여 중동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을 형성
  - 튀르키예는 리라화 약세로 암호화폐 참여율이 40~50%에 달하며,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이 GDP의 4%로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
  - ‘디지털 터키 전략(2023)’에 블록체인·암호자산 생태계 육성

### 〈MENA 국가별 암호화폐 도입지수〉



자료: Chainalysis, '23~'24년

- (이집트) ’20년 신은행법으로 무허가 암호자산 전면 금지
  - ‘Egypt Vision 2030’에서 디지털 금융 포럼을 핵심 과제로 설정
  - 암호화폐 배제 대신 전자결제·국가 디지털화폐 집중 육성
-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 전략’ 블록체인 금융기술을 스타트업 육성 전략에 포함
  - ’23년 증권청, 암호자산을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 추진
  - 중앙은행 디지털 실험·국채 토크나우 ‘Project Eden’ 성공, 샌드박스 운영
- (추진 현황) 중동 주요국들은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CBDC 발행 검토, 암호화폐 결제 시범 도입 등을 중심으로 제도권 편입 및 산업 활용 확산을 추진 중

- (UAE) 두바이 Cashless Dubai 일환으로 '26년까지 비현금 프로젝트와 UAE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은 '25년 상반기부터 암호화폐 결제 기반의 관광 산업 시범사업을 추진 중
  - \* 두바이는 주요 호텔과 쇼핑몰에서 암호화폐 결제 도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바이 Cashless Dubai 일환의 '26년까지 비현금 방식 전환</li> <li>- 두바이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DOF)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Crypto.com과 협력하여, 정부 서비스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li> <li>-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결제된 암호화폐는 AED로 환전되어 정부 계좌로 이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 코인 : UAE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 코인은 '24년 12월 UAE 중앙은행(CBUAE)의 최종 승인</li> <li>- Tawasul 교통부와 Mbank가 공동으로 아부다비 전역의 택시에 안정적 스테이블코인 AE Coin 결제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AE Coin = 1 AED로 환율 고정, 중앙은행 승인 스테이블 코인 기반</li> <li>* 공공교통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사례</li> </ul> </li> </ul> </li> </ul>

- (이집트) 중동 최초로 암호화폐 기반 농산물 거래 플랫폼을 '25년 하반기 시범운영 목표로 개발 중이며,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 논의 중

- (국내 기업 협력 사례)

- (두바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메타버스산업협회(MIPA), 파라메타(Parameta)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 협력 발표 '23.03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시) 두바이 DMCC, 한국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li> <li>- DMCC Crypto Centre를 통한 한국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두바이 진출 지원</li> <li>- 한국 기업이 UAE 내 디지털 자산 및 메타버스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li> </ul> |
|---|

### 3. 협력 기회

#### 가. 통상·G2G

- (무역협정) 튀르키예·이스라엘과는 FTA 체결·발효 완료, 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는 '23~'24년 순방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및 협상 체결(발효 준비 중)

##### 한국-MENA 국가 간 무역협정 체결 내역

단계	국가	추진현황	비고
발효	튀르키예	타결('12년 8월), 발효('13년 5월)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기준
	이스라엘	타결('19년 8월), 발효('22년 12월)	
서명·타결	GCC	협상타결 선언('23년 12월)	'07년 최초 협의 후 '21년 재개 공식서명 및 발효 준비 중
	UAE	협상타결 선언('23년 10월), 공식서명('24년 5월)	국회심의·비준 절차 등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효 협의
여건 조성	이집트	공동연구 MOU 서명('22년 1월)	-
	모로코	국회보고('24년 3월)	-

자료: 산업통상부, FTA포털

- (한-UAE CEPA) 한-UAE CEPA는 GCC 국가가 우리와 맺는 첫 무역협정으로, 미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빠른 체결로 선점 효과를 기대 중
  - 한국과는 공식 추진 합의('21년 10월) 후 약 2년 만인 '23년 10월 최종 타결했으며 '24년 5월 UAE 정상 방한 계기로 정식서명, '26년 중 발효 기대

##### 〈한-UAE CEPA 추진 경과 및 잔여일정〉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 품목 90% 이상에 대한 점진적 관세 철폐로 주요 수출 품목(자동차 및 부품·화장품·의약품·석유화학제품 등), 농축수산물, K-콘텐츠 등 중동 진출 발판 마련, 新통상의제 포함 14개 분야\* 내 양국 협력 체계 마련 등 효과 기대

\*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 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 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 (상품 수출) 한국의 對UAE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농·축·수산물 등 개수 기준 91.2%에 대해 관세 철폐
  - \*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비중은 37.4%, 10년 내 철폐되는 품목은 총 79.9%이며, 나프타는 유일한 관세 인하 품목으로 기준세율의 50%를 5년간 균등 인하
- (상품 수입) 한국의 對UAE 수입 품목 수 기준 92.3%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수입액 기준 총 97.6%가 한-UAE CEPA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
  - \* 수입액 기준, 즉시 철폐 품목 수입 비중은 7.9%,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 수입 비중은 총 70% 수준

### 한-UAE CEPA 상품양허 비교

양허유형	UAE 양허(對UAE 수출 품목)		한국 양허(對UAE 수입 품목)	
	품 목수	주요 품목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 철폐	2,942	의료기기, 화약 및 무기류, 주요 자동차 부품, 직물, 화장품, 귀금속,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 등	6,717	LNG/LPG,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백시멘트, 카놀라유, 대추야자 등
5년 철폐	953	항공기용 엔진, 압연기용 를, 기계류 (드릴링머신 등), 폴리에스테르섬유 등	1,168	빵 및 비스킷, 초콜릿, 과당시럽, 향신료, 데님의류, 화장품 등
10년 철폐	2,385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제트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항공·철도차량 부품, 전복, 고등어 등	441	원유, 병커C유, 아스팔트, 합성수지, 비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밀가루, 양고기 등
관세 인하	4	나프타(5년간 5 → 2.5%)	1	나프타(5년간 0.5 → 0.25%)

자료: 무역협회, KOTRA 제공

### ※ 한-UAE CEPA 상품양허 이외 주요 내용

- 서비스무역
  - UAE FTA 최초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 개방
  -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 허용
  -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및 시청각 서비스의 UAE 기체결 FTA 최고 수준 개방
- 경제 협력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망 등 에너지·자원 협력 내용을 포함
  - (스마트팜) 양국의 주요 관심분야인 농업 협력을 구체화하여 실질적 협력 기반 구축
  - (바이오) 연구소·기업·투자자 간 공동연구지원, 바이오 공급망 협력 강화
  - (디지털) 디지털 정부,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강화
- 정부 조달
  - 한국 공급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내국민대우) 및 조달 계약과 무관한 추가 조건 요구 금지
  - 조달 애로 발생 시 사법기관·독립심사기구 이의 제기를 통한 문제 해결 보장

## □ (G2G)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AI, 제약, 바이오, 스마트팜, 방산, 스마트제조 등 미래 혁신 산업 분야의 공동 생산, 핵심 기자재 및 부품 공급망 구축 등 다각적 부문 협약 체결
  - 스마트시티, 스마트인프라 등 중동국가 도시화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 발주 증가에 따른 공동 사업 참여 기회 및 기술 협력 확대도 유망하며 G2G의 G2B, B2B로의 확장 기대

### 한-중동지역 국가 간 체결 무역협정·업무협약서 주요 내용

안건 명	세부 협력 내용	비고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24년 5월)	① 탄소포집 및 저장(CCS) 협력 ②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 ③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공동 개발 전략적 합의 ④ 공동 원유비축사업 확대 ⑤ 석유화학 공동 투자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설립(메디톡스-Tecom Group) 계약의향서 등 '23년 정상 순방 이후 안건 구체화,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의지 표명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23년 10월)	① 한국(92.8%), UAE(91.2%)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 철폐 ② UAE FTA 최초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 개방 ③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등 포괄적 경제 협력 확대	중동지역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UAE를 우회수출기지로 활용 및 공공 조달 분야 기업 애로해소로 UAE 공공 프로젝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한-이집트 방산 분야 무기공급 계약 체결 ('22년)	① 최대 2조 원 규모 K-9 패키지 수출계약 체결 ('22년 2월) ② 고등훈련기 FA-50 100대 공급 협상 진행 단계, 36대 우선 주문 의사 표명	중동 주요국 무기 수출 계약 수주에 따른 인지도 향상, 이집트 주요 방산물자 노후화로 인한 높은 교체 수요 등 방산 분야 협력 확대 전망
한-이스라엘 FTA ('22년 12월 발효)	① 한국(95.2%), 이스라엘(95.1%)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 철폐 ② 서비스·투자 및 기술협력 등의 증진 ③ 창업분야 협력 강화 부속서	기술 협력 부문을 도입한 한국의 최초 FTA로 빅데이터, IT, 생명공학기술,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개정('21년)	① 공동 연구 개발기금(코릴펀드 등) 각국 출자금액 증액(기존, 200만 달러 → 400만 달러) ② 공동 R&D 정부 최대지원비율 확대 ③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 적극 확대 및 기금 지원 범위 확대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Lighthouse Program)으로 양국 간 공동 기술 개발 지원 확대 * '22년 로봇 분야(530만 달러)를 시작으로, 추후 자율주행, 수소 등의 분야로 확대, 기존 기업 간 매칭 방식에서 2+2 산학연 협력 방식
한-튀르키예 과학기술 및 R&D 분야 협력 강화 협의 ('18년)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 대응을 위한 ① 태양광, 원전 등 新대체에너지 ② 테러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③ 방위산업 분야 신기술 등 협력 과제로 논의	튀르키예 방위산업 육성 강화 및 스마트시티 확대에 다른 에너지믹스 수요 다대

## 나. 프로젝트

### □ (유망 프로젝트)

- 정상 순방 시 각 산업부문별 부처 및 공공기관, 개별 기업 단위의 협력 의제 공유 및 MOU 체결 → 해당 부문 프로젝트 민관 협업 진출 유망

#### 최근 정상 순방 연계 한국-중동 국가 간 협력 의제

국내 기관	국가	해외 기관	협력 내용	협약시기
한국무역보험공사		에티하드 신용보험(ECI)	수소 협력	'22년 1월
방위사업청		국방부	방위산업 및 국방 기술 중장기 협력 외	'22년 1월
한국수출입은행		아부다비 석유공사	수주 제고 위한 금융망 구축	'22년 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부다비보건청 외	보건의료 분야 협력	'22년 1월
산업통상부 외	UAE	산업첨단기술부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협력	'23년 1월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24년 5월
국토교통부		에너지인프라부	에너지 인프라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24년 5월
산업부		산업첨단기술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	'24년 5월
한국전력공사		원자력공사(ENEC)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	'24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기관(SFDA)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	'23년 10월
산업통상부 외	사우디 아라비아	에너지부 외	청정수소 협력 확대	'23년 10월
한국전력공사 외		국부펀드(PIF)	그린수소·암모니아 개발사업 협력	'22년 11월
특허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협력 동반관계	'22년 1월
국토교통부	카타르	공공사업청	건설·건축분야 첨단기술 협력	'23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카타르개발은행	중소벤처기업 교류 및 투자 확대	'23년 10월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방연구개발 및 방산군수 협력	'22년 2월
산업통상부 외	이집트	상업청 외	무역·투자·금융·인프라 협력	'22년 1월

자료: 경제외교 활용포털

###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G2G 경제협력 의제를 활용해 G2B, B2B 등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현지 수요 대응

- (원전) 신규 원전 개발 및 확장 수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 수요 등 UAE 바라카 원전 성공 운영을 바탕으로 중동 원전 수출 확대 방안 모색
  - UAE,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등 원전 및 소형 원자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
- (인프라) 에너지(복합화력, 수소, 신재생 등) 및 신도시·스마트시티·교통(철도·공항 등) 등 건설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진행 중이거나 예정에 따른 협력 기회 모색

- (ICT·스마트시티) 중장기 국가 비전을 통한 서비스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 개발 수요 대응
- (방위산업) 중동 내 긴장 고조에 따른 한국과의 방산 협력 수요 급증으로, 무기류 수출 외 중동 생산라인 설립을 통한 거점화, 합작투자 등 현지 방산 Value Chain 참여해 입지 확대 및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구축
- (스타트업) 한-UAE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등 협력의제를 활용, 혁신기술 및 게임 서비스 등 콘텐츠 진출 확대, 6G·AI·제약 바이오·스마트팜·방산·스마트 제조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모델
- (관광·서비스)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을 기회로 디지털 혁신기술이 결합된 관광·서비스·IT 솔루션 등 분야 진출 및 현지 기업 합작 유망



### 정상외교 연계 협력 유망 분야 '25년 수주 성공 사례

- 삼성E&A, UAE 타지즈(TAZIZ)사와 17억 달러(62억 디르함) 규모의 UAE 최초 메탄올 공장 건설을 위한 EPC 계약 체결
  - 본 메탄올 공장은 알 다프라(Al Dhafra) 지역에 위치한 알 루와이스(Al Ruwais Industrial City)에 건설되며, '28년 완공하여 연간 약 180만톤의 메탄올을 생산할 예정
  - 타지즈사는 본 메탄올 공장은 청정에너지를 사용,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메탄올 공장이 될 것으로 전망. 세계적 규모의 화학 생태계를 조성하여 UAE를 글로벌 화학제품 생산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

## 다. 공급망(자원개발)

- 중동 지정학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해당국 동원령 등으로 인한 핵심품목 공급 차질 우려, 단기적으로는 **对이스라엘 수입의존도(99.5%)가 높은 브롬수급 리스크가 높아 미국·인도·요르단 등 대체선 확보 필요**

\* 중동은 원부자재는 풍족하나 원유·천연가스 외 미개발건이 많아 공급망 협력 품목 수는 제한적



### 중동 사태 발생 시 핵심품목 모니터링 및 대응 우수 사례

- (개요) '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사태 발생 시 핵심품목 공급망 수급 동향 파악 실시
- (내용) 7대 국가 고의존 품목 및 국내 기업 수입 품목(이스라엘 반도체 장비 등) 일일 보고체계 가동
  - \* 현지 생산기업, 국내 수입 기업 인터뷰도 병행하여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입 기업의 재고량 파악
  - \*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브롬, 브롬화나트륨)은 대체공급처 정보 현행화 완료

### 공급망 핵심 품목 중동 고의존 품목

주요 품목	수입 통계('24년 기준)			용도
	수입국(순위)	수입액(천USD)	비중(%)	
브롬	이스라엘(1위)	3,725	99.9	난연제(살충제, 위궤양 치료제 등)
브롬화나트륨	이스라엘(1위)	885	50.3	진정제, 수면제, 살균제 등
에틸렌글리콜	사우디아라비아 (1위)	99,979	44.7	부동액 원료, 페트병 합성 원료
2-에틸헥실알코올	사우디아라비아 (1위)	16,040	50.9	PVC 가소제(유연성, 탄력성 향상), 윤활제, 계면활성제 등의 중간 원료
에틸렌디아민	사우디아라비아 (1위)	7,152	49.4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 섬유 제조, 비료
헬륨	카타르(1위)	15,411	65.0	냉각제(반도체 노광·증착공정), 레이저 용접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요르단(1위)	22,993	64.2	난연제(내연성능 강화제)

- 중동지역 지정학 리스크 고조 시, 고의존 품목 수급 불안에 따른 경제안보 위협 사전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 비상 일일 보고 체계 가동 및 모니터링 시행
  - \* 산업부(산업공급망정책과), KOTRA(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 수급대응지원센터 등과 동향 점검 및 일일 보고 체계 가동 → 관련 품목 생산·운송 차질 여부, 가격 동향 모니터링

## 고의존 품목 생산 국가별 동향

품목	국가	주요 내용
<b>브롬*</b>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rael Chemical社와 美 Lanxess社 등 소수 기업이 글로벌 수요의 70% 이상 공급</li> <li>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전량 수입 중이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에 따른 동원령으로 인력 부족 및 생산 차질 가능성, 대체선 확보 필요</li> </ul>
	요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르단은 세계 2위의 브롬 생산국으로 사해에서 브롬 및 그 유도체를 생산 중, 요르단에 생산되는 모든 브롬은 Jordan Bromine社를 통해 생산</li> </ul>
<b>중조*</b>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튀르키예는 독일, 중국에 이어 전 세계 중조 수출국 3위 기록, 튀르키예 내 중조 생산기업 3개 기업의 독과점체제로 한국의 중조 수입의 10% 차지            * 중조 생산기업 : Eti Soda, Kazan Soda, Sise Cam 등 3개사 독과점)         </li> </ul>
<b>붕소</b>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튀르키예는 세계 붕소(Boron) 매장량의 73%를 차지하며 최대 생산 및 수출국            * 붕소 생산 및 판매 : 국영기업인 에티마덴(Eti Maden)사가 독점</li> </ul>
<b>부탄다이올*</b>	사우디 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우디아라비아 내 유일 기업으로 SipChem 계열사인 Internatioanl Diol Company이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럽 및 인도 등 기존 거래선으로 수출 중인 상황            * 연간 약 6.2만 톤 수준의 생산 및 수출(사우디아라비아 내 수요 없음)</li> </ul>
<b>인산*</b>	요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에서 5번째로 큰 인산염 매장량(약 37억 톤) 보유, 요르단 최대 인산생산 기업인 JPMC는 외국 기업과의 신규 합작 투자, 채굴량 증가 등 추진 중            *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이스라엘 등에서 주로 수입</li> </ul>
<b>인광석</b>	모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료 원료인 인광석 5백억t 세계 매장량 1위(모로코 70%, 기타 30%)</li> <li>모로코 인광석 공사 OCP는 2016년 모로코 Jorf Lasfar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설립한데 이어 '25년 Jorf Lasfar공장의 생산량을 3백만 톤으로 증설</li> </ul>
<b>(농업용) 요소</b>	오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부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 모잠비크, 태국, 네팔, 인도, 스위스 등 4개 대륙 14개국 이상에 요소 수출 중</li> <li>오만 OQ Group의 자회사인 Oman-India Fertilizer Company가 주요 제조업체</li> </ul>

\* 핵심관리 품목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116
2. 진출전략 118

# III

## 진출전략



### 1. PEST/SWOT 분석

#### PEST 분석



##### 정치정책(Political)

- (대내) 이스라엘-이란 휴전, 이스라엘-하마스 평화 구상 합의(가자지구), 시리아 종전 등 중동을 둘러싼 분쟁 상황 급변, 불확실성 확대
  - 분쟁지역 정치개혁 요구, 경제 악화에 따른 산발적 시위 등 혼란 상황 지속
  - 분쟁 이외 지역 분쟁지역 이외 국가의 정치적 중립 견지 및 경제 협력 등 실리외교 흐름, 자주국방 목표 방산·보안 투자 증대
- (대외)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 핵협상 압력 확대, '25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는 등 두 국가 해법에 힘을 실으면서 분쟁 해결의 국제적 압력 강화
- (협력기구) 브릭스(BRICs)에 이란·UAE·이집트 정회원국 참여('24년 1월), G7 견제 등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 (통상협정) 한-UAE CEPA 체결('23년 10월) 및 정식서명('24년 5월), 한-GCC FTA 체결('23년 12월)에 따른 조속한 발효 요구 확대



##### 경제(Economic)

- (GDP) '26년 MENA 경제 성장률은 3.7%로 전년 대비 0.4%p 상승 전망
- (유가) 연평균 유가 65달러 내외로 유지·저가 지속 전망
  - \* '25년 균형재정유가 : UAE(50.4), 사우디아라비아(92.3), 카타르(44.7), 쿠웨이트(80.2), 이란(163.0)
- (프로젝트) 인구 증가 및 도시화 가속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탄소중립을 위한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투자 유치 주력
- (산업 다각화) 제조업 자립, 디지털산업 중심 글로벌 허브 선점 경쟁
- (규제) GCC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확대 및 현지화 강화 추세



##### 사회문화(Social)

- (인구) 일자리 창출, 도시화에 따른 젊은 국외 근로자 인구 유입 가속화
- (수요 패턴) 젊은 인구 중심 디지털 인프라·SNS 활용률 급증, 라이프스타일 개선 및 친환경·건강 중심 소비자 수요 패턴 변화
- (문화)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의식주 문화 형성, 이슬람 가치 중시 속 문화·의식 개방 분위기 확산으로 관광·콘텐츠 등 시장 확대
  - \* 중동·아프리카 무슬림 인구 5.7억 명(전 세계의 약 23% 추정)
- (구매력) 여성 무슬림 인구의 경제활동 증가, 구매력 향상 추세 뚜렷



##### 기술(Technological)

- (AI) 정부 주도 AI 산업 선점을 위한 움직임 확대, 미국 정부 및 하이퍼스케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AI-Native 경향 뚜렷
- (첨단산업) 항공우주, 전기차, 바이오의료 등 첨단 제조업 프로젝트 활발, 기가 프로젝트에 따른 디지털 정부, 도시 디지털화로 스마트팜·스마트시티·스마트 의료 등 기술 협력 각광
- (스타트업) 빅데이터, AI 기술, 로봇, 자동화 등 생활 혁신형 기술개발 투자 및 스타트업 지원 확대

##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의료, 스마트팜 등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 기술 경쟁력
- 문화 개방에 따른 SNS 이용률 증가와 함께 K-콘텐츠 인지도 급격한 상승
- 한국 기업의 인프라·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관련 공기 준수·운영·기술 등 전반 레퍼런스 기반 선호 형성
- 활발한 민관 현지 진출 기반 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 약점(Weakness)



- 정치·문화적 차이에 따른 진입장벽으로 진출 초기 네트워크 부족
  - \* 왕정·관치(관료주의)로 행정 절차 해결에 애로
- 국부펀드의 대규모 투자 선호 성향에 따라 중소기업 진출 애로(대기업 위주 진출)
- 최소자본, 설비 투자 요구 등 초기 투입비용 충당할 자본력 부족
- 신재생에너지, AI 등 고부가 산업부문, 미국·유럽 등 대비 선점 경쟁에 열위

### 기회(Opportunity)



- AI,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이니셔티브, 정부 주도 공격적 투자 지속
- 첨단산업, 미래 에너지 등 기술 협업분야 국내 기업과의 협력 수요 확대
- 한-UAE CEPA, 한-GCC FTA 체결 등 국가 주도의 중동 주요국과 협력 강화
  - \* 경쟁국 대비 빠른 무역협정으로 선점 효과
- 이스라엘-이란 휴전, 시리아내전 종식 등 분쟁 소강 흐름 속 재건시장 참여 기회

### 위협(Threat)



- 분쟁 상황 극변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 취약한 물류 안보로 비용 상향 평준화
- 저유가 기조 지속에 따른 산유국 재정안정성 악화가 사업 지속성에 영향
- 유가에 연동된 민감한 경제구조
- 현지화 정책에 따른 프로젝트 참여 제한요인 및 인력 활용 애로
- 중국·인도·이집트 등 신흥국 가격 경쟁력 기반 진출로 점유율 확대

###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을 적극 앞세운 협력 관계 형성, 국부펀드 AI 산업 등 관련 수요 대응
- 젊은 인구가 견인하는 핫스팟 소비시장 공략

AI생태계 진입을 위한 전략적 협업

###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지정학 위기 속 국방 안보 자립화 협력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및 방산 수출 확대

###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 기반 유망 품목 공략
-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회 포착, 기술협력

한GCC FTA 등 통상 협력 활용 진출 확대

###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제조협업으로 현지화 규제, 물류 리스크 등 극복
- 제재·분쟁국, 재건수요에 대한 사전 준비

제조 자립화 협력 및 재건시장 진출 위한 기반 조성

## 2. 진출전략

### 2026년 진출전략

#### 주요 이슈 또는 산업

##### AI 생태계

##### AI-Native 생태계 진입

##### 첨단제조

##### 첨단산업 제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 경제안보

##### 정상외교 기반 파트너십 확대

##### 소비시장

##### 젊은 중동, 인구보너스로 성장하는 소비시장 공략

##### 재건시장

##### 휴전 및 종전 분위기 대체시장 공략

####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① AI-Native 생태계 메인스트림 진입을 위한 전략적 협업
  - \* 중동 국가 장기 비전의 최대 핵심요소인 AI 관련 美 등 하이퍼스케일 협업 본격화 단계, 전략적 협업 및 진출전략 필요
- ②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신재생에너지 전환 수요 대응
- ③ 국부펀드 중심 첨단산업 제조기지화 집중투자 흐름, 공급망 참여
  - \* 전기차, AI,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기술협력 및 GVC 참여
- ④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 인구 확장에 따른 도심 개발 및 교통 인프라 업그레이드 수요
- ⑤ 정상 협력 기반 산업·경제 파트너십 확대 및 성과 창출
  - \* 서비스 시장 최대 문호 개방 대상국 공략을 통한 선점 효과
- ⑥ 중동 지정학적 위기 속 국방·안보 자립화 협력 공고화
- ⑦ 젊고 수용도 높은 중동 소비시장, K-Lifestyle 수요 확대 대응
  - \* 한류 주소비 지역으로 떠오르는 중동, K-Lifestyle 진출
  - \* K-뷰티 성장세 활용한 화장품 진출 및 프리미엄 K-푸드 시장 공략
- ⑧ K-메디컬 수요 대응, 국내 의료 인프라 진출 활용 의료기기·의약품 수출
- ⑨ 재건 프로젝트 및 경제회복 수요 선도적 대응
  - \* 시리아 종전 등 이후 이미 시작 강대국의 재건시장 선점 경쟁
  - \* 인근국(허브국)을 활용한 제재국 및 인근 미개척 시장 진출 확대

미래 협력 + 변화 대응 + 대체시장 공략

#### 전략목표

글로벌 통상 전환기의 핵심 파트너  
글로벌사우스 미래를 여는 중동, 전략적 동반 성장

## 전략 ①

## (AI 3강) AI-Native 생태계 메인스트림 진입을 위한 전략적 협업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동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25년부터 'AI 네이티브' 전환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국부펀드를 기반으로 한 공격적 투자로 미국 등 전략적 협업 추진하며 선두 중
- 한국 기업은 기술력·윤리표준·데이터 활용 역량을 무기로 공공과 민간 AI 시스템 모두에서 협력 기회를 적극 확대할 필요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는 ① 메가 인프라(데이터센터, 리전), ② 정부 주도의 AI 규제·산업 전환 역량 확보, ③ 국부펀드 기반 대형 파트너십(G42-마이크로소프트, PIF Alat-소프트뱅크) 등으로 글로벌 AI 벤류체인에 '신흥거점'으로 진입
  - (UAE) 디지털 전환의제(D33) 성과지표 수립, 정부 22개 기관 CAIO<sup>Chief AI Officer</sup>를 임명, 엔비디아·아부다비 공동연구 랩 출범('25년 9월)로 로보틱스 및 차세대 침(Thor) 등 현지 R&D와 산업 적용의 연결고리를 강화

## UAE '25년 AI 관련 프로젝트·투자

시기	프로젝트/투자	규모(금액/용량)	주체
'25년 1월 29일	아부다비 'AI-native 정부' 전략('25~'27년)	35.4억 달러	아부다비 정부
'25년 3월 19일	'새 발전소·에너지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250억 달러/25GW	ADQ(UAE 국부펀드) ECP(미국 에너지 투자사)
'25년 3월 19일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에 글로벌기업 합류	1,000억 달러(잠정)	MGX, BlackRock, GIP, Microsoft, NVIDIA, xAI
'25년 4월 22일	초대형 데이터센터 두바이에 건설 계획	5.4억 달러	du(UAE통신사), Microsoft
'25년 5월 22일	'Stargate UAE'(AI 전용 데이터센터) 아부다비에 구축 계획	1GW *총 계획 용량은 5GW	G42, OpenAI, Oracle, NVIDIA, SoftBank, Cisco
'25년 7월 20일	제2회 UAE AI Award 2025 개최	-	UAE 정부
'25년 9월 14일	UAE 정부 최고 AI 책임자 50명, 10일간 미국 주요 빅테크 본사 방문	-	연방 AI 오피스 Dubai Centre for AI

-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산하 Alat 설립('24년 2월), 소프트뱅크 그룹과 전략적 제휴로 AI-제조업 융합 → 차세대 산업자동화 및 로컬 벤류체인 형성 기반 조성
- 요르단, 이집트 등 국가들도 자체 AI 전략을 수립하며 빠르게 뒤따르는 양상

###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AI 컨퍼런스 LEAP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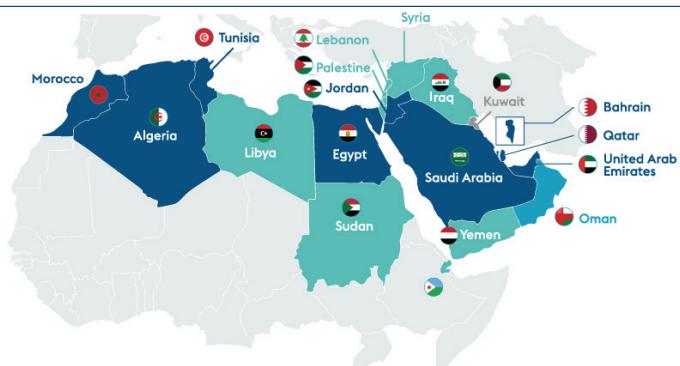


-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 MCIT·SAFCSP·Tahaluf가 주도하는 중동 최대 테크 컨퍼런스(‘25년 2월 개최)
- 전년 대비 차이점 : ‘24년엔 광범위한 테크 투자 위주였던 반면, ‘25년은 개막일에만 AI 투자 149억 달러를 일괄 발표하는 등 AI 인프라·플랫폼·인력에 정책·자본을 집중하는 흐름을 보임

자료: gulfbusiness.com

- (카타르) ‘스마트 정부 및 디지털 리더십 운영위원회’ 설립(‘25년 3월) 등 AI 기반 디지털 행정 혁신에 집중
  - ‘22년에 개설한 Azure 카타르 리전을 베이스으로 ‘25년 2월 Azure OpenAI를 공공 부문에 공식 적용하고 공공용 AI 사용 사례 구축을 위해 Scale AI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 서비스 위주 AI 전환 가속
  - 카타르 국부펀드 QIA는 Blue Owl과 디지털 인프라 파트너십을 체결(‘25년 9월), 미국 데이터센터·AI·헬스테크에 최대 5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
- 향후 ‘AI-네이티브’ 행정(정책 규제 설계 및 집행에 데이터·AI 활용)이 본격화되고 조달 요구서(RFP) 단계에서 온쇼어 처리·감사 가능성(추적·로그)·편향관리 등의 정밀 요건이 표준화될 가능성
- 공공서비스·에너지·교통·보건·금융 등 즉시 수익(ROI)이 확인되는 분야 중심으로 파일럿 시행, 민간으로 전환·확산 가속화 예상

### 〈중동 주요국 AI 정책 수립 현황표〉



#### ■ AI 전략 발표 완료(필호 안은 최초 공식발표 연도)

- UAE(‘17) : The UAE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31
- 요르단(‘22) : Strategy for AI and its 2023–2027 Implementation Plan
- 사우디아라비아(‘20) : National Strategy for Data & AI
- 바레인(‘19) :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Bahrain
- 모로코(‘23) : Morocco’s National AI strategy

- 카타르(‘19) : Qatar’s National AI Strategy

- 이집트(‘21) :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 ■ AI 전략 개발 중 : 오만

#### ■ 공식적인 AI 전략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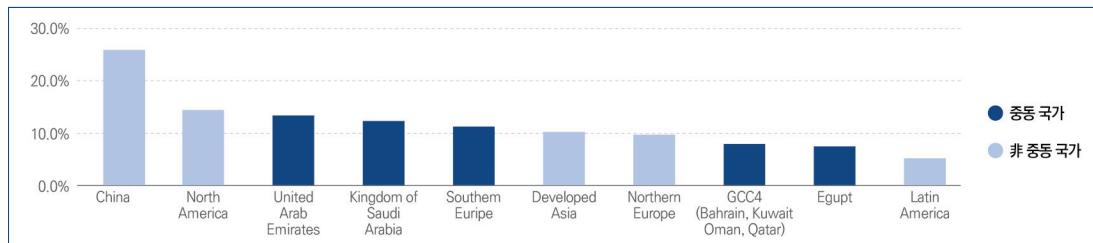
#### ■ AI를 우선순위에 두었으나 아직 전략은 미공표 상태 : 쿠웨이트

자료: Strategic Gears

□ 특정 진영에 소속되지 않는 개방적 협력 기조 기반, 왕정 주도의 국부펀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 도입·내재화로 빠른 성장세

- 왕실·최고지도자 직속 기관이 AI 전략 총괄하는 등 정부주도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R&D와 대규모 사업 추진 가능
  - (국부펀드) PIF<sup>사우디아라비아</sup>, Mubadala<sup>UAE</sup>, ADQ<sup>카타르</sup>, QIA<sup>카타르</sup> 등 국부펀드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 역할 수행, 기술 개발 필요시간을 M&A와 직접투자로 단축
  - (전략 방향)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데이터 주권 확보와 자체 LLM 거대언어모델 개발 등 기술 독립과 AI 생태계 조성에 집중
  - (시험 환경) 네옴, 두바이사우스 등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가 AI 기술 PoC 및 상용화를 위한 '리빙랩 Living Lab'이며, 통합 데이터 축적 용이
- 중동 AI 시장은 '24년 46억 달러에서 '33년 1,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성장 기조 확인

〈'30년 AI 부문의 GDP 기여도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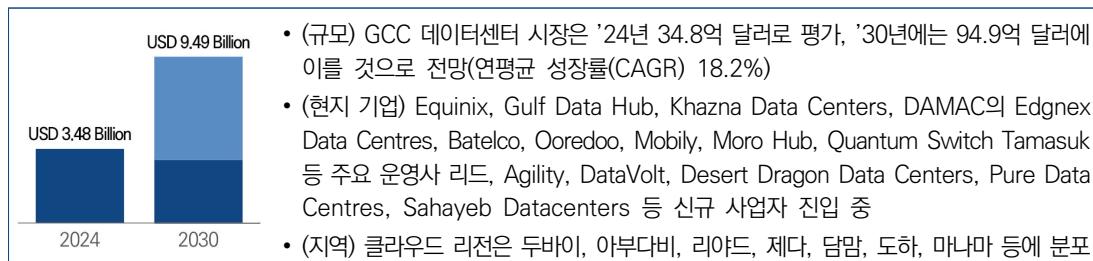


자료: PWC

□ 유망 품목 및 진출전략

- (AI 인프라)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AI 기초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수주
  - 디지털 혁신 투자 확대 및 온라인 이용인구 확장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다중임대 데이터센터 등의 복합적 요구 충족을 위한 모듈형 건설도 대안으로 제시

〈중동지역 데이터센터 현황 및 주요 현지 기업〉



자료: ResearchandMarkets

- 이미 한국은 데이터센터 구축 및 5G 보급 등 추진한 경험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운영 노하우 전수 및 관련 프로젝트 공동 추진 가능
- 데이터센터 구축 엔지니어링 및 시공, 전력 생산 및 공급, 냉각·운영·유지보수 등 분야 프로젝트 참여 및 기자재 조달 등
- (디지털 정부) 정부 서비스 및 응용분야 전반의 디지털화에 따른 사업 기회 포착
  - 석유 유통·관리 시스템, 차세대 에너지 개발 연구시설, 정부 서비스 및 응용 분야 전반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수요, 선제적 시장 진출 전략 마련 필요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CSP)뿐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서비스 기업(MSP)의 진출 유망. 현지화 이슈 및 산업의 정책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현지 협작법인 설립 등을 통한 진출 바람직
  - 정부 기관의 경우 기업 단독 진출 시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현지공관, KOTRA 등 현지 공공기관 사업 참여를 통한 연계 필요
- (스마트시티) 물류·통신·의료 등과 결합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진출 확대
  - 네옴 건설 등 기가 프로젝트 및 대형 스마트시티 연계 건설 자동화, 모듈러 건축, 프로젝트 관리운영 (PMO) 및 감리, 엔지니어링 공동 사업 참여
  - 한국 기업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IT·탄소중립·헬스케어를 결합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 등 진출 기회 모색 및 사우디아라비아·UAE를 중심으로 복합부문의 기가 프로젝트 인프라 공동 컨소시엄 참여
- (품목통합) 정부 정책과 시장의 관심도가 AI 산업에 집중됨에 따라 관련 전시회 및 상담회 등 현지 대형 이벤트 확대 추세
  - UAE의 GITEX 및 AI Week, 사우디아라비아 Global AI Show, 카타르 2026 GAIN Summit 등 중동 내 AI 특화 행사에 참여해 현지 바이어 및 정부 기관 네트워킹 및 제품 시연

#### 국내 기업 진출 우수 사례

국가	기업명	내용
사우디 아라비아	네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대중교통공사 SAPTCO(Saudi Public Transport Company)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24년 3월), 디지털트윈 기반 차량용 고정밀지도 및 AI 기반 지능형 CCTV 활용방안 등 효과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 협력 중</li> </ul>
	노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정부의 AI 과제 관련 KOTRA 두바이 무역관 주요 행사 참여(AI Week, ICT Road Show 등), 두바이교통청과 AI기반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li> </ul>
UAE	베스핀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디지털서비스 기업 e&amp; Enterprise로 부터 1400억 원 투자 유치, 협작법인 설립, UAE뿐 아니라 중동·아프리카·튀르키예 등 인근국가 클라우드 운영 관리와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li> </ul>

- (인재 육성·스타트업) 신기술 스타트업 진출 및 인적·기술 교류 협력
    - 사우디아라비아 Alat 등 주요 기관의 경우 AI 산업 관련 인력부족에 따른 인재유치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한 만큼 산학협력·인적·기술적 교류,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도 지속 확대될 예정
    - 스타트업 전시회·사업 참여 및 사전 투자가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개발 및 현지화, 법인 설립 및 스타트업 육성 기관 입주, 투자 유치 등 패키지 진출 검토
- \* GITEX Expand North Star 등 유망 전시회 연계 스타트업 피칭 및 전시 참여, MENA지역 주요 투자가 및 스타트업 생태계 인사 네트워킹 및 IR 기회 마련 등

### 중동 스타트업 지원 기관 및 주요 혜택

국가	단지/기관명	주요 내용
UAE	Dubai Future Foundation, Hub71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적 국가 이니셔티브(Entrepreneurial Nation Initiative) 도입</li> <li>• '31년까지 20개의 유니콘 기업 육성 목표를 설정</li> <li>• 민관협력 파트너십(PPP), 10억 디르함(약 3.7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 대출 지원, 비자 규정 완화</li> </ul>
카타르	Digital Incubatio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정보부(MCIT) 운영, ICT, 솔루션 및 서비스 중심</li> <li>• 사무 공간, 기술 지원, 교육 및 지도, 멘토링, 홍보지원 등 혜택</li> </ul>
	QFTH, Qatar Fintech H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타르개발은행(QDB, Qatar Development Bank) 및 EY(Ernst &amp; Young)의 협업 조직, 핀테크 중심</li> </ul>
요르단	StartupsJ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SF(Innovative Startups and SMEs Fund)의 지원을 받은 요르단 정보통신기술 위원회가 관리</li> <li>• 펀딩, 사무공간, 주요 기관 및 기업 네트워킹 제공</li> </ul>
이스라엘	Beer Sheva Innovation Distr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정부(혁신청) 운영. 하이테크 고임금 고용 인센티브 및 보조금, 우선 기술 인정 기업 세율 6~7.5% 인하 등 혜택</li> <li>• 스타트업이 지방에 연구 개발 시설이나 생산 시설 구축 시 정부가 전체 예산의 50~60% 지원</li> </ul>

### 〈2026년 주요 AI 행사〉



- GITEX(Gulf Information Technology Exhibition) Global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정보통신 전시회
  - 개최 예정일/장소 : '26년 12월 7일~11일 / Dubai Exhibition Centre
  - 주요 품목 : AI, 사이버보안, 클라우드/데이터센터, IoT, 블록체인,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테크, 가상/증강 현실 등



- Dubai AI Week
  - 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인공지능(AI)의 최신 기술, 정책,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적 기술 행사
  - 개최 예정일/장소 : '26년 4월 / 두바이 미래박물관
  - 주요 품목 : AI 거버넌스·인프라, 생성형 AI, AI 응용 솔루션 등



- GAIN summit 2026
  - SDAIA(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AI청) 주관의 국제 AI 정상포럼으로, 정부·산업·학계가 최신 기술·정책·윤리·산업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논의
  - 개최 예정일/장소 : '26년 9월 / 리야드 King Abdulaziz Int'l Conference Center
  - 주요의제 : 생성형 AI, 스마트시티, 데이터거버넌스·보안, 디지털의료·에너지·물류 등

### KOTRA 연계사업

장소	사업명	시기
두바이	두바이 AI Week 참가	4월
두바이	UAE 정보통신 전시회(GITEX Global 2026) 한국관	12월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기술 전시회(LEAP SAUDI) 한국관	4월
리야드	2026 중동 스마트시티 로드쇼	4분기

\* 사업별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KOTRA 홈페이지 참조([kotra.or.kr](http://kotra.or.kr)), 계획 변경 가능

## 전략 ②

##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신재생에너지 전환 수요 등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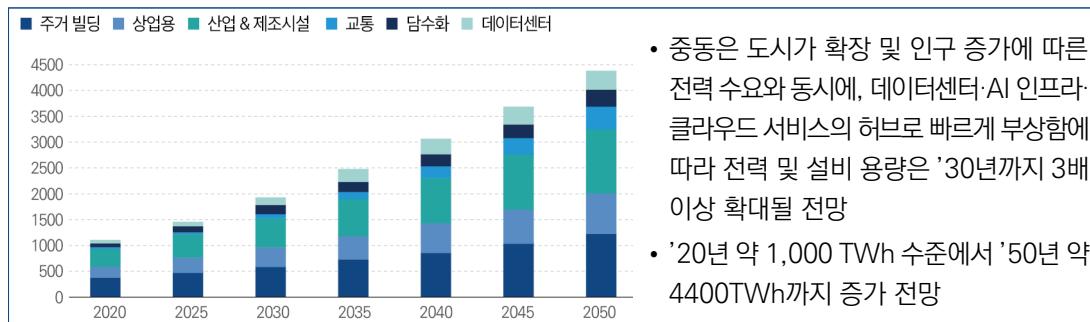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전력 수요 대응) '23년 기준 중동지역은 에너지믹스 중 화석연료 소비가 98%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탄소중립 관련 정책적 측면에서 슬로우 스타터(Slow Starter)이나 脱석유화 정책과 맞물려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국부펀드 투입과 정부 주도의 대외 협업으로 개발 가속화
- (재생에너지 전환) 脱석유화 정책과 맞물려 청정에너지 개발에 최근 막대한 국부펀드를 경쟁적으로 투입하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본격 가속화 단계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동은 AI 산업·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 주요 국가는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성장전략을 결합한 형태로 전력산업 구조를 재편 중

## 〈중동지역 전력 수요 현황 및 향후 전망〉



자료: IEA, PWC

-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제조업·데이터센터·수소·담수화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은 24시간 운영되는 수요탄력성이 매우 낮은 기저부하(Base Load) 전력을 요구
  - 도시의 동적 부하(Dynamic Urban Load)에서부터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산업 클러스터 (Industrial Clusters)에 이르기까지 전력 소비 구조와 지역적 분포를 근본적으로 재편
- 재생에너지 관련, 중동은 화석연료(석유·천연가스·석탄) 소비가 98% 수준\*으로 가장 높은 권역이며, 고온 기후에 따른 전력 소비로 1인당 탄소배출량도 높은 편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중동>CIS>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북미>유럽>중남미 순

- UAE가 '21년 중동지역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슬로우 스타터(Slow Starter)이나, 脫석유화 정책과 맞물려 청정에너지 개발에 최근 막대한 국부펀드를 경쟁적으로 투입하고 프로젝트를 구체화 하는 등 본격 가속화 단계
  - (UAE) '23년 COP 28 개최를 계기로 통합 미래 에너지 전략인 '2050 UAE 에너지 전략' 개정안 발표('23년 7월),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중 50%를 목표로 두고 있으나 '23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1.4%, 원자력 발전 3.7% 등 개발 초기 단계
    - \* Masdar 및 21.6억 달러 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7개 시작(태양광, 풍력 폐기물, 지열 등 포함)
  -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100%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에 따라, 태양·풍력 에너지 통합 '26년 까지 일일 최대 600톤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 84억 달러 규모 세계 최대 규모의 녹색수소 플랜트 건설 중
  - (오만) '22년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Hydrom(오만수소개발공사)를 설립,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플랜트를 목표로 두콤 프로젝트 발주, '40년 수소중심 경제 구축 목표
    - \* 두콤 경제특구에 5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 조성(67억 달러), '30년 그린수소 100만 톤/연 생산목표
    -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 오만이 '30년까지 수소 생산량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초기 비용이 높고 국영기업 위주로 추진되는 중동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구조상 정부 간 협업 기반 프로젝트 참여가 중요, 중동 주요 국가와의 경제외교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만큼 태양광·수소·CCUS·원전 등 에너지 전환 부문 진출 적기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수소) 수소 기술 도입 수요 러시, 현지 투자 및 합작사업을 통한 진출 도모
  - 정부 주도의 그린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프로젝트 시작 단계로 기술 도입 및 생산설비·기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 현지 투자 및 합작사업 형태 진출을 통해 참여 기업 간 기술 동향 공유, 공동 기획연구 추진
    - \* 정부·국제기구·민간협력,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통한 위험 분산 및 자금 조달 등 필요
  - 우리 기업의 제조·기술 강점을 활용한 그린수소 추출 전해조, 생산 및 운송 관련 모빌리티 분야 진출 기회 다대, 특히 대규모 수소 플랜트의 목표 물량 수출을 위한 초대형 암모니아 운송선, 저장 탱크, 항만 인프라 개발 등 부문 유망
    - \* PEM(양성자교환막), SOEC(고체산화물) 전해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



## 우리 기업 진출 성공 사례

- (오만) 포스코-삼성엔지니어링-남부발전, 두큼 그린수소 독점 사업 개발 및 생산, 부지 임대 계약 체결 ('24년 9월) \* 프랑스 엔지, 태국 국영석유공사(PTTEP)와 함께 3개국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 '27년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린수소 플랜트, 암모니아 합성 플랜트를 착공해 '30년 준공 예정이며 생산된 수소는 연 120만t 암모니아로 전환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
- (UAE) GS, 루와이스(Ruwais) 소재 타지즈 산업화학단지 내 연간 100만t 규모의 저탄소 블루 암모니아 생산 시설 지분 투자(10%)로 국내 수소연료 확보 예정
  
- (태양광) MENA 지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80%를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 발전사업 개발권 취득 및 국산 기자재 납품을 통한 동반 진출

### MENA에서 진행 중인 Top 10 재생에너지 프로젝트(US\$ 백만)

연번	국가	규모	분야	발주처	프로젝트 명
1	사우디 아라비아	2,880	태양광, 풍력	NGHC	네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	사우디 아라비아	2,799	태양광	Nawwar Renew/SPPC	2GW 아르라스(Ar Rass) 태양광
3	사우디 아라비아	2,400	태양광	SPPC	알 사다위 1(Al Sadawi 1) 태양광 IPP 2000MW
4	사우디 아라비아	2,000	태양광, 배터리 에너지 저장	Red Sea Global	아마알라(Amaala) : 유틸리티 패키지
5	사우디 아라비아	1,660	태양광	PIF	독립 발전소(IPP) : Humajj Solar IPP 3000MW
6	UAE	1,500	태양광	EWEC	알 아즈반(Al Ajban) 태양광 IPP 1500MW
7	UAE	1,500	태양광	EWEC	알 카즈나(Al Khazna) 태양광 PV IPP 1500MW
8	사우디 아라비아	1,500	태양광	SPPC	알 헤나키야 1(Al Henakiyah 1) 태양광 IPP 1100MW
9	이집트	1,500	풍력	Suez Wind Energy	수에즈 풍력 발전소 IPP 1100MW
10	사우디 아라비아	1,360	태양광	SPPC	알 마사(Al Masaa) 태양광 IPP 1250MW

자료: MEED Projects('25년 11월)

- 민관·해외 기술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개발 추진으로 입찰 경쟁력 확보, Turn-Key 사업방식을 활용하여 핵심 기자재 대중소 동반 진출 전략
- 고효율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기술(ESS), 스마트 그리드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중동지역의 고온과 사막 환경에 적합한 내구성 강한 태양광 패널 및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므로 현지 기후에 맞춘 맞춤형 기술 제공이 필수



### UAE 태양광 발전 민관 동반 진출 우수 사례

- (UAE)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 UAE 수전력공사(EWEC)가 발주한 아즈반 1.5GW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주('24년 6월 착공, '26년 완공 시 연평균 예상 발전량 4.5GWh), 이를 기반으로 '25년 알자프자 태양광을 추가 수주하는 등 성과 지속
  - 한국 기업의 수주한 태양광 발전사업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규모(30년간 3조 원 매출 전망)
  - 입찰 과정에서 3천만 달러 이상의 한국산 기자재 사용을 관절, 동반 진출 성공 사례 창출

- (원전) 원전 운영 안정화 및 신규 원전 발주 대응

- (운영 안정화) UAE 바라카 원전은 한국형 원전 APR1400 4기로 구성, '12년부터 순차적으로 건설을 진행하여 '24년 9월 마지막 4호기 상업운전 시작
  - \* 바라카 원전 4호기 연간 생산량은 약 40TWh,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며 2,100만 톤의 CO<sub>2</sub>(휘발류/경유 차량 320만 대 분)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
  -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 진출 성공 사례로, 건설공기 준수부터 설계와 운영 및 정비까지 한국의 기술·관리역량을 인정받아 향후 원전수주에 긍정적, 지속적인 발주처 교감과 운영 지원으로 한국 기자재의 지속적인 공급 필요
  - \* 우리나라, 원자로 부속품, 방사능 방호장비, 연료 처리 시스템, 핵연료 등 주요 원전 기자재 對UAE 수출 품목 상위권 포진
- (신규 원전 수주)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석유의존도 절감을 위해 UAE는 COP 28을 통해 '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 선언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30년까지 원전 2기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프로젝트 추가 발주 예정

### 중동지역 신규 원전 프로젝트 관련 이슈

국가	최근 주요 이슈
사우디 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8GW급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 한전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입찰 준비 중이며 '25년 11월 입찰 진행('25년 10월)</li> </ul>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신규 원전(바라카 5~6호기) 건설 고려 중이며 기존 바라카 발전소 인근 가능성도 시사('24년 4월)</li> <li>UAE 원자력 에너지 회사(ENEC)와 한국의 현대엔지니어링&amp;건설(Hyundai E&amp;C)이 국제 원자력 에너지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25년 7월)</li> </ul>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튀르키예가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미국 및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25년 10월)</li> </ul>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수원은 엘-다바 2차축 구조물 건설 공사 수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사로 참여 중으로 '29년까지 터빈건물, 수처리, 냉방시설 등 총 82개의 구조물 건설 예정. 향후 추가 발주가 예상되는 원전 구조물 건설 프로젝트도 수주 가능성</li> </ul>

- 원전 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현지화와 기술 협력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원전 강국인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로 중동 국가의 현지화(Localization) 요건 및 기술 협력 수요 등을 파악해 공략
  -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튀르키예 아크쿠유 원전에도 현지 건설 기업 1社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사는 아크쿠유 원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놉 원전 참여에도 관심이 있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사업비용충당을 위한 적정 전력단가 설정, 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관련 보증 등에 대한 양국 간 합의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 등은 전력망 연결에 유리한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으므로 관련 수요 파악 및 기술 협력 제안

### KOTRA 연계사업

장소	사업명	시기
두바이	경남 원전 전력기자재 사절단	5월
두바이	WETEX 연계 신재생에너지 사절단	9월
이스탄불	에너지/전력기자재 사절단	3분기
카이로	2026 한-이집트 전력에너지 GP	8월

\* 사업별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KOTRA 홈페이지 참조([kotra.or.kr](http://kotra.or.kr)), 계획 변경 가능

## 전략 ③

## 국부펀드 중심 첨단산업 제조기지화 집중투자 흐름, 공급망 참여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국부펀드의 약 40%를 차지하는 GCC 국부펀드, 국가별 미래 경제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산업 및 제조업 투자 기조 확대
- 현지화(자국 내 부가가치 생산 및 자국인력 활용)를 위한 현지 합작법인 설립, 기술 이전, 생산공장 설립 등 생산기지화를 통해 중동 및 인근 지역으로 진출 확대 기회 모색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Make in MENA)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위하여 제조산업 체계를 다변화하고 자국 내 밸류체인 육성을 위한 R&D 및 시설 투자 활발
  - (GCC) 국가 비전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담은 산업전략계획을 활발하게 제시, 국부펀드의 운용 비중이 기존 ETF 등 해외투자에서 산업 육성책으로 이동
    - 전 세계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투자하며 글로벌 기업·VC와 협력을 통한 전 세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추진에도 적극적
  - (GCC 외) 튀르키예, 이집트 등 제조산업 기반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중간재 국산화 및 제조업의 고도화 추진

## GCC Oil Five 국부 펀드 최근 투자 동향

국가	국부펀드	첨단산업·제조업 육성 관련 투자내역
Saudi Arabia	PI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산업 육성 위한 Alat 설립, 우주항공 투자사 Neo Space Group 설립, 전기차 스타트업 Lucid 지분 60% 보유(제다시제조공장 설립) 등</li> </ul>
	A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자율주행 산업단지(SAVI) 조성</li> </ul>
UAE	MUBADA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유화학(Mubadala Energy)과 금속(Emirates Global Aluminum) 및 항공(Strata), AI 등 아부다비 정부 중점 육성분야 투자</li> </ul>
	Q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테크, 에듀테크, 헬스케어 등 산업육성을 위한 벤처펀드 첫 조성</li> </ul>
Kuwait	K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테크(EnerTech) 전액 출자, 청정 에너지 및 순환 경제, 폐기물 처리 등 녹색분야 투자 확대</li> </ul>

- (현지화 강화) GCC 주요 국영기업을 필두로 자국 부가가치 및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는 현지화 프로그램 강화를 운영하여 실업률 해소와 인력 육성 도모

### 국가별 현지화 제도(규제) 내용

국가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 지역본부 정책(RHQ), IKTVA(현지화율 60% 이상 달성)
UAE	• ICV(In country Value) 자국 내 생산 부가가치 강화
카타르	• 타힐(Ta'heel) 이니셔티브(프로젝트 현지 기자재 활용 장려), 타우틴(Tawteen) 프로그램(에너지 분야 공급망 현지화)
쿠웨이트	• 벌주처 벤더 등록 및 사전 품질검사(PQ) 완료, New Tender Law(입찰법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GCC 진출) 강화되는 현지화 리스크를 해소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제조산업 분야의 효율적 진출을 위한 합작투자, J/V 등 진출 협력 모색
  - (합작투자) 제조업 분야 기반 확립과 규제 해소를 위해 현지 국영기업 및 투자공사와 정책기금 활용
  - (정책기금 활용) 진출 희망국 전략 육성분야 및 중점 파트너십 분야의 국부펀드 및 정책기금을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파트너십 지원 모델 개발
  - 특히, UAE는 산유국의 산출물인 석유를 활용하는 석유 플라스틱 화학 산업 및 높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금속제련 관련 제조업을 집중 육성
- (튀르키예 진출) 탄탄한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중동 내 주요 생산기지로 중간재 생산 강화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 수요 증가
  - 제조업의 디지털화 및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활용하여 단순 제품 수출에서 벗어나 기술 공동 개발, 자금 투자, 판매 대행 등으로 협력분야 다양화 추진
  - GP 핀포인트 상담을 통한 현지 가전업체 공장 자동화 솔루션, 용접기기, 산업용 로봇 등 생산 설비 수요 대응

\* 완성품 제조업 위주로 산업 발달, 전체 제조의 60%를 수출하고 있으나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는 74% 차지



### 우리 기업 협력 사례(중동형 GVC 참여, 투자 진출 사례)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기업 S社, 캐나다, 스페인, 일본, 중국과 경쟁 끝에 Ceer에 차체 부품 공급자로 최종 선정('24년 7월), 현지에서 개발해 '26년부터 연간 4,000억 원 규모 예상
- (UAE) 국내 철강기업 S社, UAE 제조 기반 확보 후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에너지 프로젝트에 강관제품 공급, 타 중동국에 전진기지로서 활용
- (튀르키예) 자국 전기차 브랜드 토크(TOOG) 관련, 코자엘리에 소재한 한국 기업 C社는 토크의 차체를 만들어 납품 중. 또한 C社에서 생산한 차체를 현지 진출 다국적기업 나社에도 납품
- (이집트) 베니수에프 산업단지에 태블릿PC 공장 건설, 연간 TV 200만 대 및 태블릿 70만 대 생산 중, '23년 6월에는 베니수에프주에 6,000m<sup>2</sup> 규모 부지 연간 500만 대 휴대폰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 (이집트·마그레브 진출) 중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배후 생산기지로 활용
  - (알제리) 천연자원 의존도 해소를 위한 산업 다각화 추세, 자동차 부품·가전 등 분야 현지화 수요 높으나 기술적 숙련도 이슈, 대안으로 고려 가능

### KOTRA 연계사업

장소	사업명	시기
두바이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한국관	12월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디자인 인테리어 전시회(INDEX SAUDI) 한국관	9월
카이로	한-아랍 제조업 비즈니스 파트너십	5월
알제	알제리 자동차 부품 무역사절단	3월
이스탄불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ageing Istanbul) 한국관	10월

\* 사업별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KOTRA 홈페이지 참조([kotra.or.kr](http://kotra.or.kr)), 계획 변경 가능

## 전략 ④

##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동지역 국가 대부분 최근 50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세,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대한 전반적인 도심 인프라 확장 및 노후 시설 재정비에 대한 수요 확대
- 지속적인 상업·주거지 개발 중, 장기적 대비가 필요한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계속
  - 공항, 고속철, 지하철 등 교통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ITS·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 도입 가속화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급격한 인구 유입(증가)으로 도시 확장 수요 발생
  - (UAE) 아부다비·두바이 모두 도심 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 현재 두바이를 중심으로 UAE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른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 활발
    - 두바이 2040 도심개발 계획(2040 Urban Master Plan) 추진, '33년 인구 600만 '40년 인구 780만 도시로의 성장 준비를 위해 도심 내 5개 거점 개발
      - \* 녹지·레크리에이션 공간 2배 확대, 도심 내 지속가능한 이동 수단 개발, 호텔·관광목적 토지 134% 확대, 상업지역 168km<sup>2</sup> 확대 등 계획
      - \* 국제 금융 허브, 지식경제·혁신 중심, 국제전시·이벤트, 관광·엔터테인먼트, 역사 지구 등 특성화
    - 더 많은 인구 수용을 위해, 현재 해안선을 따라 개발된 두바이의 내륙지역 및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남부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
      - \* 알막툼 신공항 이전, 두바이 엑스포 2020 단지 개발, 두바이 3호선 프로젝트 등으로 생활권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는 '24년 35억 달러 규모의 도로 확장 계획을 발표
    - 리야드에는 고급 쇼핑몰 Via Riyadh가 '24년 새로 개관하고, The Avenues, Diriyah Square 등 초대형 쇼핑몰들이 공사 중이며 고급화 추세
    - PIF 부동산 개발회사인 ROSHN은 '24년 5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 중이었으며 리야드를 시작으로 젯다, 메카, 다란 등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택사업 시작
- 도시 확장에 따른 인프라 확장에 더해 국가-권역 간 연결을 위한 프로젝트 본격화
  - (국가 간) UAE-오만 국가 철도망 연결 프로젝트 본격화, 총 303km 11개 도시·4개 국제항 연결
    - '28년 말 완공 예정 → GCC 철도 프로젝트 촉진 전망
      - \* 오만-아부다비 철도 프로젝트는 브라질 Vale가 소하르 산업단지와 아부다비 칼리파 산업지구 내 건설될 철강 공장을 연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가속화
  - (권역 간) 중동·인도·유럽 철도 연결 경제회랑 계획 발표로 대륙 간 철도-항만 연결을 통한 에너지 수송망 구축 예정
    - '23. 9월 인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구상 추진'을 위한 철도·항만 네트워크 구축으로 에너지 수송 및 무역 강화 목표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중동에서 구축한 레퍼런스 활용,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 인구 유입 및 도시 확장 수요에 따라, 각국 정부는 최근 고유가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투입하여, 도시개발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 중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많은 편이고, 한국 EPC 등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입찰을 준비 중, 그간 중동에서 쌓아온 우리 건설사들의 신뢰와 현지 협력 공급망 체인 등을 활용,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회로 활용 필요
  -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공정을 나눠 입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주 가능성성이 높은 편으로, 적극적인 분석 및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
  - 단순 건설·토목 공사뿐 아니라, 통제·검역·운영·시스템 등 한국에서 검증된 기술에 대한 현지 관심도 높아, EPC·테크기업 등 동반 형태로 수주 기회 발굴
    - \* 스타트업·테크기업과 동반형 컨소시엄 구성, 구현 가능한 세부 기술을 어필하는 방식의 수주단 등

### 중동 인프라 개발(예정) 프로젝트

국가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철도청(SAR) Landbridge 프로젝트 추진(동부-서부 철도망)</li> <li>•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 고속도로(King Fahd Causeway) 증축 추진</li> </ul>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부다비-두바이 고속철 건설로 도시 간 연결 강화, 1일 생활권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까지 아부다비 Al Zahiyah에서 두바이 Al Jaddaf까지 150km를 고속철로 연결</li> </ul> </li> <li>• 알마툼 신공항 프로젝트, 두바이 남부지역(Dubai South) 개발을 위해 약 350억 달러 투자, 기존 두바이 공항 5배 규모, 연 2.6억 명 승객 목표 등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li> </ul>
카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 공사로 연간 여객 처리 능력 5,800만 명으로 확대</li> <li>• 루사일 시티 개발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및 주거·상업 시설 확충</li> </ul>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ulth Saad Al-Abdullah 신도시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관리용역 진행 중</li> </ul>

- 기술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R&D, EPC 기능을 결합한 동반 진출 도모
  - 건설·에너지·교통 등 분야에서 시공, 서비스, 기자재 등 수요 발생, 최근 AI 접목 기술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 'Tech+EPC' 원팀 공동 진출 방안 모색
    - \* AI 접목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 시스템 간 통합 기술, 공항·철도 등 운영 전반에 관련된 기술, 대중교통 요금 결제 시스템, 전력 기기 등 유망



## 우리 기업 진출 성공 사례

- (쿠웨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우스 압둘라 신도시 실시설계 및 사업관리 수주
  - 해외 건설 분야에서 단순 시공이 아닌 설계부터 시공까지 종괄하는 최초 사례로 South Saad Al-abdullah 지역의 총 64.4km<sup>2</sup> 면적에 첨단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메가 프로젝트
- (카타르) H건설, 카타르 현지 내 최고층(70층) 건물인 루사일 플라자 타워, 최대 왕복 18차로의 루사일 고속도로, 하마드 메디컬 시티 등 기술력 및 신뢰도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 (UAE) Al Dhafra가 발주한 4.8억 달러 규모의 UAE Al Dhafra OCGT IPP 프로젝트에 삼성물산이 참여해 TAQA가 100% 지분으로 소유·운영하는 차세대 전력망 및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구축 사업 ('25년 4월)
- (UAE) DIFC Invest. Ltd.가 발주한 2.2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 이머시브 타워 프로젝트로 쌍용건설이 참여해 메타버스·디지털아트 기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24년 12월)
- (사우디아라비아) SEC-내셔널 그리드 SA가 발주한 2.1억 달러 규모의 Humaij(HMJ) 380kV 송전선·변전 설비 구축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참여해 Humaij 지역 산업단지 및 신도시 전력 공급 안정화 추진 ('25년 1월)
- (UAE)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 국내 기업 A社, KOTRA 중동 플랜트 수주지원 센터 참여 후 현지 주요 교통청인 ITC(아부다비), RTA(두바이)와 기술 쇼케이스 및 IR 등 추진

## 전략 ⑤ (경제 협력) 정상 협력 기반 산업·경제 파트너십 확대 및 성과 창출



### 전략 수립 배경

- '25.11월 G20 연계 중동국가(UAE,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시 AI, 첨단, 방위산업, K-Culture 등과 연계한 국가간 협약 다수, 정상외교 이후 성과확산을 위한 B2G 및 G2G 협력 수요 다대
- 한-GCC FTA 및 한-UAE CEPA 등 무역협정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쟁국 대비 선점 효과 기대  
→ 관세철폐 품목 및 부속협정 부문별 진출 확대뿐 아니라 인근지 진출 교두보로서 활용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2~'24년 중동국과의 통상협력에 이어, '25.11월 G20과 연계한 UAE·이집트·튀르키예 정상순방에서 AI, 방산, 인프라, 문화 등 전략산업 협업 논의
  - (UAE) '한국과 UAE,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 채택 → 인공지능(AI)·원자력·우주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이집트) 한-이집트 CEPA 본격화, 문화 및 교육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튀르키예)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및 "경제공동위원회" 10년만 재개, 방산·원전·바이오·문화 교류 등 협력 사항 발표

### 최근 중동 주요국 정상 순방 내역

UAE	순방	'25년 11월 18~19일 한-UAE 정상회담 및 라운드테이블 '23년 1월 15일 한-UAE 정상회담	카타르	순방	'23년 10월 25일 한-카타르 정상회담
	방한	'24년 5월 30일 한-UAE 정상회담	이집트	순방	'25년 11월 20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22년 1월 20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사우디 아라비아	순방	'23년 10월 22일 한-사우디 정상회담	튀르키예	순방	'25년 11월 24일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방한	'22년 11월 17일 한-사우디 정상회담			

## 최근 중동 주요국 정상 순방 내역

국내 기관	국가	해외 기관	협력 내용	협약시기
한국무역보험공사		에티하드 신용보험(ECI)	수소 협력	'22년 1월
방위사업청		국방부	방위산업 및 국방 기술 중장기 협력 외	'22년 1월
한국수출입은행		아부다비 석유공사	수주 제고 위한 금융망 구축	'22년 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부다비보건청 외	보건의료 분야 협력	'22년 1월
산업통상부 외	UAE	산업첨단기술부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협력	'23년 1월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24년 5월
국토교통부		에너지인프라부	에너지 인프라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24년 5월
산업부		산업첨단기술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	'24년 5월
한국전력공사		원자력공사(ENECA)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	'24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기관(SFDA)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	'23년 10월
산업통상부 외	사우디	에너지부 외	청정수소 협력 확대	'23년 10월
한국전력공사 외	아라비아	국부펀드(PIF)	그린수소·암모니아 개발사업 협력	'22년 11월
특허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협력 동반관계	'22년 1월
국토교통부	카타르	공공사업청	건설·건축분야 첨단기술 협력	'23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카타르개발은행	중소벤처기업 교류 및 투자 확대	'23년 10월
방위사업청	이집트	국방부	국방연구개발 및 방산군수 협력	'22년 2월
산업통상부 외		상업청 외	무역·투자·금융·인프라 협력	'22년 1월

자료: 경제외교 활용 포털

- '23년 정상 협력 후속 조치로 한-GCC FTA, 한-UAE CEPA 등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뿐 아니라 인근지 교두보로서 간접 효과도 기대

\* GCC FTA 기체결 국가 : 싱가포르('08년 체결/'13년 발효), EFTA('09년 체결/'14년 발효)

## 한국-MENA 국가 간 무역협정 체결 내역

단계	국가	추진현황	비고
발효	튀르키예	타결('12년 8월), 발효('13년 5월)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기준
	이스라엘	타결('19년 8월), 발효('22년 12월)	
서명·타결	GCC	협상타결 선언('23년 12월)	'07년 최초 협의 후 '21년 재개 공식서명 및 발효 준비 중
	UAE	협상타결 선언('23년 10월) 공식서명('24년 5월)	국회심의·비준 절차 등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효 협의
여건 조성	이집트	공동연구 MOU 서명('22년 1월)	
	모로코	국회 보고('24년 3월)	

자료: 산업통상부, FTA 포털

- UAE는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상대국으로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선점 효과
  - \* 수입액('22년) 기준 한국 72.3%/UAE 82.0%, 품목 수 기준 한국 92.3%/UAE 91.2% 관세 철폐
- 특히 △ 자동차(부품), △ 냉장고, △ 에어컨 등 GCC 측 양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UAE 측 CEPA 양허에 포함되며 개방 폭이 커짐
- UAE는 중동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이자 테스트베드로서 기능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발판이 될 것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자동차·무기류) 협정문 발효 즉시 대중동 수출 주력 품목인 한국 무기류 관세 철폐,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최장 10년 내 철폐 예정
  - \* 전기차 : 대형·화물차 즉시 철폐, 승용차 10년 내 철폐/하이브리드차 : 10년 내 철폐
- (공산품·농수산물)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의 혜택
- (신통상의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
  - \*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 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 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 한-GCC FTA에 따른 국별 수출 유망 품목

국가	수출 유망 품목	선정 사유
사우디아라비아	정형외과용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스케어 산업에 매년 24억 달러 소비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시장 약 20억 달러 규모, 정형외과용 기기 수입 규모 지속 확대</li> </ul>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의對한국 화장품 수입이 지속 확대('22년 대비 수입액 26.3% 증가)되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수출 증가 기대</li> </ul>
	화물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옴 프로젝트 포함한 스마트시티, 항구, 산업단지 등 인프라 프로젝트 활발, 덤프트럭, 냉장차, 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등 특수차량 수출 증가 기대</li> </ul>
쿠웨이트	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1위 수출 품목이며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수입 수요 증가 추세</li> </ul>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쿠웨이트의 3위 화장품 수입국으로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 및 한류 영향으로 지속적인 수출 증가 기대</li> </ul>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웨이트 정부 보건의료 산업 개발 정책에 따른 공공의료시설 확대 전망</li> </ul>
아랍에미리트	자동차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의 수요를 수입에 의존, 기존 차량 부품·부속 교체 수요 및 중고차 판매 확대로 애프터마켓 규모 증가</li> </ul>
	엔진과 부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전환 및 신규 프로젝트 발주로 관련 수요 확대</li> </ul>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K-뷰티 관심 증가, 기능성 제품 윤리적 생산, 자연적 원료 사용한 화장품 등 소비자 니즈 구체화 및 고급화</li> </ul>

국가	수출 유망 품목	선정 사유
카타르	열교환기 등 가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카타르의 가열기 수입시장 1위 차지, 가격 경쟁력 확보 시 수출 증가 전망</li> </ul>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뷰티 수요 증가 및 한국 제품의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뛰어난 성능 등)로 가격 경쟁력 확보 시 수출 확대 기대</li> </ul>
오만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만 정부의 병원 건설 프로젝트 추진,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으로 의료기기 시장 성장 전망</li> </ul>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콘텐츠에 대한 인기 상승에 따른 한국 제품 관심 증가와 오만 현지 온라인 쇼핑몰 발달로 플랫폼 이용 구매 증가 전망</li> </ul>
바레인	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 수입 확대와 한국산 제품 점유율 증가, 바레인 소비자들의 중상위 구매력으로 승용차 시장 지속 확대 전망</li> </ul>
	자동차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기온으로 부품의 교체 주기가 짧아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자동차 부품 수입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시장 성장 전망</li> </ul>

자료: KOTRA 자료 종합

## 전략 ⑥ (방산·안보) 중동 지정학적 갈등 심화, 국방·안보 자립화 협력



### 전략 수립 배경

- '23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의 확전 등으로, 끊임없는 지역 내 안보 우려
  -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이란의 이스라엘 충돌로 국방·안보 자립화 수요 증가
- UAE,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자주국방(Local Content) 강화를 위한 국별 방위산업 투자 확대 기회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 필요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이스라엘-이란을 둘러싼 긴장 확대 및 전쟁 장기화에 따른 범아랍권으로의 확전 우려로 국방비 지출 가파른 상승세
  -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중동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천억 달러 수준을 기록(전년비 9% 상승)
    -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 : 사우디아라비아(7.1%), 오만(5.4%) 이스라엘(5.3%), 쿠웨이트 (4.9%) 순

### 중동 주요국 연도별 방산 지출 현황

(단위: 억 달러)

국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가율('24/'23)
사우디아라비아	631.9	709.2	777.7	803.3	3.3%
이스라엘	243.4	234.1	275.0	465.1	69.1%
UAE	215.4	245.3	254.5	244.0	△4.1%
튀르키예	152.5	150.4	195.8	249.8	27.6%
이란	57.0	74.6	73.9	78.9	6.8%
쿠웨이트	90.2	82.4	77.6	77.9	0.4%
오만	57.8	57.8	58.5	59.9	2.4%
이라크	47.7	46.9	55.2	61.8	12.0%
이집트	51.7	46.5	31.7	24.0	△24.3%
요르단	21.8	23.3	24.5	25.6	4.5%
카타르	115.9	154.1	90.2	144.0	59.6%

자료: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美 Int'l Trade Administration(국제무역청)

- (국방자주화) 분쟁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중립성 확보하며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 안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자주국방(Local Content) 투자 확대 흐름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23년 GDP의 7.1%에 해당하는 758.1억 달러를 방산에 지출, 세계에서 5번째로 방산 지출이 높은 국가. 빈살만 왕세자는 차세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방산 분야를 지정하여 Vision 2030 내 '자주국방 실현'을 반영하였으며, 해외 기술기업과의 협력 및 R&D를 통한 현지화 전략 추진
    - \* 레이시온(Raytheon Technologies)과 협력하여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을 현지 제조
    - \* 美 락히드 마틴(Lockheed Martin)에 10억 달러를 투자, 현지 R&D 및 MRO(유지보수) 진행 중
  - (튀르키예) 방산수입국에서 자체 개발국으로 성장, '25년까지 방산산업에서 자국 조달 비중을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차, 차세대 항공기 등 고도 기술장비 생산을 본격화하는 단계
    - \* SIPRI가 발표('23년 2월)한 100대 무기 및 군수기업에는 TAI 등 4개의 튀르키예 기업이 등재
    - \* '25년 5월, 인도네시아와 KAAN 5세대 전투기 수출 1호 계약(48대 규모) 체결
  - (UAE) 방산 자급력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Tawazun, EDGE Group, Caracal 등 세계적 기업을 다수 배출했음에도 수입의존도 높음, UAE 정부는 방산산업 육성을 위해 '24년부터 '28년까지 총 1,29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 미국은 UAE를 인도에 이어 2번째 주요 방위 파트너(Major Defence Partner) 지정('24년 9월)
  - (이집트) 병력 기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방 전력 보유, 아랍 산업화 기구(AOI) 중심 방산물자 생산 중이며 노후화 장비 교체 수요 높음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육군 31만 명, 해군 18.5만 명, 공군 3만 명/육군전차 2.5천 대, 장갑차 600대, 전투함 60척 등
  - (오만) 해상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인접해 있어 안보 중요도가 높으나 내수 방산산업이 취약해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 1인당 국방비 예산이 중동 중 가장 높은 국가
    - \* 왕립국방과학연구원(KADDB) 산하 기업이 해뢰기술을 도입하여 군사 물품의 약 40%를 생산하며, 전투용 장갑차(AFV), 무인지상차량(UGV)를 집중적으로 생산
    - \* 시위 진압용 살수차, 총기, 소구경탄, 지뢰, 삼단봉 등 다수의 품목 한국에서 조달 중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정치·경제적 중립지대인 UAE 우선 공략, 주변국으로 성과 확산
  - GCC 국가들은 언어·종교·문화적 공통 분모가 크고, 상호 교류가 잦은 편으로 1개 국가와 계약 발생 시 타 국가로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특히 방산 부문에서 UAE는 정치·경제적 중립지대로 테스트베드 역할



## 중동 방산 수출 우수 사례

- 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LIG넥스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 UAE와 단일 국산 무기 수출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22년), '27년부터 UAE 군에 배치
  - 천궁 중동 수출형 모델은 사막 기후 등을 고려해 개발한 것으로 → 사우디아라비아 32억 달러('24.2) → 이라크 26억 달러('24.9) 계약 등 성과연결

〈‘천궁-II’ 수출형 모델〉



- 수리온 헬기, L-SAM 미사일 등 새로운 최근 한국산 무기 체계에 높은 관심 확인, 현지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조건 등 적극 대응으로 중동 시장 전역에 대한 포괄적인 진출전략 필요
- 튀르키예·이집트 등 방위산업 공급망 참여
  -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탄소소재 등 첨단소재와 원부자재 중심으로 기술력이 있는 해외 기업과의 협업 수요 확장, 방산 및 항공우주 산업 10대 대기업이 튀르키예 전체 방산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해당 기업과의 생산·기술 협력을 통한 공급망 참여 전략 필요

### ‘24년 튀르키예 주요 방산업체 수출액

			(단위: 억 달러)		
기업	품목	수출액	기업	품목	수출액
Baykar	드론	18	Roketsan	미사일	1.8
Turkish Aerospace Industries(TAI)	항공우주 시스템	7.5	Ram Dis Ticaret	군용차량	1.9
Tusas Engine Industries	항공우주 엔진	3.9	Aselsan	전자장비	2.2
MKE	군수품	2.6	Samsun Yurt Savunma	항공장비	1.7

자료: Anadolu Agency('25년 2월 1일)

- (이집트) 아랍 산업화 기구(AOI)가 보유한 7개의 방산물자 생산공장에서 훈련기, 장갑차, 탱크, 전차 시스템 등 다수의 방산 물자 생산 중, 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품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참여 가능하며 R&D 및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의 협력이 필수
- 민·관 협력을 통한 현지 무기 도입 수요 공동 대응
  - 한국 군에 도입된 무기 체계는 군 협력을 통해서만 시찰 및 시현 등 가능, 군·방사청·방산기업 원팀 협력으로 현지 수요 대응 및 기술·가격 제안
  - 방산진흥회, KOTRA, 방사청 등 협업으로 주요 전시회 IDEX/UMEX(UAE), WDS(사우디아라비아), IDEF(튀르키예), EDEX(이집트) 등 참여, 현지 수요 확인 및 네트워킹

- 경찰, 소방, 사이버보안 등 안전 분야에서도 공공 조달 및 기술 협력 파트너십 수요 발생, KOTRA 방산·보안 분야 사업 참여를 통해 현지 공급 기회 발굴  
\* KOTRA 두바이무역관, ‘두바이 경찰 협업 글로벌파트너링’ 사업 개최(‘24년 11월)



### 우리 기업 진출 성공 사례

- (UAE) 케이테크, UAE 국영방산 그룹 EDGE Group의 카라칼과 향후 10년 총 20억 달러 규모 총기·부품 납품 계약 체결(‘23년 8월)
- (튀르키예) HD현대인프라코어, 튀르키예 방산업체 베메제(BMC)와 약 48백억 원 규모 차세대 알타이 전차 부품(현수장치·파워팩·자동변속기) 공급 계약 체결(‘23년)
- (이집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산 자주포 K-9 패키지 수출 계약 체결(‘22년) 및 기술 이전 협력 예정/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집트 국방부와 고등훈련기(FA-50) 100대 공급 협상 중

### KOTRA 연계사업

장소	사업명	시기
아부다비	MRO Middle East 방산홍보관	2월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전시회(WDS SAUDI) 연계 상담회	2월
이스탄불	튀르키예 방산전시회(IDEF) 연계 상담회	4월

\* 사업별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KOTRA 홈페이지 참조([kotra.or.kr](http://kotra.or.kr)), 계획 변경 가능

## 전략 ⑦

(소비시장) 젊고 수용도 높은 중동 소비시장, K-Lifestyle  
수요 확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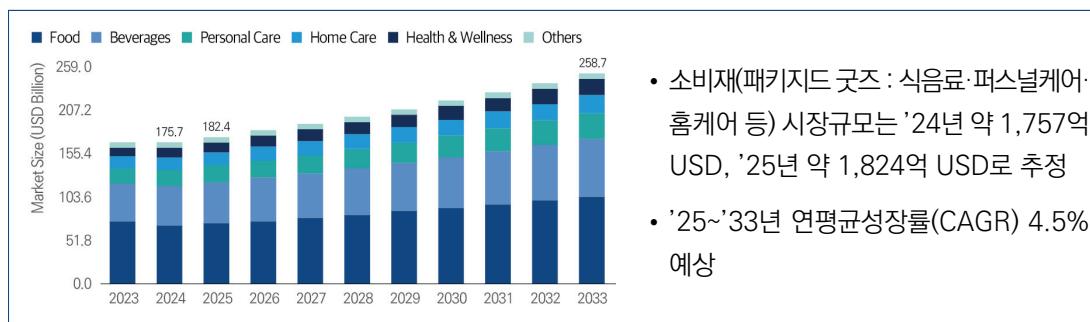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산업 다각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도시화 추진으로 젊은 인구 유입 지속(40대 미만 70%)
- 인구보너스 구간 장기화에 따른 내수 확장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국가의 개혁·개방 정책과 맞물려 한류에 대한 인지도·선호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유망 시장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소비시장) 구매력 있는 젊은 소비층 유입으로 인구보너스 구간 장기화
  -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관광허브 육성 정책 등에 따른 젊은 인구 유입으로 인구보너스 구간 '30년까지 장기화 예상
    - \* 인구보너스 : 생산가능인구비율이 높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구간,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와 대비되는 용어로 한국은 '16년 오너스 구간으로 전환

〈중동지역 소비재 시장 규모 전망〉



자료: Grandview Research

- (유통 방식) 디지털 전환 및 전자상거래의 급속 성장
  -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모바일 기반의 소비 주도
    - \* MENA 전자상거래 시장 최근 10년 연평균 성장률 15.5%, '25년 500억 USD 달할 것으로 전망

- (소비 트렌드) 환경친화적 소비 및 럭셔리·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 팽창

구분	내용
가격 민감성 증가	• 프로모션·할인행사·소형 포장 제품에 대한 선호 확대
건강·웰니스 중심	• 인공첨가물이 적은 클린라벨(Clean Label) 제품, 친환경·비건·유기농 식품 판매 확대
디지털·이커머스 이용 확대	• 아마존(UAE), 눈눈(soon), 틸라밧 등 플랫폼에 더해 틱톡숍·인스타그램스토어 등 소셜커머스형 유통 채널이 새로운 주류화
지역성·문화 중심성 유지	• 현지 문화와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향·패키징에 더 높은 호감 * 아랍 전통 문양·한정판 향수·라마단 에디션 등

- (한류) 한류 주소비 지역으로 떠오르는 중동, 콘텐츠-상품 구매 연결성 高
  - 중동국가의 개혁·개방 정책 및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 붐과 맞물려 한류 및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선호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
  -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화장품, 식품 및 기타 생활용품 등 관세장벽이 해소됨에 따른 한류 콘텐츠, 서비스 및 연계 상품의 對중동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SNS 마케팅) 온라인 광고 및 크리에이터 협업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동영상·숏폼·리테일 미디어로 이동이 가속화되는 양상
  - 소비자 수출 시 현지 온라인 유통망 진출과 함께 SNS 광고(Instagram, TikTok, Snapchat) + 소셜커머스 유통 채널 조합을 마케팅 전략으로 설계 필요
  -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UAE 정부는 '인플루언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 ('24년 7월), 라이센스 없이 유료 광고 시 최대 1만 디르함(약 2,700달러) 벌금을 부과하므로 유의
- (체험형 이벤트) 한국 제품(뷰티·패션음식·콘텐츠) 브랜드가 중동 내 K-Culture 이벤트, 페스티벌, 문화행사 등 협업을 확대하며 성과 확산 단계이므로 활용 가능

### 〈'25년 중동 주요 체험형 이벤트 연계 소비자 행사〉



- (인증 등 규제 대응)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인증 등 요구사항 변경에 신속 대응 필요
  - Localization 강화 및 할랄 인증이 필요한 식품 및 화장품은 현지 생산을 통한 진출 고려, 할랄 인증은 식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점차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 뷰티제품, 화장품 등 할랄 적용 대상 확대
  - 할랄 인증 강제 취득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마케팅 효과 혹은 권고이행의 차원에서 임의 요구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중동 시장 공략 시 취득하는 것이 유리
    - \* 제3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싱가포르, 프랑스 등) 할랄 인증도 인정되며, 국내 기관(한국할랄협회, 국제한랄인증지원센터 등) 기관의 인증서 인정 범위도 점차 확대

### 소비재 수출 관련 인증 업무 체크포인트

수출기업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기준 인증서 유효성/ 품목별 최신화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기준 G-Mark, CoC 등 인증서 유효기간 재확인</li> <li>'25년 이전 발급 인증서, 유예 품목 등 재인증·업데이트 필요 여부 진단</li> </ul>
신규 기술 기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년/'26년 적용 기준(예 : IEC 60335 신판, ISO22000, 블록체인 할랄 등) 사전 파악</li> <li>제품 설계/제조 프로세스와 문서, 시험 성적서 모두 최신 요구사항 반영</li> </ul>
제품 데이터·통관 코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품목 12자리 HS코드 일괄 점검, 전자시스템 입력 규정 숙지/준수</li> <li>GCTS 및 GSO 일괄등록/CTS 실시간 데이터 입력, 관리 프로세스 재점검</li> </ul>
국가별 인증/ 추적 시스템 실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우디아라비아 SABER, UAE ePortal 등 각국 필수 온라인 인증/추적 프로세스 완전 이행</li> <li>각국 최신 인증기관·절차별 공지사항, 인증기관 리스트 수시 확인</li> </ul>
환경/지속가능성·할랄 등 추가 인증 항목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품목 환경친화성, ESG, 탄소감축 등 부가 인증 요구 여부 파악</li> <li>식품·화장품·의약품 등 할랄 블록체인 실사용, ISO22000 등 국제표준 사전 준비</li> </ul>
현지 대리점·통관 사전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제도 시범 적용, 통관 문제점 사전 모의 점검(예 : 샘플 트라이얼, 리스크 체크)</li> </ul>

- (한류 활용) 화장품을 비롯한 K-뷰티 품목 성장세 활용

- 한국의 對중동 화장품 수출은 '24년 기준 289백만 달러로 10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증가세 강화 추세로 '25년 9월은 전년 동기 대비 46.8% 증가
- 중동국가별 선호 제품군에 차이가 있으나 K-Beauty 제품의 경우 수출의 95% 이상이 기초 화장품으로, 한류 영향 뿐 아니라 친환경·고품질 제품에 대한 선호로 천연성분이 다량 함유된 한국산 제품 인기
  - \* 소득 수준이 높고 럭셔리 화장품 시장 위주로 발달한 UAE·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의 경우 에스티로더·클라란스·디올·랑콤 등의 글로벌 브랜드 및 향수가 상위 품목을 차지, 국내 브랜드 진출장벽 높음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점, 한국 식재료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나, 프리미엄 상품 및 고급 카테고리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만큼 고급화·현지화된 아이템으로 공략할 필요성, 특히 비건고기(대체육), 무알코올 건강음료, 친환경 포장재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 KOTRA 연계사업

장소	사업명	시기
리야드	2026 K-Beauty Expo Saudi	4~5월
두바이	2026 중동 K-Lifestyle in Middle East	5월
리야드	리야드 한국 소비재 판촉전	4분기

\* 사업별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KOTRA 홈페이지 참조([kotra.or.kr](http://kotra.or.kr)), 계획 변경 가능

## 전략 ⑧

K-Medical 수요 대응, 국내 의료 인프라 진출 활용  
의료기기·의약품 수출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동은 무더운 기후와 식습관으로 성인병 및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매우 높은 반면 병원 인프라 절대 부족, 최근 의료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기술 도입 및 병원 위탁운영 수요 확대
- UAE 서울대 병원의 성공적인 진출을 계기로 카타르 Korea Medical Center 등 국내 유수 병원들의 성공적인 현지 병원 진출 사례 창출 → 연계하여 의료기기, 의약품 등 진출 기회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동 정부는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병원 인프라 확보와 우수 의료인력 유치 추진 중이나 병상수, 기대수명 등 여전히 낮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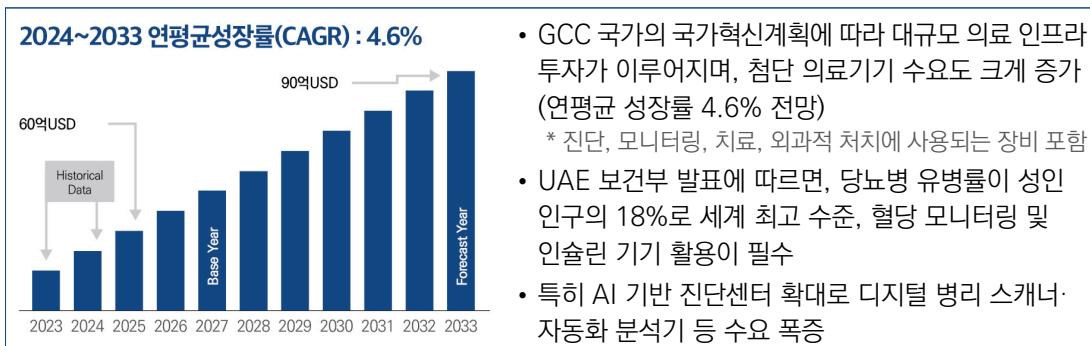
## 중동 주요국 의료 현황

국가명	65세 이상 인구 (%)	기대수명 (년)	임상의사 (명/인구 천 명)	병원병상 (개/인구 천 명)	경상의료비 지출 (USD/1명)
한국(비교)	16.7	83.7	2.66	12.9	3,782
UAE	1.76	78.7	2.53	2.0	4,033
사우디아라비아	2.6	76.9	2.61	2.2	2,696
카타르	1.4	79.3	2.49	1.2	3,928
이집트	4.8	70.2	0.75	1.1	524
튀르키예	9.0	78.6	1.81	2.88	1,267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제 의료정보 포털)

- GCC 국가 의료진의 40~80%가 외국인으로, 자국 내 전문의 육성 체계가 아직 미비하며 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한 대형 병원 위탁운영 등 수요 증가 추세
- 취약성은 GCC 국가의 빠른 도시화,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증가, 인구 고령화(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바레인 중심)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요인

### 〈중동 의료기기 시장 전망〉



자료: Market Data Forecast

- 특히 병원·의료인력 등 인프라 확장뿐 아니라 첨단기술 기반 병원 현대화를 위한 선진 기술 도입·연구시설에 공격적 투자는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

### 의료 인프라 확장 및 첨단화 관련 정부 투자 현황

국가	의료보건 관련 목표 & 투자 내역
사우디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sion 2030 보건부문 전환 프로그램 지속, '30년까지 추가 병상 2.7만 개 필요</li> <li>• 조달·물류는 NUPCO가 주도</li> </ul>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 보건부(MOHAP) 디지털·AI 헬스 투자 확대</li> <li>• 아부다비 PureHealth 그룹 대규모 병원·종양 AI 도입 및 신규 Tertiary 병원(Sh. Tahnoon Bin Mohammed Medical City 등) 추진</li> </ul>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종합병원·전염병 병원·암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 진행</li> <li>• 추가 의료도시 2곳 추진(사바 알아흐마드/무뜨라 지역 각 500병상)</li> </ul>
카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기준 연간 국가 예산의 12%를 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등 GCC 내에서도 적극적인 의료 재정 투입 중</li> <li>• 도하 및 신도시 루사일을 중심으로 대형 공공병원(Hamad Medical City 등) 추가 확장, 스마트헬스, AI 진단을 접목한 신규 병원 건립 등이 활발하게 추진</li> </ul>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HC(전국민건강보험) 민간 참여 전략 발표(Arab Health 2025), 10년 보건 투자계획('25년 6월)과 함께 병원 58곳('24년/'25년 예산) 완공 추진</li> </ul>

### □ 유망 품목 및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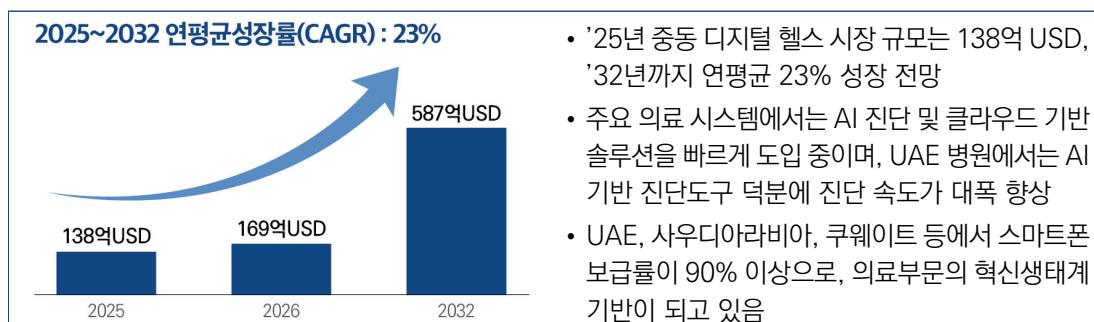
- (종합의료 서비스) 한국은 고품질 의료기기·정확한 진단기술·빠른 커스터마이징 역량을 기반으로, GCC 지역 정부가 요구하는 '고신뢰·고효율 헬스 솔루션 공급자'로 자리매김 중
  - 이러한 경쟁력은 UAE 세이크칼리파병원, 카타르 Korea Medical Center(KMC), 서울대·아산 병원 현지 위탁 운영 등 구체적 협력 사례를 통해 이미 검증
  - 동 병원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산·관·학 협력, 진단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수출, 의료진 동반 진출 용이

## 국내 기업 진출 우수 사례(Korea Medical Center(KMC) 설립)

국가	사진	내용
카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임나무치과, 서울아산병원, 안강병원, JK성형외과 등 4개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해 치과, 척추·관절/재활, 미용성형·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등을 1차로 개시('24년 6월 도하 루사일에 개원(4만m², 10층 규모)</li> <li>2차 오픈 시에는 대규모 줄기세포 생산시설,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및 불임센터 추가 확장 예정</li> <li>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지원 프로젝트, 중동 진출 성공 모델</li> <li>의료장비·의약품·검진·K-뷰티 연계 등 후속 산업의 '플랫폼' 역할 가능</li> </ul>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병원이 3차 의료기관(쉐이크칼리파) 위탁운영권을 획득('14년 246 병상 규모), 암·뇌신경·심혈관 등 특수센터 운영과 첨단 치료시스템 도입을 통해 높은 신뢰를 쌓았으며 운영계약 연장('24년)</li> </ul>

- (의료기기) 영상진단·체외진단·정형재활 등 병원 현대화 핵심 장비 수요 확대, 고효율·AI 융합형 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 패키지 진출
  - (영상·정밀진단기기) 초음파, CT, MRI 등 첨단 진단기기 수입이 급증, UAE는 의료기기 시장의 44%가 영상진단 및 의료소모품 분야이며, AI 기반 영상진단 소프트웨어와 같은 차별화된 기술로 시장 입지 강화 필요
  - (체외진단 및 현장진단(POCT) 기기) 당뇨, 심혈관, 감염성 질환 진단 정밀 키트·AI 분석 알고리즘 기반 솔루션 유망
  - (치과·성형·재활 기기) 치과 광학장비, CAD/CAM, 재활로봇 등 유망

## 〈중동 디지털 의료시장 전망〉



자료: P&amp;S Intelligence

- (의약품·바이오)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수요 확대 및 현지화 전략 대응
  - GCC는 자국 내 생산역량이 제한적이며, 수입·위탁생산 중심 구조가 유지, 글로벌·현지 제약사와 라이선스·공동 생산 모델 구축
    - \* 중동 제약시장 규모 : '25년 570~800억 달러, '34년까지 연 6% 이상 성장 전망
    - \*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오시밀러 제조시설('25년 가동), UAE 제약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집트 UHC 민간 참여 전략 가동

#### 국내 기업 제약부문 진출 우수 사례

기업명	협업 기업	내용
셀트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제약기업 Hikma Pharmaceuticals와 MENA 지역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 체결('25년 10월), 바이오시밀러 6개 제품을 공급</li> </ul>
한미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우디아라비아 타북과 파트너십, 사상 최초 완제품 중동 수출(비뇨기 분야 제품, 항암 분야 바이오신약 등) 독점계약('24년 10월)</li> </ul>
메디톡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최초로 두바이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장 설립을 추진 중(테콤그룹 산하 두바이사이언스파크와 톡신 제제 생산 시설 설립에 관한 투자의향서 (LOI)를 체결)</li> </ul>

- (현지 플랫폼 참여) Arab Health(두바이), Medlab Middle East, Saudi Global Health Exhibition, GAIN Qatar 2026 등 의료·AI 특화 전시회 참여
  - 현지 대형 병원·조달기관 세미나, 국가별 보건부 공동포럼 통해 제품·기술 시연

#### KOTRA 연계사업

장소	사업명	시기
두바이	UAE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 2026) 한국관	1월
두바이	중동 K-바이오 사절단	2분기
두바이	UAE K-바이오데스크	연중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보건 전시회(Global Health Exhibition) 한국관	10월

\* 사업별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KOTRA 홈페이지 참조([kotra.or.kr](http://kotra.or.kr)), 계획 변경 가능

**전략 ⑨****재건 프로젝트 및 경제회복 수요 선도적 대응****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레반트 대다수 지역 산업 발달이 미비하고 기존 생산시설도 파괴되어 수요 상시 존재, 맞춤형 지원 필요하며 정세 리스크 헛장을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중요
- 국제기구 벤더 등록, 요르단 등 제3국 기업을 통한 수출 전략 병행

**□ 가자전쟁 휴전 및 시리아 경제제재 해제 등 관련 최근 국제사회 동향**

- 미국, EU, 중국 및 인근 국가(GCC·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재건 참여를 위한 움직임 포착
  - (미국) Baker Hughes, Hunt Energy, Argent LNG 등 미국 민간 기업들이 석유·가스·전력 인프라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할 예정
    - \* 과거 이라크 재건에 적극 참여한 EPC 베텔사는 시리아 진출은 미온적(요르단미대사관)
  - (EU) 막대한 원조를 바탕으로 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사전 조성하는 단계

**EU 재건시장 참여 현황**

시리아	레바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제재 완화('25년 5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8억 유로 규모의 사회, 경제적 복구 금액 지원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구 복구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12백만 유로를 지원, 프랑스의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항구 재건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와의 국경지대 쿠르드 문제로 지속적 영향력 행사, 최근 시리아 재건 관련 투자 및 교역 확대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리아 재건 국제기금 설립 제안 '24년 12월', 시리아 직접 투자 '25년 5월'</li> </ul> </li> </ul>	

**※ 시리아 유망 프로젝트**

- 카타르 개발사 UCC 홀딩(프로젝트 리드), 튀르키예 Kalyon(태양광), 미국 Power International(금융), 시리아에 70억 달러 규모의 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
  - 4,000MW 복합화력 4기, 1,000MW 태양광 1기를 BOT 혹은 BOO로 추진
  - 현재 F/S 단계이며, 향후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정 문제 종결 후 착공 예정

- 시리아가 '25년 1월 튀르키예 주요 269개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후 1분기 튀르키예의 對시리아 수출액 39%, 5월까지 물동량 60% 증가
- (중국)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20년대 초반부터 영향력 확대 흐름 →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모두 일대일로 MOU 체결
  - \* 일대일로는 정치 상황, 민주주의, 인권을 문제삼지 않고 인프라와 경제 협력에 집중

### 중국 재건시장 참여 현황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팔레스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대일로의 주요 수혜국, 중국이 에너지 및 인프라에 적극 투자, 저가 투찰 전략으로 프로젝트 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정유시설 등 90억 달러 투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적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조짐(친 아사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사(Hassia) 산업단지 20년간 개발·운영 계약 체결(‘25년 5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바논) 트리폴리 항구 개발, 발전소 및 철도 건설 논의를 하였으나, 정치 불안 등으로 중단 상태</li> <li>(팔레스타인) 인도주의 원조 추진 중</li> </ul>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정세 리스크 헛징을 위한 시나리오별 맞춤형 전략 추진 필요

구분	시나리오	중점 추진전략
1단계	• 현재와 동일하거나 악화	• 수출(기본 수요제품+방산/보안+구호물품)
2단계	• 본격 재건추진(단기)	• 수출(재건특수 아이템)+인프라(국제사회 협업)
3단계	• 정세안정(중장기)	• 수출+인프라(PPP)
4단계	• 정상국가로 진입(장기)	• 수출+인프라(PPP)+투자 진출(제조업 등)
상시	• ODA를 통한 우호적 환경 조성(정부 및 발주처 역량강화 지원)	

- (수출) 레반트 지역 산업 발달이 미비하고 기존 생산시설도 파괴되어 수요 상시 존재, 국제기구 벤더 등록, 요르단 등 제3국 기업을 통한 수출 등 맞춤 전략 필요

단계	구분	국가	품목(예시)	사유
1단계	기본 수요제품	이라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 자동차</li> <li>부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산 중고차는 옵션, 차량 상태, 가격 면에서 경쟁력 큼(시리아는 승용차 수입 금지, ‘26년 경 제한 완화 기대–바이어 의견)</li> </ul>
	방산/보안	시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호장비</li> <li>경계시스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라크는 한국 방산 단골 고객</li> <li>시리아 사설보안서비스 수요 증가</li> </ul>
	구호물품	팔레스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 상황, 인도주의적인 지원 지속</li> </ul>
2단계	재건특수 아이템	시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기자재</li> <li>생산설비</li> <li>건설장비/기자재</li> <li>의료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전력기자재 가격 경쟁력 우수 (요르단 발전소 유지·보수 한전KPS)</li> <li>시리아 제조공장 재건에 한국 설비 필요 (시리아 음료제조기업)</li> <li>시리아 재건 시작 시 한국산 장비 활용 예정 (요르단 M사)</li> <li>의료설비 절대 부족(시리아 바이어)</li> </ul>
상시	新트렌드	이라크 레바논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라크 한류 활용 화장품 수출 급증</li> <li>레바논 최근 한국 화장품 관심 증가</li> </ul>

- (인프라) 과거 이라크 재건 사례를 참고하여 치안 및 정세, 발주처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전력 등 필수 인프라에 국제기구, 주변 아랍국 자금 활용한 PPP 참여, 기자재 납품 등

구분	내용	사유
1단계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재국·주변국 발주처,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협업 가능성 탐진, 위험 요소 파악 등을 통한 준비 필요</li> </ul>
2단계	국제사회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원조기관) 추진 프로젝트 참여, 혹은 미국이나 EU 기업과 컨소시엄 형성하여 리스크 최소화</li> </ul>
3단계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재원 부족으로 PPP 추진 가능성 다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C 등 국제개발금융기구(IFI) 및 수출신용기관(ECA) 보증 프로젝트, GCC 국부펀드, 주변 아랍국 자금 활용 등</li> </ul> </li> </ul>

- (리스크 대응) 과거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선별적 진출 필요
  - 정세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사업 중단임에도 발주처는 불인정
    - 국내 기업 A사, 시리아 배전청과 GIS 변전소 10개 건설 EPC 계약(330억 원 규모) 체결
      - 내전으로 인한 정세악화로 불가항력(Force Majeure) 상황에 따른 철수를 선언하였으나, 시리아 발주처는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행사
        - 정부·발주처 재정 악화로 대금 수금 애로
    - 이라크 기업 Mass Group Holding(MGH)은 '06년부터 쿠르드 자치지역 핵심 도시 3곳에 대규모 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건설
      - 가스터빈은 GE, EPC는 터르키에 ENKA사 참여
    - 이라크 오일 리포트(Iraq Oil Report)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쿠르드 자치정부가 MGH에 지급해야 할 전력 구매 대금 연체액이 4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보도
      - 쿠르드도 국제 유가 폭락,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예산 분배 갈등으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공공 서비스 비용 지불 능력이 떨어짐
  - 정치,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한 프로젝트 발주 후 실행 지연
    - 레바논 정부는 민자발전소(풍력(226MW), 태양광(165MW) 등)를 짓기 위해 여러 차례 국제 입찰 시행
      - 하지만 잦은 정부 공백, 정치 갈등, 국가 디플트 등으로 인해 착수도 못하고 지연
        - 금융 위험 상승으로 투자가 참여 난항, 정치적 갈등으로 주요 의사결정 불가 등
      - 국가 EPC로 추진한 가스복합 사업(Deir Ammar, 538MW)도 낙찰사(그리스-아집트 컨소시엄)와의 VAT 포함 여부 등으로 분쟁. '24년 레바논 승소했으나 현재까지 사업 중단

**KOTRA 연계사업**

장소	사업명	시기
테헤란	이란 국제 의약품 전시회 흥보관	9월
텔아비브	이스라엘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상담회	미정
암만	레반트 재건시장 설명회 및 상담회	미정

\* 사업별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KOTRA 홈페이지 참조([kotra.or.kr](http://kotra.or.kr)), 계획 변경 가능



## AI 솔루션 및 데이터센터 기자재

- 선정사유**
- GCC 전역에서 AI 국가전략(UAE AI Strategy 2031, Saudi Vision 2030 Digital Agenda, Qatar AI Strategy 2032 등)이 추진되며, 이에 따라 AI 연산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급증
  - AI 모델 학습·추론용 GPU 서버, 냉각·전력 장비,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결합형 수요 확대
  - 한국은 반도체·서버·냉각·전력 효율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현지 AI 인프라 구축·운영 협력 기회 증가
- 시장동향**
- GCC 데이터센터 시장 : '24년 USD 3.5B → '30년 약 USD 9.5B 성장 전망(CAGR 18% 이상)
  - UAE : G42-Microsoft 'Stargate' 프로젝트, AI 전용 슈퍼컴 'Condor Galaxy' 가동 중
  - 사우디아라비아 : Microsoft Azure 리전(2025), AWS 리전(2026) 개소 예정 — AI 추론용 HPC 서버 수요 폭증 예상
  - 카타르 : 국영 통신사·공공기관 중심 클라우드 이전 확대
- 경쟁동향**
- 글로벌 IT·클라우드 사업자(Microsoft, Amazon, Google, Huawei)가 현지 리전 구축 중이며, 현지 파트너(G42, STC, Khazna)와 협업
- 진출방안**
- 한국은 반도체·서버·냉각·전력 효율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현지 AI 인프라 구축·운영 협력 기회 증가
  - 데이터센터 기자재 공급 : 전력변환장치(UPS), 냉각시스템, ESS, 모듈형 랙, HPC 서버 등 AI 운영 인프라 패키지형 수출 추진
  - 정부 주도 AI 도입이 우선시, 공공행정·스마트시티·보건 AI 플랫폼 등 정부 기관 협업을 통한 진출 유망
- 유망국가**
-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 자동차(신차 및 중고 자동차)

- 선정사유**
- 중동 내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내구성에 대한 신뢰가 높고, SUV·전기차 중심 수요 지속 확대되어 '25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수출 30.2% 증가(수출 품목 1위 지속, 41% 비중)
  - 특히 중고차는 신차시장과 별개로 매우 활발한 2차 유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요르단·레바논·이라크·UAE(재수출 허브)가 중심축
  - \* 한국 중고차의 MENA 수출은 전 세계 수출의 1/4 비중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300~350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며, 대부분의 충전소는 레벨 2 충전기로 구성, 고속 충전소는 교통량이 많은 일부 지역에 위치</li> <li>• '24년 약 500~600개 충전소로 증가 예상, 주요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 관광지, 고속도로로 확장 기대</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저가 EV 및 BYD·MG 브랜드 급부상</li> <li>• 전통적 유럽 브랜드(BMW, Mercedes, VW) 이외 초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별도 시장 형성</li> <li>• 중고차 부문은 일본 중고차(도요타·렉서스)가 전통적 강세이나, 가격 상승·물류비 부담으로 경쟁력 약화되고 중국은 품질 인지도에 따라 아직 미미</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브랜드는 내구성+AS 망+가격 경쟁력으로 중동 전역에서 확고한 입지 확보</li> <li>• UAE 자유무역지대 내 약 80여 개 수출허브 기업이 중고차 재수출 운영 중으로 인근지 직접 수출보다 교역 안정성이 있는 재수출 허브 활용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의 두바이·샤르자는 중고차 수출·재수출 허브로, 이곳을 거쳐 요르단·시리아·이라크·이집트·아프리카로 환적</li> </ul> </li> </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등</li> </ul>

## 전력기자재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및 신재생·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전환용 계통 연결 수요 확대</li> <li>• GCC 및 인근국이 에너지 다각화·전력망 현대화·재생에너지 통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고효율 발전설비·송배전 기자재·ESS·스마트그리드 관련 수요 급증</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CC 전력설비 시장 규모 약 USD 42억 달러('25년), '30년까지 CAGR 6.5% 성장 전망</li> <li>• MENA 전체 발전·송전·배전 기자재 발주 총액 연평균 USD 25~30억 달러 수준(MEED 기준)</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LS전선을 비롯 Prysmian Group(이탈리아), NKT(덴마크), Nexans(프랑스), Sumitomo Electric Industries(일본) 등의 주요 글로벌 기업 진출</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발주 프로젝트에 입찰하기 위해서 PQ(Pre-qualification)라는 사전 등록 필수. 이에 현지 법인설립이나 유통사 선임이 보편적 진출 방안</li> <li>• UAE Operation 300bn, Make it in the Emirates 및 이집트(Egypt Makes Electronics), 튀르키예(제12차 개발계획) 등 역내 제조업 육성과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기조 속,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생산시설 운영, 현지 기업과의 협작 등 고려</li> <li>• 관련 전시회인 WETEX를 통해 업계 관계자 네트워킹과 비즈니스 구상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추천</li> </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이집트</li> </ul>

## 원전 기자재(원자로 부속품·방사능 방호장비 외)

- 선정사유**
- 중동 각국이 에너지 안보 + 탈탄소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원전을 '탄소중립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재평가
  - UAE 바라카 1~4호기 성공적 운영(한국형 APR1400 적용)으로 한국 원전 기술 신뢰도 대폭 상승
  -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튀르키예 등 신규 원전 추진국에서 기자재·엔지니어링 수요 급증
- 시장동향**
- UAE : 바라카 1~4호기 상업운전 완료('24년), 5·6호기 검토 중 → 운영·유지보수(O&M) 기자재 수요 지속
  - 이집트 : 러시아 Rosatom 주도 Dabaa 원전(4기) 건설 중, 기자재 일부 국제 입찰로 개방 예정
  - 튀르키예 : 아쿠유 1~4호기 완공 예정, 2차 원전 시놉 프로젝트 협의 중
  - 요르단은 '16년에 건설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측의 노후화된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교체 수요 확인('25.상)
- 경쟁동향**
- 프랑스(Framatome, EDF), 러시아(Rosatom), 중국(CNNC), 미국(Westinghouse) 등 대형 EPC사 중심 공급망 형성
- 진출방안**
- 단기적으로 원자로 부속품, 방사능 방호장비 등 기자재 수요가 기대되는 바 Nawah Energy (ENEC) 웹사이트([enec.gov.ae](http://enec.gov.ae)) 벤더 등록 통한 입찰 참가 기회 획득 노력
  - 바라카 5·6호기,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이집트 Dabaa 등 프로젝트 기자재 입찰 정보 조기 확보
  - UAE·사우디아라비아 원전운영기관(ENEC, Nawah, KA-CARE)과의 기술세미나·MOU 통해 공급망 참여 확대
  - 기자재·모듈 제조업체 중심으로 ASME, ISO 9001, ENEC 승인 등 국제인증 확보 필요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분야 기술 협력 선점 추진
- 유망국가**
- UAE,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 자동차부품(내연차 및 전기차용)

- 선정사유**
- 중동 내 한국산 자동차 수요 지속 증가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요 동반 상승
  - 한-UAE CEPA 발효 시 내연차 및 일부 전기차 핵심 부품 관세 철폐·감축 양허로 수요 확대 기대
  - 한-GCC FTA 체결과 향후 비준에 따른 GCC 전역 내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우위 선점 기대
- 시장동향**
- 급증하는 인구와 신차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으로 중고차 매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넷제로 2050을 위한 UAE 정부의 정책 기조 및 관련 인프라 확대 등에 따라 전기차 시장 동반 확대 추세
  - 현지 기후와 운전자 특성상 타이어, 배터리, 브레이크패드 등의 수요가 높은 편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oyota, Nissan, Mitsubishi 등 일본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 Land Cruiser, Patrol, Pajero 같은 중대형급 SUV 모델이 인기</li> <li>한국과 미국 브랜드가 그 뒤를 따르며 차량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부품 수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출 초기 기업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나 잠재 바이어 발굴이 가능한 Automechanika 전시회 참가 추천</li> <li>수요 확대에도 버짓(Budget) 브랜드(중국, 동남아산)에 대한 수요 전환 또한 계속되는바 대비가 필요</li> <li>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부품 수요 확대 기대에도 저가품과의 차별화, UAE 정부 차원의 현지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li> </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CC, 요르단, 이스라엘, 튀르키예, 모로코 등</li> </ul>

## 방산 및 보안 물품(무기류 및 보안제품)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학적 불안·국경분쟁·테러 위협으로 중동 국가들이 자국 방위산업 육성 및 국산화를 제고에 집중</li> <li>사우디아라비아·UAE는 국방비 세계 상위권(사우디아라비아 GDP의 7% 이상, UAE 약 4%) 수준으로 글로벌 군수·보안 장비 최대 수입시장 중 하나</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동은 절충교역을 활용해 해외 방산 기술 이전과 안보 자립성 확보에 박차</li> <li>세계 무기 수입 상위 10개국 중 4개의 중동국가가 위치해 있으며, 오일머니를 안보 강화에 투입하는 추세</li> <li>이스라엘 분쟁·홍해 해상 위협 이후, 전 지역적으로 방공·정찰·보안 솔루션 수요 급등</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튀르키예 제외 중동국은 아직 방산제품 기획·설계 단계로, 주로 미국(Lockheed, Raytheon, Boeing), 프랑스(Thales, Dassault), 영국(BAE), 중국(Norinco), 튀르키예(Aselsan) 등으로부터 수입</li> <li>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3 이상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미사일 방어체계, 정밀화력, ISR 등</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공동 개발·현지화(JV, Offset)’ 조건 선호, 단순 수출보다 기술 이전·조립·훈련 패키지형 모델을 요구하므로 사전 대응 필요</li> <li>폐쇄적인 산업 특성상 대면이 가능한 전시회 참석이 효과적이며 UAE IDEX, 사우디아라비아 World Defense Show 등이 대표적</li> </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이스라엘</li> </ul>

## 화장품

- 선정사유**
- 對중동 화장품 수출은 최근 10개년 연평균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가 지속 확대되는 추세
  - 특히 對UAE 수출의 경우 '23년 53.4%, '24년 90.4%, '25년(9월 기준) 58.8% 증가하는 등 시장 폭발적 확대
  - 이슬람 관용주의 확산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 확대로 GCC 화장품 시장은 '24년 약 180억 달러에서 '30년 280억 달러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듯 시장 잠재력도 우수
- 시장동향**
- 소비자의 소득 수준, 국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선호하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차이가 뚜렷한 시장, 크게 백화점 및 세포라를 중심의 고가 프리미엄군과 하이퍼마켓 판매 매스 브랜드군 등으로 분류
  - 최근 중동 내 유통망 대기업의 K-beauty 제품이 소싱 수요가 활발하며, 온/오프라인 매장 내 한국제 품 입점 확대
- 경쟁동향**
- 로레알(L'Oréal), 에스티로더(Estée Lauder), 시세이도 등 다국적 브랜드가 프리미엄 시장 주도
  - 현지 브랜드(Huda Beauty, Kayali, The Camel Soap Factory 등)도 빠르게 성장 중
  - K-Beauty 브랜드(Innisfree, Laneige, Mediheal, Dr.Jart, COSRX 등)는 SNS·K-콘텐츠 결합형 마케팅으로 팬덤형 소비층 형성
- 진출방안**
- 현지 파트너(리테일·유통사)와의 협력 및 온라인몰·소셜커머스 진출 병행(Namshi, Noon, Sephora GCC 등)
  - 할랄(Halal) 인증, SASO·ESMA 기준 충족
  - K-Pop·K-Drama 협업형 브랜드 마케팅 강화 및 '남성용·헤어·향수' 등 신규 카테고리로 확장 가능
  -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는 프리미엄, 이집트/튀르키예/모로코 등은 대중·중저가 중심
- 유망국가**
-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모로코 등

## 식품

- 선정사유**
- 한류(K-Wave) 확산으로 중동 소비자 사이에서 한국 음식·스낵·라면·음료·김 등 인지도 상승
  - 중동 국가들이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고, 특히 간편식·스낵·프리미엄 가공식품 수요 증가
- 시장동향**
- 중동·GCC 시장에 대한 한국 식품 수출이 빠르게 성장, '25년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7.9% 상승
  - 현지 소비자 기호가 “매운맛·간편식·한국 스타일 스낵”에 친숙해지고 있어 한국 제품에 우호적 환경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히 라면의 인기가 높으며 SNS 등으로 유명세를 탄 불닭맛 라면은 최근 3대 수입시장 라면(인도네시아 인도미, 네슬레 매기, 싱가포르 코카)의 인기 능가 추세</li> <li>다양한 맛과 향을 가미한 김 스낵 또한 인기</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류 및 육가공품,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할랄 인증을 취득이 필수, 미포함 제품이라도 할랄 인증 통해 문화적, 종교적, 심리적 장벽 완화 가능</li> <li>현지 유통사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예 : Noon, Namshi 등)와 제휴 또는 채널 진입 전략 마련</li> <li>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한국 스낵·음료, K-드라마/뮤직 노출)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li> </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CC,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 등</li> </ul>

## 의료기기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와 헬스케어 분야는 중동 주요국들의 최우선 과제로 분류되며, 산업 육성 의지는 관련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추세</li> <li>의료시설 확충과 고도화 전략에 따른 의료기기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 다대</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바달라(Mubadala), 두바이보건청(DHA), 아부다비 병원 관리청(SEHA) 등 적극적인 공공분야 투자 및 American Hospital, Aster DM Healthcare, Mediclinic 등 민간부문 대표병원과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의 공격적 확장 계속</li> <li>개인의 의료비 지출액 증가 또한 호재로 작용</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품목을 수입에 의존,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독일 등 유럽 제품이 영상 진단기기, 정형외과 &amp; 인공 기관 등의 품목에서 선호</li> <li>고성능 기기일수록 글로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 필립스, 지멘스, GE 헬스케어 강세</li> <li>소모품의 경우 저가 중국, 인도산 및 현지 생산품 활용</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A나 CE와 같은 국제인증 통해 실증 데이터 확보 후 역내 의료 전문 디스트리뷰터 선임 통한 진출</li> <li>현지 진출 우리 병원(종합병원, 척추/관절병원, 물리치료, 치과 등)과 협력해 기기 수출 도모 가능</li> <li>일반 소비자 대상 원격의료 앱,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수요 또한 기대되는 시점</li> <li>중동 최대 의료전시회인 Arab Health 외 주요 전시회 참가를 통한 시장 조사 선행</li> </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이집트</li> </ul>

## 의약품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동 내 고령화·만성 질환 증가, 의약품 수입 의존도 확대에 따라 고품질 의약품 수요 지속 증가</li><li>• 한국은 이집트·UAE에서 의약품 참조 국가로 지정('23~'24년) → 품목 등록 시 절차 간소화 및 신뢰도 제고</li><li>• 한-UAE CEPA 및 향후 한-GCC FTA 체결 시 의약품·의료기기 시장 접근성 확대 기대</li></ul>   |
| <b>시장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GCC 국가 의료산업은 정부 중심의 공공병원·보험개혁을 통한 헬스테크·AI 진단·원격처방 등 혁신 의료 생태계 구축 중으로 고기능 전문의약품 수요 증가</li><li>• 이집트는 아프리카·MENA 의약품 허브로 부상 중이며, 현지 생산 확대와 해외 제약사 기술 이전 활발</li><li>• 전 지역 공통적으로 항암제, 당뇨·심혈관 질환 치료제, 백신류, 희귀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음</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Pfizer, Novartis, Sanofi, GSK 등 다국적 제약사와 현지 파트너십 기반 시장점유율 우세</li><li>• 이집트는 1,500여 개 현지 제조사가 존재하나 원료·기술은 수입 의존, 고품질 수입제 선호 경향</li><li>• UAE는 품질·인증 기준이 엄격하여 한국·유럽·일본산 선호</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지 규제 당국(예 : UAE MOHAP, Egypt EDA)의 참조 국가 지정 효과를 활용해 등록·허가 절차 단축</li><li>• 중동 주요 제약 유통사(MEPHA, Julphar, EIPICO 등)와 파트너십·공동 생산(MOU/CMO) 전략 추진</li><li>•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바이오시밀러 등 고부가가치 중심 품목 포트폴리오 강화</li><li>• WHO·GCC DRAs(의약품규제청) 기준 상향에 따라 품질·임상 데이터 기반의 한국 의약품 경쟁력 부각</li></ul> |
| <b>유망국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오만 등</li></ul>   |

## 공기조절기 및 냉방기

- 선정사유**
- 중동 프로젝트 발주 시장에서 오일·가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프로젝트 시장 호황기 지속
  - '25년 9월 기준 對중동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수출은 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8.5% 증가하여 수출 상위 6대 품목 진입
- 시장동향**
- 건설산업 호조로 냉난방공조(HVAC) 산업도 활기
  - 무더운 기후로 안락한 환경과 온·습도 유지에 필수인 냉난방공조 시스템은 건설산업과 강한 연관성
  - UAE에서는 최신 기술의 공기조절기 및 냉방기 수요가 꾸준
- 경쟁동향**
- Trane Heating & Air Conditioning, Carrier, Daikin, Mitsubishi Electric 등 글로벌 브랜드 및 LG와 삼성이 각축
- 진출방안**
- 주거용, 상업용 건설 프로젝트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신공항 프로젝트와 같이 인프라 구축이 한창, PPP법은 민간투자를 더욱 장려, 진출 기회 확대
  -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건설·건축기자재 전시회인 The BIG 5 참가 통해 개발사, 시공사, 유통업체 등 산업 관련 인사들과 네트워킹과 시장 조사 가능
- 유망국가**
- GCC 전역



## 청정에너지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년까지 탄소배출을 70%에서 Net Zero까지 감소 및 '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50% 확대 목표</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ohammed bin Rashid Solar Park에서 '30년까지 5GW 용량의 발전시설을 확보할 계획</li> <li>풍력 및 그린수소 : Masdar와 TAQA가 주도하는 세계 최대 수소 생산 능력 확보 예정</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양광·열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이력이 있는 기업 간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F(프랑스), Jinko Power(중국), Marubeni(일본) 등</li> </ul> </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부문 내 한국과 UAE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입찰 참가</li> <li>기술 협력 및 인센티브 활용 :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기술 도입</li> </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튀르키예</li> </ul>

## 인프라 건설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년 기준 UAE 프로젝트 시장 규모 약 6551억 2000만 달러, 건설(58.8%), 석유·가스(15.5%), 교통(10.8%), 전력(4.5%), 수자원(3.2%) 순</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G 인프라와 자율주행 교통망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확장</li> <li>200억 달러 규모의 지하철, 공항, 항만 확장 투자</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chtel, Vinci 등 글로벌 건설사들과의 경쟁 심화</li> <li>Arabtec, Alec 등 현지 기업의 기술 도입 확대</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건설사와의 합작 투자 및 스마트 건설 기술 제공</li> <li>친환경 건축 자재와 에너지 효율 기술로 차별화</li> </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li> </ul>

## ICT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내 최대 ICT 투자국인 UAE는 '25년까지 ICT 부문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 Digital Government Strategy 2025 전략을 기반으로 ICT 서비스 확장 추진</li> <li>국가 AI 전략 통해 '30년까지 GDP 대비 AI 산업 기여도 13.6% 목표로 집중 투자,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인 MGX 조성 등</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우디아라비아는 현 123MW 규모 데이터센터 용량을 '29년까지 854MW로 구축할 목표 수립하는 등 중동 데이터센터 시장 확장 추세, Microsoft, AWS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클라우드 기술 협력 중</li> <li>MS, G42에 15억 달러 지분 투자 및 아부다비 2개 AI 센터 건립 계획 발표, 엔비디아, 아부다비에 기후기술연구소 건립 및 AI 솔루션 공동 개발 등 G42와 파트너십 등</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rosoft, AWS, Google Cloud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서비스 시장을 선도 하며, UAE 현지 통신사 Etisalat과 du도 5G 및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tisalat, du 등과의 협력을 통해 5G 기반 서비스 및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현지 시장에 맞춘 통신 인프라와 협력</li> <li>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분야 수주 및 UAE 정부의 AI 및 디지털 전환 수요 대응</li> </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 사우디아라비아</li> </ul>

## 물류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 사우디아라비아 중심 역내 물류 허브 선점 경쟁 중이며 주요 항만, 공항 등에 소재한 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한 재수출도 활발, 물동량 증가 추세로 물류 서비스 수요 또한 늘어날 전망</li> <li>역내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물류 허브 경쟁 심화에 따른 투자 지속 확대 추세</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CC 철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추세이며, 항만과 공항 등을 개발해 복합물류시스템(트라이포트) 구축. 이를 통한 선적 처리량 확대 및 허브로서의 입지 확대</li> <li>UAE는 중동에서 물류 서비스가 가장 발달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3년 물류 서비스 산업은 약 250억 달러 규모를 기록</li> <li>UAE 물류 시장은 디지털화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이 빠르게 확산 중. 특히, DP World와 AD Ports는 스마트 물류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HL, FedEx 등 글로벌 기업과 더불어 LX Pantos, CJ 대한통운 및 한인 통관·물류 업체들도 다수 진출</li> <li>Aramex의 경우 중동 기반의 물류사로 UAE 및 중동지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토후국별 독자의 세관을 운영하고 있어 진출 지역에 따른 세칙 등을 파악하여 진출</li> <li>진출 형태(사무실, 창고 등)에 따라 진출지역(자유무역지대 혹은 본토 등) 전략적 선택</li> </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li> </ul>

## 의료서비스(병원관리시스템 이전, 위탁운영)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국 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외 선진 의료 기술 및 병원 시스템 적극 도입</li><li>거주·관광 목적의 해외 인구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인원 수용을 위한 의료시설 및 서비스 수요 증가</li><li>(사우디아라비아) Vision 2030 5개 핵심 분야 중 보건의료를 포함</li><li>(오만) Health Vision 2050 국가 장기 프로젝트 발표 및 의무건강보험제도 도입 등</li></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역내 최대 의료 지출 국가인 UAE는 '27년까지 의료 지출이 연평균 7.4% 증가 전망되며 관련 의료시설 증설이 예상됨.</li><li>의료 선진국으로부터 병원관리시스템 이전과 위탁운영 계약 형태를 통한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전수 받는 중</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 서울대병원, 힘찬병원, 나누리병원, 아산병원 등</li><li>(미국) Johns Hopkins, Cleveland 병원 등</li><li>(영국) King's College 병원 등</li><li>(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외과대학 병원 등</li><li>의료기기 시장 경우 GE, Philippss 등 글로벌 대기업이 시장 장악</li></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원내원(Shop in Shop) 형태 진출을 통한 환자 유치</li><li>우수 의료 인력 파견을 통한 한국 의료 서비스 인지도 제고</li></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UAE,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li></ul>

## 스마트팜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동 주요국 식량 안보를 위한 국가 비전 제시<ul style="list-style-type: none"><li>(UAE) 2051 식량 안보 전략 등 UAE 정부에서는 자국민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및 식량 안보 관련 산업 육성</li><li>(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농업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식량 안보 강화</li></ul></li></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직 스마트팜 초기 단계라, 각종 기술 및 작물, 서비스 분야별 새로운 시범사업 도입 중</li><li>최근 UAE 정부에서는 자국민이 운영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고, 정부 주요층이 방문하는 등 스마트팜 육성에 대해 각별히 노력 중</li><li>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는 미국의 Aerofarm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자국 내 스마트팜 시설 및 기술 계약 체결</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까르푸, 에마레이츠 항공 등 대규모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유럽 및 중동 현지 기업들 간 스마트팜 서비스 분야 협력 강화 중</li><li>최근 한-UAE 경제외교 및 CEPA 체결 등을 통해, 스마트팜 분야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분야로 선정, 우리 기업들도 스마트팜 기술, 컨설팅, 서비스, 시공 등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 방안 논의</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정부 간 협력 사업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li><li>KSP 등 활용, 식량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G2G 협력 강화 등</li></ul>
<b>유망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li></ul>

## 디지털 콘텐츠

- 선정사유**
- 이슬람 문화권 중심 중동국가는 관광/전시/물류 등 비석유 부문에 대한 강화 중, 문화 콘텐츠는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
- 시장동향**
- 전시·공연·스포츠 등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서 투어 형태로 유치 중이고,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대규모 홍보 마케팅 중
    - \* NBA 농구경기, 오페라·뮤지컬·콘서트, F1 카레이싱 등
- 경쟁동향**
- 대부분 문화 선진국인 미국·유럽 등 공연이 많고, 간혹 CIS 등 신흥국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 확대 중
- 진출방안**
- 최근 아르떼 뮤지엄 등 한국산 콘텐츠가 두바이 핵심 전시장인 두바이몰 내 상시 전시 등, 최근 한국산 콘텐츠 인지도 제고
  -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 다양한 관광·콘텐츠 프로젝트를 도입 중인 두바이·아부다비 등과 디지털·콘텐츠 분야 전시 등 협력 확대
- 유망국가**
- UAE,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 게임

- 선정사유**
- 중동은 타 권역보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게임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스마트폰 사용률도 90% 이상으로 높은 편
  - 모바일 게임 외 PC 및 콘솔형 게임 또한 각광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게임 허브 구축을 위해 해외 게임기업 지분 투자 및 ESPN 대회 자국 개최 등 큰 관심을 보이는 중
- 시장동향**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게임 및 e-스포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투자 확대 중
    - \*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소유 국영기업인 Savvys Games Group은 '30년까지 378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22년) 및 매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게임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계획
    - \* UAE 국부펀드 Mubadala는 아부다비 게이밍(AD Gaming)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게임 생태계 개발 확대 추진
- 시장동향**
- 콘솔 게임의 보급률이 높은 중동 내 일본의 Playstaion 및 미국의 Xbox가 시장 독식
  - PC 게임은 고사양 게임들 위주로 수요가 높은 편이며 PUBG, 포트나이트, EA Sports, 블리자드, 라이엇게임 등 미국 브랜드의 PVE 콘텐츠 및 전략시뮬레이션 등의 수요가 높은 편
- 진출방안**
- 아랍어 서비스 및 아랍 배경 활용 등 현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유망국가**
-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 첨부 3

##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 '26년 중동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시기	장소
AI 생태계 AI 기술 협업	두바이 AI Week 참가	4월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기술 전시회(LEAP SAUDI) 한국관	4월	리야드
	모로코 UAE 정보통신 전시회(GITEX Africa) 한국관	4월	마라케시
	World Police Summit 연계 상담회	5월	두바이
	한-알제리 기술사업화 로드쇼	10월	알제
	2026 중동 스마트시티 로드쇼	4분기	리야드
	UAE 정보통신 전시회(GITEX Global 2026) 한국관	12월	두바이
AI 생태계 에너지 전환	경남 원전 전력기자재 사절단	5월	두바이
	2026 한-이집트 전력에너지 GP	8월	카이로
	WETEX 연계 신재생에너지 사절단	9월	두바이
	에너지/전력기자재 사절단	3분기	이스탄불
	2026 중동 전력·원전 시장개척단	11월	카이로
첨단 산업 첨단산업 진출 및 기술 협업 제조업 GVC 참여·프로젝트 진출	알제리 자동차 부품 무역사절단	3월	알제
	2026 쿠웨이트 플랜트기자재 무역사절단	4월	쿠웨이트
	2025 한-이집트 자동차 혁신 GP	4월	카이로
	한-이집트 제조업 비즈니스 파트너십	5월	카이로
	조선해양기자재 무역사절단	3분기	이스탄불
	한-알제리 제조업 파트너링 사업	9월	알제
	사우디아라비아 디자인 인테리어 전시회(INDEX SAUDI) 한국관	9월	리야드
	한-이집트 프로젝트 플라자	10월	카이로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ageing Istanbul) 한국관	10월	이스탄불
	두바이 건축 전시회(Big 5) 한국관	11월	두바이
한-쿠웨이트 스마트시티 포럼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두바이 자동차 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한국관	12월	두바이
	한-쿠웨이트 스마트시티 포럼	하반기	쿠웨이트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연중	리야드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연중	두바이

구분	주요 사업명	시기	장소
경제협력 경제 협력 후속 사업 방산시장 동반 진출	방산·치안 온라인 수출상담회	상반기	쿠웨이트
	MRO Middle East 방산홍보관	2월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전시회(WDS SAUDI) 연계 상담회	2월	리야드
	튀르키예 방산전시회(IDEF) 연계 상담회	4월	이스탄불
	Egypt International Airshow 연계 방산 상담회	9월	알라메인 (온라인)
	요르단 방산전시회(SOFEX) 한국관	10월	암만
	방산·G2G선도무역관 운영	연중	리야드
소비시장 유통망 협력사업·내수초보	마그레브 디지털 마케팅	2~3월	알제
	두바이 피부미용 박람회(Dubai Derma) 연계 상담회	3월	두바이
	2026 K-Beauty Expo Saudi	4~5월	리야드
	K-수산업용품 수출 핀포인트 상담회	4월	카사블랑카
	‘모로코 화장품 전시회’ 연계 쇼케이스 전시상담회	5월	카사블랑카
	2026 중동 K-Lifestyle in Middle East(경기도 협업)	5월	두바이
	리야드 한국 소비재 판촉전	4분기	리야드
	DX 기반 수출초보기업 지원 사업	연중	이스탄불
	UAE 한류 거점사업, K-서비스 거점사업	연중	두바이
	대형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연중	전 무역관
소비시장 의료·바이오 시장 진출	UAE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 2026) 한국관	1월	두바이
	중동 K-바이오 사절단	2분기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보건 전시회(Global Health Exhibition) 한국관	10월	리야드
	UAE K-바이오데스크	연중	두바이
재건시장 재건 프로젝트 및 미개척 시장 진출	이란 국제 의약품 전시회 흥보관	9월	테헤란
	이스라엘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상담회	미정	텔아비브
	레반트 재건시장 설명회 및 상담회	미정	암만

## 첨부 4

#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라마단	2월 18일~3월 20일	
알제리 총선(하원 선거)	6월	
제36차 NATO 정상회의 개최	7~8월	개최지 : 터키예 앙카라 대통령궁
모로코 총선(하원 선거)	9월	
아랍연맹(AL) 제35차 정상회의	'26년 중	
UAE 건국일 55주년	12월 2일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UAE CEPA 비준 및 발효	'26년 예상	-
한-GCC FTA 정식서명	'26년 예상	-
2026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Abu Dhabi Sustainability Week)	1월 11~17일	아부다비
2026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 (World Future Energy Summit 2026)	1월 13~15일	아부다비
2026 세계 정부 정상회의 (World Government Summit 2026)	2월 3~5일	두바이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두바이 보안장비 전시회(Intersec)	1월 12~14일	두바이
두바이 치과 기자재 박람회(AEEDC)	1월 19~21일	두바이
두바이 걸프 식품 전시회(Gulfood)	1월 26~30일	두바이
두바이 의료 전시회(WHX Dubai)(구 아랍헬스)	2월 9~12일	두바이
두바이 더마·미용 박람회(Dubai Derma)	3월 31일~4월 2일	두바이
두바이 보트 전시회(Dubai Boat Show)	4월 8~12일	두바이
아부다비 AI 전시회(AI Everything Global)	5월 11~13일	아부다비
두바이 인덱스 디자인 전시회(INDEX)	6월 2~4일	두바이
두바이 수·환경 에너지 전시회(WETEX)	10월 중	두바이
두바이 농업 전시회(Agra Middle East)	10월 중	두바이
두바이 미용 박람회(Beautyworld Middle East)	10월 중	두바이
아부다비 석유·가스 박람회(ADIPEC)	11월 3~6일	아부다비
두바이 건축기자재 박람회(Big 5)	11월 중	두바이
두바이 정보통신전(GITEX Global)	12월 8~11일	두바이
두바이 스타트업 전시회(Expand North Star)	12월 중	두바이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Dubai)	12월 중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축 박람회(Big 5 Construct Saudi)	1월 18~21일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전시회(World Defense Show)	2월 8~12일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빅테크 박람회(LEAP)	4월 13~16일	리야드
리야드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Riyadh)	4월 20~22일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전시회(EV Auto Show)	5월 3~5일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의료 전시회(Global Health Exhibition)	10월 중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부동산 전시회(Cityscape Global)	11월 중	리야드
카타르 건설·서비스 첨단 기술 엑스포(ConteQ Expo)	9월 중	도하
이집트 섬유전(EGY Stitch & Tex Expo 2026)	9월 24~27일	카이로
이스탄불 방산전시회(SAHA Expo)	5월 5~9일	이스탄불
튀르키예 원전 에너지 서밋 (Nuclear Power Plants Expo & Summit)	7월 중	이스탄불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요르단 방산전시회(SOFEX)	10월 27~29일	암만
이라크 국제 방산박람회(IQDEX)	4월 11~14일	바그다드
모로코 정보통신전시회(GITEX Africa 2026)	4월 7~9일	마라케시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최인영	부장	중동지역본부	+971-04-450-4360(111)	cinyoung@kotra.or.kr
2	김성빈	대리	중동지역본부	+971-04-450-4360(127)	sbkim@kotra.or.kr



# 2026 중동 진출전략



ISBN: 979-11-402-1475-4 (93320)  
979-11-402-1476-1 (95320)(PDF)